

12,218km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부산에서 베를린까지

※ 이 책자는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사업 참가자들의 수기를 모은 것으로서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베를린
독일

바르샤바
폴란드

유럽철도

모스크바

예카테린부르크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

이르쿠츠크

울란바토르

몽골

아름다운 횡단 철도(TMGR)

베이징

하얼빈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부산

중국



발간사



오 거 돈
부산광역시장

24박 25일, 12,218km의 기록이 담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 부산에서 베를린까지 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단순한 친선교류행사가 아닌 지자체 최초 4년 연속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산의 대표 도시외교 행사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의 홍보와 “부산발 북방협력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형 민간외교사절단으로서 유라시아 대륙횡단 및 거점도시별 부산 홍보행사 개최하며 유라시아 주요지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유라시아 대장정 행사가 올해는 베를린까지 구간을 확장하게 되어 유라시아 횡단열차의 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남북중단철도가 연결되고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철도와 해상노선의 시종점인 부산의 비전이 실현되는 날이 성큼 다가올 것 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발맞춰 '부산시 3대 핵심 프로젝트'인 중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현재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도심 공간 대개조 등 3대 과제를 완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도시외교를 더욱 활성화 하여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여름 24박 25일 간의 긴 여정동안 아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한 대장정 단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유라시아 관문도시, 동북아 해양수도로써 우리 부산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편집후기



안 영 철
유라시아협력센터장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제4기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6년 7월,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라는 이름으로 첫 닳을 올린 유라시아 대장정 프로젝트가 벌써 4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이라는 새로운 타이틀과 함께 대학생·시민·전문가로 이뤄진 총 56명의 단원이 24박 25일 동안 러시아-중국-몽골-러시아-폴란드-독일로 이어지는 총연장 12,218km의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제4기는 지자체 최초의 4회 연속 추진된 도시외교 행사로 제1기(2016)는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용해 러시아 주요 도시를 횡단하였고, 제2기(2017, 2018)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몽골 횡단철도를 이용해 중국, 몽골, 러시아를 횡단하였으며, 제3기(2018)는 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을 횡단하며 중앙아시아와의 교류를 진행했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유럽까지 노선을 확장하여 베를린까지 육로로 이동하며 통일 경험 교류를 통한 남북 평화 시대 입

지를 선점하고 유라시아 주요 도시별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거점 도시별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부산-베를린 친선 평화 음악회, 부산-모스크바 영화교류, 블라디보스토크 부산데이 행사, 우수리스크 항일 운동가 유적 답사, 부산-몽골 친선의 밤 행사, 베이징 징동닷컴, GTI 방문, 하얼빈 도시계획관 방문 등 경제·문화·4차산업을 아우르는 주요 거점 도시별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라별 현지 시민들에게 동북아 해양수도이자 유라시아 관문 도시 부산을 각 인시키는 한편, 통일시대를 대비한 부산-유라시아 도시 간 교류협력의 초석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앞으로 유라시아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제4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부산시장님과 러시아·중국·몽골·폴란드·독일과의 원활한 교류행사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님, 주부산 중국 총영사님, 주부산 몽골 총영사님, 선미라 대사님, 장하성 대사님을 비롯한 각 도시의 공관장 및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장정 단장님과 자랑스러운 대장정 단원 56명 모두에게도 감사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2019년 12월

Contents

Intro	발간사	4
	편집후기	6
	한줄소감	8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개	12
	유라시아 협력센터 소개	12

제 1 장 중국과 몽골 “과거에서 미래로”

01. 통일시대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에서 베를린으로 가~자! (도용희,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단장, 부산시의회 의원)	17
02. 하얼빈의 또 다른 아름다움 (박영주, 대학생)	20
03. 하얼빈 안중근 기념관을 방문하며 (박진현, 대학생)	24
04. 나만 몰랐던 중국, 크고 크고 큰 중국 (박은지, 교사)	27
05.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다 (임진호, 대학생)	32
06. 동북아 다자협력 그랜드디자인의 본산 GTI를 찾아 가다 (진양현, 前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36
07. 대륙의 물류 네트워크에 발을 내딛다 (김동혁, 대학생)	41
08. 마지막 중국 일정, 베이징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김민성, 대학생)	47
0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이 만난 몽골의 슈바이처 이태준 의사의 독립운동과 의료 활동 (김태욱, ㈜지산개발 마케팅이사)	50
10. 아니 내가 이 먼 곳에서 부산을 대표한다고? (김민석, 대학생)	55
11. 울란바토르에서의 짧은 밤 (오세열, 경찰서 경위)	60
12. 바이칼호수를 향해 (홍현민, 대학생)	62



제 2 장 러시아 “유라시아의 중심”에서 외치다

13. 러시아 극동에서 자매 도시를 만나다 (김상자, 시각디자이너)	71
14. 노문과 학생이 겪은 부산 데이 (문윤정, 대학생)	77
15.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수리스크로 향하다 (김보은, 간호사)	83
16.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민족의 얼과 희생 (박소은, 대학생)	89
17. 하늘 아래 같은 삶은 없다 - 무소의 불처럼 갈 길을 가는 이들 (권희경, 관광통역안내사)	93
18. 이르쿠츠크 한국영화상영회 오프 더 레코드 (이유림, 대학생)	97
19. 유라시아시민대장정 RZD 에르제데의 풍경화 (엄동현, 前교직원)	101
20. 이르쿠츠크에서 예카테린부르크까지, 54시간의 특별한 열차생활 (김정원, 대학생)	106
21. 유라시아 분기점,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밟다! (문우영, 대학생)	111
22. 러시아판 실리콘밸리 스킴코보를 방문하다 (유라시아 협력센터)	116
23. 부산 - 모스크바 영화교류 (이지연, 대학원생)	119
24. 부산 - 모스크바 영화교류 (이창희, ㈜인타운 대표)	123
25. 다채로웠던 바르샤바행 열차 (강현지, 대학생)	128

제 3 장 “부산발 유럽행 대륙열차 시대” 준비의 시작

26. 바베큐와 음악으로 즐거웠던 부산, 바르샤바 시민 교류의 장 (강보민, 대학생)	132
27. 먼 나라 바르샤바에서 친구 사귀기 (황수민, 대학생)	137
28. 유라시아 길의 길잡이, LG전자 무와바 법인 (신보람, 대학생)	142
29. 유럽에서도 통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전자제품 (장지원, 대학생)	146
30. 스마트시티 혁신단지 아틀러스 호프 산업시찰 (김영진, 대학생)	149
31. 혁신의 그 곳 스마트시티혁신단지 베를린부흐 (강서경, 대학생)	153
32.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한국 (유예송, 대학생)	157
33. 베를린 필하모니 도시에서의 문화예술교류 (문수원, 세종문화예술연구소 소장)	160

부 록	2016~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발자취	168
	유라시아 협력센터 직원 후기	174
	언론기사 모음 자료 - 관련 영상 출처	182



한줄소감



유라시아협력센터

대장정 단원여러분!!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한줄 소감 부탁드립니다!



도용희

부산역에서 평양을 거쳐 유럽까지 가는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가자!!



김태옥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야 할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길! 하나의 길!



강현지

첫 행사이자 가장 큰 행사로 기억남은 블라디보스토크 부산데이!



박소은

우수리스크 항일운동가 유적답사가 인상 깊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민족의 열과 희생...



강서경

고려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던 값진 고려인 문화센터 방문



김보은

이국땅에서도 한국의 것을 알리고 유지하려는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했던
우수리스크 연해주 고려인협회장 초청 간담회



임진호

한국인이려면 꼭 가야 하는 가슴 벅찬 장소, 안중근 기념관



박진현

대한독립은 단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문윤정

부산에도 하얼빈 도시계획관 같은 곳이 있었으면!



김동혁

하얼빈-베이징, 첫 장기 열차였지만 함께 단합하며 성공적으로 하차하게 된 순간이 감명 깊었다.



진양현

동북아 다자협력 그랜드디자인의 본산 GTI를 찾아가다!



엄동현

브레이크 없는 중국의 발전 속도를 보았다.



김민성

유명한 베이징 징동닷컴을 방문했을 때 모든 게 신기했다. 중국의 발전은 경이롭다.



황수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쉽게 빌 수 없었던 분들께 들었던 특강이 뜻깊었다.



유예송

울란바토르-이르쿠츠크 국경통과 과정이 기억에 남는다.
차로 국경통과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선 경험할 수 없는 진귀한 경험이었다.



홍현민

부산-울란바토르 친선의 밤 행사에서 몽골의 예술 공연이 한국 못지않게 정말 멋졌다!



한줄소감



오세열

울란바토르의 짧은 밤이 아쉽다.



장지원

긴 시간 열차를 타는 것이라 걱정했지만, 이동하면서 함께 멘토분들의 특강도 듣고 유라시아 단원들 간 대화를 나누었던 뜻깊었던 시간이었다.



이창희

이르쿠츠크에서 느꼈던 한류의 뜨거움! 같이 영화를 감상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 일정 관계로 먼저 가서 아쉬웠다.



김상자

대장정의 꽃, 유럽-아시아 분기점 횡단 기념식! 이로써 나는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다!



이유림

모스크가 영화교류에서 영화에 대해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교류가 이뤄지는 모습에 신기했다!



이지연

부산-모스크바 영화교류! 인상 깊었다.



문우영

모스크바 벤처사업가 토크콘서트 때 아직도 기억나는 대표님의 나이, 나의 스물다섯은 어떨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박영주

너무나 고마웠던 모스크바 환송식, 내리고 싶지 않은 기차!



박은지

우리보다 우리나라 노래를 더 많이 아는 바르샤바의 열정 넘치는 친구들!



김정원

바르샤바 대학생들이 K-POP에 맞춰 춤을 추고, 한국어로 이야기 했다. 폴란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신보람

한국의 대표기업이자 그 도시에까지 좋은 영향력을 미친 LG 무와바 법인을 방문한 것이 매우 의미 있고 보람찬 일정이었다!



권희경

베를린 분단의 기억 전시 관람이 기억에 남는다. 동물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분단은 사람을 잇는다.



김민석

100년 넘게 생명공학 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는 베를린부흐 산업시찰이 매우 흥미로웠다!



강보민

베를린 스마트시티 혁신단지 아틀러스 호프 산업을 시찰하며 독일의 뛰어난 기술과 친환경 지향 개발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던 시간!



김영진

부산-베를린 친선평화음악회가 대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행사여서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다.



문수원

베를린 필하모니 도시에서의 문화예술교류!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이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글로벌 해양수도, 세계인이 모여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외국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국제도시 부산을 구현하고, 부산의 글로벌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라시아 협력센터

부산국제교류재단 유라시아 협력센터는 **유라시아 관문도시인 부산이 통일시대 환동해 경제중심도시로**써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전문기관입니다. 부산과 유라시아를 잇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유일의 유라시아 교류 협력 전문기관**으로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유라시아 도시포럼, 부산-블라디보스토크 청소년 농구교류, 부산 러시아 영화 상영회,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유라시아 경제협력단 파견, 부산 개최 러시아 문화행사 지원, 한반도 교류사업 추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장정
동행! 러시아어로 부산

희망의 길 하나의 길 통일의 길 4번째 여정

유라시아

부산에서 베를린까지
Eurasia Expedition

모집 일정

- 신청접수 : 2019. 4. 17(수) ~ 5. 3(금)
- 선형 > 서류심사 > 면접 > 선발(예정)

원정일차 : 2019. 7. 17(수) ~ 8. 10(토)

*일차 모집에 관한 일부 조건들이 있습니다.

EURASIA CITY FORUM 2019

2019 유라시아 도시 포럼

4차 산업혁명의 열쇠 블록체인
- 부산과 유라시아를 잇다

2019. 12. 13.(금) 14:00~18:00 /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1층 109호

주최 부산광역시 | 후원 부산국제교류재단 BDI 부산연구원

2019 유라시아 협력센터

부산-블라디보스토크 청소년 농구교류

블라디보스토크 파견 부산 초청

2019 유라시아 영화문화제

Eurasia Film & Culture Festival

2019. 12. 15(일) 15시, 19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영상실
Busan Film Experience Museum





1

중국과 몽골

“과거에서 미래로”

01. 통일시대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에서 베를린으로 가~자!



도용희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단장
부산시의회 의원

24박 25일 동안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서의 부산을 알리고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신북방 경제를 열기 위한 긴 여정을 46명의 유라시아 대장정 대원들과 함께 건강하고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대장정의 제목 “유라시아부산시민대장정”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고 시민의 대표인 “부산시의회”의 자격으로 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유라시아 대장정은 이번이 총 4회인데 3회까지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종점이었으나 남북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기원하고 1936년 손기정님이 베를린으로 올림픽을 갔던 길을 기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독일 베를린까지 가게 되었고, 통일시대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서의 부산을 알리기 위해서 출정식을 부산에서 하였습니다.

출정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님,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8명 의원 전원과 200여 명의 부산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겁게 출정식을 하였습니다.



기념 티켓 전달 (좌)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 (우)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

24박 25일 동안 46명의 생소한 단원들과 함께해야 하고

긴 기차탑승시간, 비포장도로, 그리고 5개국 10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의 나라들이지만 잘 발길이 닿지 않는 러시아, 몽골, 폴란드 등에 부산을 알리고 민간외교를 하는 것에 상당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첫 번째 방문도시였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많은 시민과 함께 “부산 데이” 행사를 성대히 치렀던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부산 데이 행사는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지역의 큰 행사로 자리매김했고 수백 명의 현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떡볶이, 호떡 등 한식 먹기, K-POP 공연 등을 하면서 함께 축제를 만들었죠.

또한, 저희가 탔던 기차가 시베리아횡단 열차였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쉬지 않고 가면 9,288km고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거기서 베를린까지 더 갔죠. 그 구간 중 5개국 10개 도시에서 도시교류 등 행사를 해야 하므로 전 구간을 기차로 가지 못하고 버스로 가는 구간도 있었지만 대부분 기차를 탔습니다. 그중 가장 긴 탑승 시간이 바이칼호수의 도시 이르쿠츠크에서 예카테린부르크까지 57시간 동안 기차 안에서 있었습니다. 57시간의 기차 시간이 지루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단원들과 이야기해 보면 그 57시간의 구간이 가장 좋았던 시간 중의 하나라고 말하는 단원들이 많았습니다. 단원들과

살아왔던 이야기도 하고, 전문가 멘토들과의 대화, 삶에 대한 계획, 초원, 대평원의 일출, 말과 양 떼들! 무척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원들이 화합된 분위기,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하고, 남에 대한 배려 등 역대 최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들 너무 친해져 버렸네요.

올해는 일본과의 경제전쟁, 지소미아, 위안부 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일본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안중근, 이태준, 최재형 등 독립투사들의 기념관 및 흔적을 보았습니다.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슬아슬 하지만 남북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 곧 평화통일의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보다 앞서 동서통일을 이루어낸 독일 베를린으로 가서 남북평화의 시대에 한국은, 부산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베를린 시의원,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배운 것은 큰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북방경제를 활성화하고, 통일한국시대의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서 부산을 알리기 위해 민간외교사절단이라는 신념으로 24박 25일간의 대장정을 다녀왔습니다. 저희의 대장정 경험과 노력이 부산시민들의 삶과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 단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가 24박 25일 동안 외쳤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라시아시민대장정!! 가~자!!



출정식 단체 기념촬영

02.

하얼빈의 또 다른 아름다움



박영주
대학생

하얼빈의 또 다른 아름다움

중국에 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얼빈 겨울 빙등 축제 혹은 하얼빈 맥주에 대해 익히 들었을 거로 생각한다. 나 또한 그 하얼빈 여행을 꿈꾸는 사람 중 한 명이다. 하지만 나는 이곳의 여름 풍경을 보고 하얼빈의 또 다른 매력에 빠져 버렸다. 하얼빈의 여름은 피서하기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바람이 시원하고 날씨가 아주 좋았으며, '중국 동방의 유럽'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것처럼, 시내 거리에는 따뜻한 햇볕 아래 비추어진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화려한 건물들이 줄을 이어 서 있었는데, 도시계획 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모두 이곳의 풍경에 빠져서 거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하얼빈 도시계획관 앞에서 통역지원팀의 사진촬영

도시계획관

도시계획관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린 대원들은 커다란 박물관 외관을 보더니, 팀으로 뭉쳐져서 저마다 다양한 자세로 자신들만의 기념사진을 찍었다. ‘레이 평(雷锋)을 본받으며’라는 휘장을 두른 안내원을 따라 박물관에 들어가 처음 보이는 전시관의 입구에는 건물 외벽에 똑같은 ‘하얼빈 도시계획관’이라고 크게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여러 가지 화분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찰칵’ 또다시 여기저기서 촬영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에 대원들은 한둘씩 개인 기념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하얼빈에 대해 알아볼까?

도시계획관은 “역사 기록을 남기며, 도시 미래를 선도하다”를 주제로 하여 3층으로 나누어진다. 1층은 도시 역사 전시관, 2층은 도시 계획 전시관, 마지막으로 3층은 도시 전시관이 다. 중간 일부분은 도시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만들어진 도시 모형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줄을 지어 다른 사람들처럼 발아래에 있는 방향을 따라 전시관 속으로 들어갔다. 역사 전시관 들어서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하얼빈의 도시 상태, 하얼빈의 다양한 별명, 풍

부한 자연 등등 하얼빈이란 도시에 대한 설명들이 벽에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었다. 그중에서 가이드님은 '매력적인 얼음도시(魅力冰城)'를 제일 힘을 주어 설명해 주셨다. 그 옆에 있는 겨울 조각 사진들이 나로 하여금 꼭 한번 겨울에 다시 이곳을 와야 한다고 다짐하게 했다.

전차 타고 시간 여행

도시 계획관 안에는 눈에 띄는 커다란 검은색 옛 기차 모형이 있었다. 우리는 기차 모형 옆에는 중국 동부 철도 노선선 지도가 그려져 있다. 나는 신기해서 기차를 괜히 여기저기 살펴보았다. 기차 바로 옆에는 전차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질 수 없단 듯이 빠른 속도로 전차에 올라탔다. 체험 전차는 실제로 움직이지 않지만, 차창에 있는 모니터를 움직이는 원리로 착시현상을 만들어냈다. 전차 안에 들어가 대원들과 나란히 앉아 창 밖에 있는 옛날 풍경을 바라보았다. 전차가 점점 속도를 올리더니 옆 도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실제로 기차에 탄 것처럼 시야에서 점점 멀어졌다. 전차 안에서는 꽃이 피어나는 봄, 푸릇푸릇한 나무가 있는 여름, 가을 잎이 떨어지는 가을,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까지, 모니터에는 아름다운 사계절의 옛날 하얼빈 모습을 담고 있었다. 우리는 영상이 끝날 때까지 마치 진짜로 그 시대에 간 것처럼 그 풍경에 푹 빠져 있었다.

중국의 작은 러시아

하얼빈의 건축물들은 아름답기로 소문이 났는데, 그중에서 손에 꼽히는 관광명소는 성소피아 성당이 있다. 전시관 안에는 '나도 하얼빈을 대표하지!' 하고 당당하게 외치는 듯한, 성소피아 성당의 모습이 담긴 큰 그림과 세세하게 만든 성소피아 성당의 모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어째서 다른 나라의 문화가 담긴 이 성당이 중국 하얼빈의 관광명소가 되었을까? 하얼빈은 중국 동북쪽에 있는 도시로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이다. 그래서 러일 전쟁 때 러시아는 하얼빈을 병참기지로 삼고, 도시 곳곳에는 많은 건축물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러시아 양식의 건축물들은 하얼빈을 독특한 관광 도시로 이름 날리게 했다. 성소피아 성당은 중국이 러시아에 침략을 당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하얼빈의 근대 역사를 연

구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흔적이기도 하다. 성소피아 성당은 하얼빈에서 다양한 모습의 건축물을 생기게 한 중요한 건물이고, 하얼빈이 세계로 발전하며 뻗어 나갈 수 있는 크나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반짝반짝 빛나는 하얼빈

우리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에 있는 하얼빈 도시 LED 전시를 볼 수 있었다. 벽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하얼빈을 소개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대원들은 모두 한쪽에 모여 신기하듯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감상했다. 위에서 바라본 LED 전시에 있는 작은 도시들은 우리가 하늘에서 날며 아래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도시계획관에서는 과학기술로 생생하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도시계획관에서 시간 여행을 체험한 것 같았다.

하얼빈 도시계획 전시



03.

하얼빈 안중근 기념관을 방문하며



박진현
대학생

야간에 도착해서 느낄 수 있었던 하얼빈이라는 도시는 우리가 예전에 알던 중국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선진국 도시였다. 밤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아침에 서야 하얼빈역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이 굳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하얼빈역 옆에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었다.

자신의 나라 역사가 아닌 다른 나라의 역사적 인물을 옆에 기념관까지 만든 걸 보면 그만큼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이 대륙이라는 중국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안중근 의사의 독립기념관은 외교적 민감성 때문에 극비리에 설립이 추진되다가 2013년 1월 19일 전격 개관했다. 개관 3년만인 2017년 3월, 하얼빈 역사의 개·증축 공사로 인해 조선 민족예술관으로 임시 이전했다가 2019년 3월 20일 원해 자리에 개관하게 되었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 독립기념관을 들어섰을 때 웅장하게 서 있던 그분



안중근 의사님과 함께



단장님의 방명록 작성

의 동상이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단원들 모두를 맞이 해주셨다. 한국에서 머나먼 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나 여기 하얼빈까지 우리의 간이역에서 느낄 수 있었던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성공적으로 도착해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느낌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거 같다. 그 옛날 그분께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차갑고 힘든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안중근 의사 동상의 손가락은 스스로에 대한 굳은 의지와 의병들에게 투쟁 의욕 고취 독립을 향한 굳은 맹세로 스스로 잘랐던 그 빈자리가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직도 시곱바늘이 오전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시간이다. 이제 시계를 보면 내 시계의 시곱바늘이 9시 30분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만큼 누군가는 잊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는 다시 되새겨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든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안중근 의사가 걸었던 독립운동에 대한 발자취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외롭고 힘들었을 이 길을 걸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섰을 때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장소를 볼 수 있었다. 이번에 새로 개관하게 된 자리에서는 기념관 바깥쪽에 있었지만, 예전에는 기념관 안쪽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장소의 발 도장이 있었다고 한다. 그 위치에 서볼 수 없었던 것이 너무 아쉬움이 남는다.



역에서 열차 대기하면서

다음은 안중근 의사 어머니의 편지의 내용이다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탄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지금에서야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일까.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부모님이 되어 자식을 가지게 되겠지만 나라를 위해 자식에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만큼 가족들 또한 독립운동에 대한 그 염원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내 나이 때 안중근 의사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금강산으로 떠나 금강산에서 일본 수비대를 공격했다고 한다. 나는 지금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안중근 의사 독립기념관을 나설 때 몇 번이나 생각해본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일정을 향해 나아갔다.

04. 나만 몰랐던 중국, 크고 크고 큰 중국



박은지
교사

깔끔한 첫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 곳, 하얼빈 기차역

안중근 역사 기념관에서 그 깊은 역사를 잠시나마 느낀 뒤 베이징에 가기 위해 하얼빈역으로 향했다. 하얼빈역 내부는 매우 깨끗했고, 밝았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깔끔한 첫인상 때문에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우수리스크에서 수이펀허로 국경을 통과할 때 ‘이렇게 크고 깔끔할 수 있나?’라고 느꼈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다.



중국이 이렇게나 크다니! 너무 놀라서 하얼빈역에서 찍은 사진



수분하의 자연풍경

중국, 너 이런 나라였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에 참여하기 전에도 친구들과 여러 나라를 여행해보았지만, 중국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지식도 많지 않았다. 오직 내가 생각했던 중국의 모습은 2001년 개봉된 주성치 감독의 '소림축구'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평범한 시민 중에서도 조금 허름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모습만 보다 보니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영화 속 이미지 그대로 멈춰있었다. 그래서인지 대장정에서 중국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지역인 수이펀허에서부터 나는 벌어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국경을 통과하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심을 먹었던 식당에서도 깜짝 놀랐기 때문이다. 설 새 없이 들어오는 맛있는 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손님에게 푸짐하게 대접한다는 중국의 음식 문화도 처음 접했다. 이렇게나 중국에 대해 몰랐다니, 앞으로 알아가게 될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 설레기도 했다.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 미션 임파서블

기차를 탈 때는 언제나 그랬듯, 짐을 옮기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다. 여행의 초반에는 어떻게 해야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짐을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다. 그러나 몇 번의 경험으로 인해 터득한 방법들이 있었고, 안전지원팀뿐만 아니라 다른 대원들도 조금이라도 더 힘을 보태는 데에 집중했다. 우리는 하얼빈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짐을 3줄로 나열한 뒤에 휴식시간을 가졌다. 이윽고 기차 탑승 시간이 가까워져 오자 내 짐, 네 짐 구분하지 않고 기차 앞까지 짐을 이동시켰다. 기차가 들어오고, 안전지원팀의 지시에 따라 모든 대원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짐들을 모두 기차 안으로 넣은 뒤 사람이 타기로 약속했으나(짐을 먼저 옮겨 놓으면 사람들이 타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렸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분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짧고 촉박했다. 50여 명의 사람과 50개가 훨씬 넘는 짐을 옮겨야 해서 임무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았다.

“일단 다른 문을 통해서라도 대원 먼저 탑승합시다!”

짐들이 들어간 후에 대원들이 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다른 문을 통해 대원들이 탑승하기로 했다. 이렇게나 긴장되는 상황이라니! 열심히 다른 문을 이용하여 기차에 탑승했는데, 짐을 놓을 공간이 너무 부족했다. 일단 빈 의자 위에 짐들을 올려놓고, 우리가 앉을 의자들의 통로에 짐을 놓아서 가까스로 모든 짐과 대원들의 탑승이 완료되었다. 미션 성공! 하지만 또 다른 미션이 주어졌으니, 너무 많은 짐으로 인해 대원들이 앉을 곳이 부족했다. 대원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우리의 짐을 보관할 곳을 찾았고, 그렇게 차츰차츰 짐들은 사라졌다. 너무도 정신없는 탑승으로 인해 자리를 제대로 찾아 앉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급! 정해진 내 자리는 좌석 중 가장 앞자리였다. 벽으로 막혀있어 큰 사람들이 앉기엔 너무도 비좁은 그 좌석은 나에겐 너무도 넓은 자리였다. 나에게 딱 맞는 자리에 찾아가 보니, 예정된 좌석이 아닌 새로운 좌석이 옆에 앉아있었다. 이 좁은 자리에 앉겠다고 자신의 자리를 다른 분들에게 양보한 문수원 대표님과 박유경 대리님. 그렇게 우리 셋은 8시간 동안 앉아서 가게 되었다.

8시간? 별거 아니네!

하얼빈역에서 베이징역까지는 8시간이 소요되었고, 3명씩 2줄로 앉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여행에서 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좌 대표님, 우 대리님과 함께 갈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너무 긴장되었다. 정신없이 자리에 앉아 긴장한 상태로 어떻게 가야 하나 생각할 때쯤, 기차 내 매점카트가 왔다. 여러 음료수와 과자들이 즐비해 있었고, 조금 허기질 때였는데 나이스 한 타이밍이었다. 게다가 고생한 우리를 위해 먹고 싶은 것을 시키라고 하신 촬영 감독님! 너무 멋있었다. >_< 이것저것 먹을 것을 고르고 나니 긴장이 풀렸고, 도란도란 수다 타임이 시작되었다. 새우깡을 좋아하시는 대표님은 우리에게 과자를 같이 먹자며 나누어 주셨고, 우유를 좋아하시는 대리님은 우유를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우유를 받아 과자와 함께 드셨다. 먹을 것으로 금방 어색함이 풀리고, 8시간을 어떻게 가야 하나 고민했던 것은 기우였던 듯 설 새 없이 떠들게 되었다. 대표님은 모든 대장정에 참여하셔서 그동안의 재미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해주셨고, 대리님은 이번 대장정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이야기 해주셨다. 나는 이 대장정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고, 와보니 어땠는지 이야기하니 각기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는 이 대장정이 참 새롭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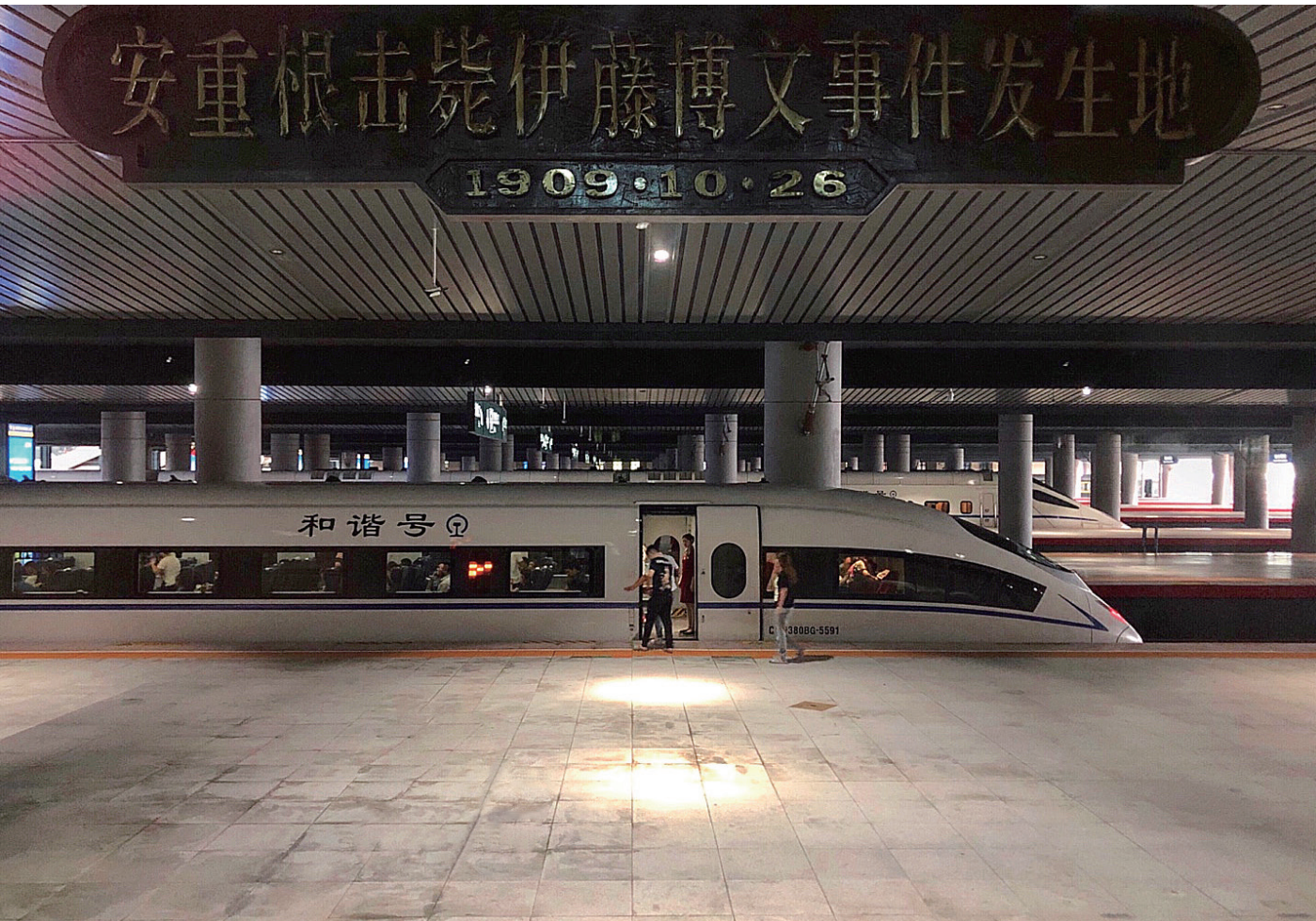
우리의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졌다고?

수다를 한창 떨고 있을 때쯤, 버스의 1호 차와 2호 차의 인원들을 섞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대원이 다가왔다. 그동안 1호 차와 2호 차의 인원들이 정해진 채로 이동을 했는데, 버스 안에서의 시간이 많다 보니 같은 호차를 탄 대원들끼리 친해질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보니 대장정이 진행될수록 다양한 대원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숙소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대원과 만나게 되었고, 같은 팀끼리만 친했었는데, 다른 팀들의 대원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일주일이 채 안 되었지만, 버스 안의 대원들끼리 제법 친해졌으니 인원을 섞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대표님은 여태껏 이렇게 대원들이 의견을 모았던 적은 없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대원들끼리 서로를 생각하고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신기했다. 의견을 모았지만,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대리님들께 의견을 전달했고, 바로 버스의 인원들이 섞이지는 않았다. 단순히 친해질 기회라고만 생각했는데, 버

스의 인원이 섞이면 인원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생각하지도 못한 단점이 있었다. 역시 대장정에 참여하는 대원의 시선과 대장정을 운영하는 운영진들의 시선은 다르다는 것을 한번 더 느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1번 버스 인원을 섞었고,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대장정을 마쳤다!) 8시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기차에서 보냈지만, 눈 깜짝할 새에 베이징역에 도착했고, 베이징역 역시 내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크고 사람들이 많았다.

‘중국, 너 정말 알수록 대단한 나라구나!’

대장정을 마치고나면, 다시 중국에 와서 중국을 제대로 느껴야겠다. 꼭!



하얼빈 역 내 이토 히로부미 저격 장소

05.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다



임진호
대학생

하얼빈에 저녁에 도착하고 하룻밤 자고 오후에 바로 베이징으로 가려고 하니 너무 아쉬움이 컸던 것 같다. 하얼빈에 하루만 있는 것 자체도 아쉬웠고 생각보다 너무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서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꼭 한 번쯤 와야 하는 도시를 방문하고 땅을 밟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가슴이 벅차올랐던 것 같다. 이러한 도시를 떠나려고 하니 아쉬움이 더욱더 컸다. 처음 일정을 나왔을 때 하얼빈에 하룻밤만 보내는 것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었고 별다른 생각도 없었는데 막상 하얼빈에 와 보니깐 하얼빈이 어떠한 도시인지 알게 되고 눈으로 직접 보게 되고 가이드 선생님에게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도시에 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장소 하얼빈에 와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갔다가 오니 더욱더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무겁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였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내가 저 시기에 저렇게 시켜도 못했을 건데 자원해서 했던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많

이 들었다. 우리나라에 상관없는 도시에 왔었다면 마음의 부담을 가지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막상 하얼빈에서 베이징으로 떠나려고 하니 막상 가기 싫은 마음이 컸던 것 같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깊은 뜻을 조금 더 알게 되었던 것 같고 지금 내가 눌러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의 책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일정을 가지면서 끝까지 초심을 놓치지 않고 대장정을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해본다. 그래서 나는 많이 배우게 되고 느끼게 되는 하얼빈을 떠나가기에 아쉬움만 남는다.

하얼빈역에서 새치기

아침 일찍부터 하얼빈 일정이 시작됐다.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비가 보슬보슬 오고 있었다. 비를 맞고 무거운 짐을 끌고, 들고 다니면서 비도 맞고 그래서 짜증이 날만도 했는데 서로를 도와 가면서 하얼빈역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도착해서 모두에게 고맙웠다. 기차 타러 가기 전에 표 검사하는 곳에서 잘 도착해서 다들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와 물 한잔하는 여유를 가지면서 줄을 기다리면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보다 늦게 도착한 중국인이 우리 줄에 몰래 은근슬쩍 들어오면서 새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새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뒤로 가라고 말을 하니 중국인이 더욱더 큰 소리로 말하면서 약간의 말싸움이 있었는데 결국 중국인은 새치기하고 우리가 조금 더 늦게 들어가게 되었다. 너무 분하고 화가 났지만 여기는 중국 땅이니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화를 참고 있었던 것 같다. 중국 사람들은 새치기 많이 한다고 소문으로 많이 듣게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새치기당하고 새치기 한 사람이 더 당당한 모습이 기가 찼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나라만 발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깨어있고 이러한 매너와 인식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행동하면 한국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지고 외국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런 모습을 보면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대한민국의 대표로 부산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과 매너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긴장감 넘치는 중국 기차

기차를 타러 가려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야 해서 다들 서로 도우면서 짐을 다 챙기고 기차 타는 곳으로 도착했다.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를 탈 준비를 다 했지만,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단원이 긴장하고 웃음기가 싹 없는 채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수이펀허에서 하얼빈으로 기차를 타고 왔는데 하얼빈에서 내려야 되는데 하얼빈이 종착점이 아니라 중간에 잠시 정차하는 역이었다. 그래서 하얼빈역 정차시간은 단 2분이었다. 뭐 2분이면 충분히 내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금방 내릴 수 있지만, 문제는 개인 캐리어 및 단체 짐이 있어서 시간 안에 내리기에 너무 빠듯한 시간이기때문에 기차에서 내리기 전에 다들 긴장하고 10분 전부터 내릴 준비를 하고 최대한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해서 정차하고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짐을 들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짐을 마구 던졌다.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1분 20초라는 시간에 50여 명과 50여 개가 넘는 짐을 2분 안에 다 내려서 모든 단원이 박수를 치면서 안도의 한숨과 환호를 하였다. 미션을 성공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하얼빈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열차를 탈 때 정차시간

아슬아슬하게 탑승 후 기념촬영



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들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마자 여러 가지 변수가 막 쏟아졌다. 우리는 바로 타려고 했는데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자리에 중국인이 모두 앉아있었던 것도 문제였다. 일단 짐이든 사람이든 기



하얼빈 역 도착 후

차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서 ‘일단 들어와 우리 짐 그냥 넣어’ 하면서 아주 난장판이 이었지만 어떻게 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기차에 다 탔고 들어 온 다음에 각자 짐을 찾고 잃어버린 짐 없는지 확인하고 무사히 기차를 타게 되었다. 그렇게 다들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긴장이 싹 풀리면서 다 같이 맥주 한잔하면서 무사 탑승이라는 의미로 건배를 하게 되었다. 중국 기차는 이렇게 우리에게 큰 추억을 선사해 준 것 같다. 기차를 타기 전 우리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긴장감이 넘치고 조마조마하고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쓰릴 있고 정말 재미있는 추억이 된 것 같다.

베이징으로 가는 열차 안

다들 서로 아주 친해진 것 같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우리가 점점 시끄러워졌고 이야기 소리가 많이 들려오면서 다들 수다를 떨었던 것 같다. 그만큼 우리가 아주 친해졌고 도시를 이동하면서 서로의 벽이 깨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행사를 하면서 서로서로 매우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하얼빈에서 베이징까지 가는 고속 기차 시간은 8시간이 걸린다. 8시간이라고 들었을 때 정말 힘들겠구나. 어떻게 가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타고 보니 단원들끼리 가까워져서 그런가. 그렇게 길었던 시간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다가 가만히 앉으면서 혼자 창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2015년에 중국 베이징을 가본 적이 있다. 2015년에 중국을 갔을 때 중국이라는 곳이 정말 땅이 크고, 사람들도 많고 어마어마한 나라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를 다시 방문하게 되니깐 뭔가 모르게 기대되는 느낌이 가득했다. 하얼빈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중국을 보게 되었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중국은 하얼빈도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하얼빈보다 더 큰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4년 만에 방문이 더 기대되었다.

06.

동북아 다자협력 그랜드디자인의 본산 GTI를 찾아 가다



진양현
前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아 두만강! 기회의 삼각지대

두만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면서 동해로 흘러 들어간다. 중국 훈춘의 방천 전망대에 올라 두만강을 바라보면 오른쪽으로 두만강 철교 너머로 북한의 산하가 보이고 왼쪽으로는 러시아 하산이 맞닿아 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손에 잡힐 듯이 동해가 바라다보인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마주하는 접경지역, 바로 나진, 훈춘, 하산 지역이다. KBS 명견만리 제작팀은 이 지역을 ‘북·중·러 기회의 삼각지대’라고 명명하고,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의 말을 빌려 이 지역이 향후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란?

‘광역두만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는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북한의 나진·선봉과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 연

해주 일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개발 대상으로 하는 동북아 다자간 협의체다. 본래 남북한과 중국·러시아·몽골 등 5개 회원국 체제였지만 2009년 북한이 탈퇴하면서 현재 4개 회원국만 남아 운영 중이다. 역내 인구만 1억4천만 명에 달하며, 북한·러시아의 풍부한 광업·에너지·임업 자원까지 감안하면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중국·러시아·북한 정부도 각기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인 두만강 인근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리적 이점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 지역은 러시아 북극 항로의 연계 선상에 있는 동시에 중국 일대일로 정책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교류협력사업팀, 베이징 GTI 사무국을 찾아가다

2019년 7월 22일 오전, 유라시아대장정 교류협력사업팀(팀장: 진양현, 팀원: 이창희, 김태욱)은 부산시(안병태 주무관) 및 교류재단(박유경 대리) 직원과 함께 중국 베이징에 있는 GTI 사무국을 찾았다. 사무국은 베이징의 외국인 거주 주택단지 내에 있었다. 별도의 단독 건물이 아니고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어서 다소 이외였다. 사무국은 몽고인인 Dr. Tuguldur Baajikhu 사무총장과 중국, 한국, 몽고 등으로부터 파견 나온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북한도 참관인으로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고 했다.



베이징 자금성 경산공원 방문시

GTI 사무국에서 만난 한국 직원

우리 일행을 맞아 준 사람은 한국 기획재정부에서 파견 나와 근무하고 있는 김○○ 국장과 조○○ 과장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파견 나온 신○○ 과장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한국 직원들과 만남이라서 기쁨이 컸다. 특히 필자와는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 직원들이라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GTI 사무국의 업무를 소개받고 의견을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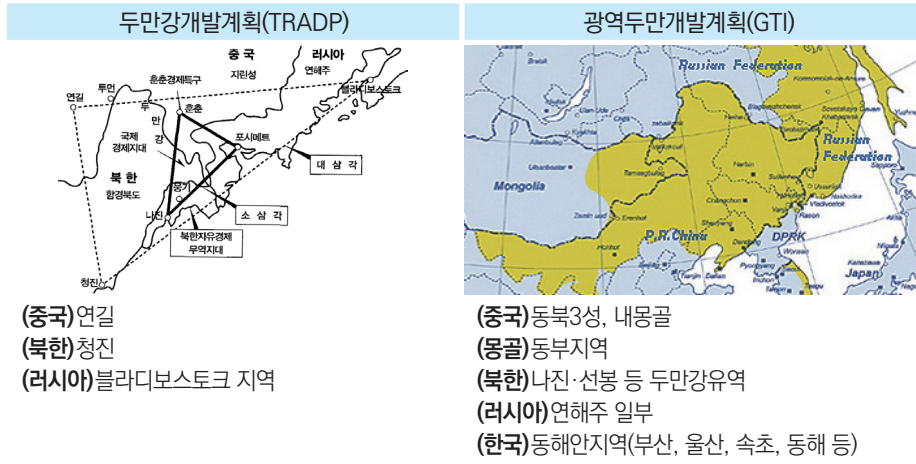
GTI 미팅 중

GTI 사무국의 업무현황 소개

먼저 GTI 사무국으로부터 동북아 국가 간 협력기구인 GTI에 대한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간략히 기술한다.

- 1) GTI는 1992년 UNDP 지원을 받아 출범한 두만강개발계획(TRADP)을 모태로 한다. 2005년 개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공동기금을 설립하며 현재의 GTI로 전환했다. 1995년 당시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몽고, 한국, 북한 등 동북아 5개국이었다.
- 2) GTI의 업무 범위는 당초 두만강 유역 삼각지역 개발 사업이 중심이었으나 이후 교통, 에너지, 관광, 환경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대상 지역도 몽골과 러시아 연해주 및 동해 연안으로 확대되었다.

- 3) 2009년 북한이 UN 안보리 제재를 이유로 GTI에서 탈퇴하였는데, 두만강 유역 개발의 핵심 당사자의 하나인 북한의 재가입을 위해 적극적인 권유 활동을 하고 있다.
- 4)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하고 발전 잠재성이 큰 지역으로서 GTI의 역할은 중요하다. 다만, 각국의 이해관계와 관심이 달라 협력의 제약요인도 많다고 한다.



이어서 상호관심사의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도시 부산의 역할 강조

- 1) 먼저 동북아 다자간 협력체로서의 GTI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부산의 경우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관광, 산업의 중심도시로서 GTI 활동에 실질적인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활용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 2) GTI의 활동에 있어 기업의 참여 특히 물류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GTI 내 각종 분과위원회의 활동과 포럼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부산 소재 기업들도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 3) 이번 유라시아대장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 통과 시 통관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번잡하여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을 확인했다. GTI가 정부 간 협의체이므로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국경 통관 과정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4) 마지막으로 북·중·러 기회의 삼각지대 개발은 정말로 흥미진진한 프로젝트임을 공감하고 관련 국가와 지방정부, 기업,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지혜와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유라시아 철도의 기종점이자 환동해 물류의 핵심, 부산

부산은 유라시아 철도의 기종점이며 북방경제와 환동해 물류의 핵심지역이다. 이 두만강 유역 기회의 삼각지대는 북한 개혁과 개방의 전초기지로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비즈니스 허브를 지향하는 부산은 이 삼각지대를 오랫동안 주목해 오고 있다. 두만강 유역 삼각지대 개발을 모태로 태동한 GTI의 활동에 유라시아대장정 교류협력사업팀이 관심을 기울이고 왔은 이유이다.

교류협력사업팀의 조그마한 날갯짓

GTI사무국 직원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다시 한번 이번 대장정의 의미를 되새긴다. 유라시아 대장정은 다차원적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영역에서 기업 영역에서 그리고 정부간 영역에서... 이번 우리 유라시아대장정 교류협력사업팀의 GTI 방문이 비록 조그마한 날갯짓이지만, 민간영역에서 정부 간 영역으로 그 날갯짓이 확산되는 조그마한 계기가 되기를 조용히 기대한다.



GTI 방문기념 촬영

07.

대륙의 물류 네트워크에 발을 내딛다



김동혁
대학생

복학한 이후로 바빠진 일상 속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피부로 느끼며, 문득 몇 달 전 드넓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했던 순간을 회상해본다. 50여 명의 단원과 부대끼며 짐도 나르고, 함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여정 속에서 배우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나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드넓은 유라시아 대륙의 일부에 발을 내디디며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 긴 것 같으면서도 짧아서 아쉬움이 남았던 대장정 활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나에게서는 베이징에서의 기억이 머릿속에 가장 깊게 박혔다. 중국에서의 여정만큼은 내가 단원들을 위해 통역지원팀의 팀장으로서, 역할 맡은 중국어 통역에 힘썼고, 그때만큼은 긴 중국 유학 생활의 보람을 여실히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하나씩 돌아본다.

베이징을 향해

출정식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채로, 우리 단원들은 긴 차량 이동으로 늦은 시간에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베이징에서는 굼직한 일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 하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징둥 물류 그룹 본사에 방문하는 것이었다. 대사관은 이전에도 공증 관련된 일로 가본 적이 있기에 다소 익숙하였지만, 징둥 그룹을 가보는 건 당연히 처음이었기에 설렘이 가득하였다. 대장정 출발 이전부터 운영진으로부터 징둥 물류 그룹에 갈 때 통역 임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서 징둥 그룹에 대한 사전 조사를 어느 정도 하였지만, 그곳으로 직접 가기 전까지는 징둥 그룹의 실체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

버스를 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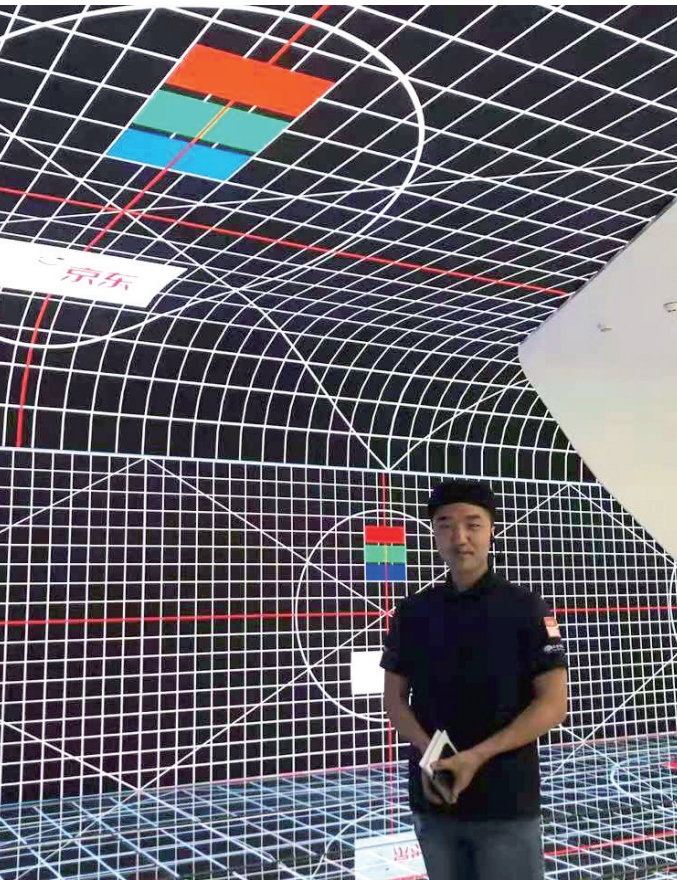
전날 베이징 호텔에 도착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징둥 물류 그룹에 가는 당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였다. 원래는 룸메이트를 포함한 다른 단원들과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고 맛있는 호텔 조식도 먹으려고 생각을 해놓았는데,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일어나자마자 부랴부랴 씻고 출발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버스를 탄 이후, 앞자리에 앉은 나는 긴장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본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징둥 직원의 본사 안내에 대한 순차 통역을 맡아서 해야 하는데, 징둥 그룹은 '4차 산업 혁명'에 입각하여 첨단 물류 네트워크를 도입한 물류 그룹인 만큼, 그 첨단과학 분야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통역하다 막혀서 본사 견학 흐름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이 되었다. 다행히 호텔과 징둥 그룹 본사와는 거리가 상당하였고,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동하면서, 다른 단원들이 버스에서 부족한 잠을 자고 있을 때, 나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음악을 들으며, 이전에 정리해놓은 첨단산업 관련된 전문용어를 최종적으로 훑어보며, 중간 중간 흐린 베이징 하늘 아래의 바깥 풍경도 보며 시간을 달랬다. '기사님,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하였다. 징둥 그룹까지 시간은 남았지만, 얼른 가서 구경하고 싶은 생각과 가서 맡게 될 임무에 대한 걱정이 교차하였다.

거대 물류 네트워크를 선도하는 기업에

버스는 어느덧 도착하였고, 편안했던 잠에서 막 깨어난 단원들은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다. 나는 계속 깨어있기는 하였지만, 단원들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버스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내렸다. 버스에서 내리니, 정면에 빨간색 글씨의 ‘京東’ 로고가 보였고, 그 뒤로는 고개를 높이 들어야만 높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큰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징동 그룹은 사실 나에겐 익숙한 곳이다. 중국에서 유학을 다니며 징동 그룹을 세운 리우 치양퉁에 관한 일화도 많이 접해 보았고, 그리고 징동 인터넷 쇼핑몰도 애용하곤 하였다. 교수님이 지정하신 교재를 살 때나, 옷을 살 때나, 운동기구 등을 살 때 징동 쇼핑몰만 이용하곤 하였다. 징동 인터넷 쇼핑몰로 주문을 하면 배송이 특히 빨랐고, 내가 택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마주쳤을 때도, 다른 쇼핑몰 직원들과는 사뭇 다른 친절을 보이곤 하였다, 이럴테면 나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며 어떻게 나에게 택배를 최대한 편하게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신경을 써주곤 하였는데, 물론 이건 그 직원 개인의 특별한 친절함과 성실함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그 징동 물류 그룹을 대표하는 직원이 그러한 친절함을 보인 기억이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줄곧 좋은 이미지가 남겨져 있었다. 단원들 모두 본사 건물 입구에서 간단한 사진 촬영을 한 후, 징동 그룹 직원들은 우리 단원들에게 본사 견학으로 ‘VIP’에 준하는 전자 스티커를 배부하였고, 그 스티커를 단원 복장의 오른쪽 팔 부분에 부착하였다.



징동그룹 영상 전시실에서

통역, 그리고 무인 시스템

본사 건물은 웅장하고 상당히 세련되어 있었다. 단원들 모두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보고 있을 때, 이어폰형 마이크를 부착한 긴장한 중국인 청년이 걸어오더니, 단원들 앞에 섰다. 그 중국인 청년은 징동에서 초빙한 본사에 대한 투박한 배경 지식을 가진 전문 소개 직원 이었고, 그 청년이 소개하는 말을 통역해야 했다. 운영진 직원분께서는 본사 직원들과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를 앞으로 부르고, 마이크를 건네받는 동시에 통역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 중국 청년과 나란히 섰는데, 내 귀로 전해진 첫마디에 바로 반응을 하지 못해, 작은 목소리로 한 번 더 되물어 보았다. 그 청년은 웃으면서 친절히 한 번 더 속삭여 주었고, 그때에서야 단원들에게 말의 뜻을 전달할 수 있었다. 단원들은 내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것을 보고 박수를 보내주었고,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무인 시스템 기반의 택배함부터 무인 마트, 그리고 무인 운송 로봇까지 보는데, 안내 말에 바로 통역을 하며 정신이 없는 틈에서도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무인 마트는 점원이 없이, 안면인식을 갖춘 기계가 입구에서 빠른 인식 절차를 거치고, 사람은 들어가서 구매를 한 후, 안면인식이나 다른 전자 결제방식으로 계산을 한 후 나오면 되는 식이었다.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언택트 마케팅(Untact marketing)’의 실사판이었다. 무인기(드론)는 크기에 따라 기능이 다양하고, 하중 또한 다양했다. 중국의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이전부터 고산지대 등에 재난이 발생하여 구호물자를 보낼 때, 사람이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는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었는데, 무인기를 고안한 덕분에 이러한 문제가 현저히 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원들이 무인 기계를 구경하고 있을 때, 잠시 시간이 나서 안내해 준 청년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고, 그 청년은 나의 마이크 신호가 간헐적으로 끊기는 것을 보고 자신이 끼고 있던 마이크를 나에게 건네주는 배려를 보였다. 작은 배려였지만, 나는 깊이 감사함을 느꼈다.

청년의 안내에 따라, 어느덧 방 전체가 화면으로 도배된 곳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신기한 나머지 단원들은 화면 앞에 다가갔다. 큰 화면에는 천장부터 어떠한 그림이 나타나더니 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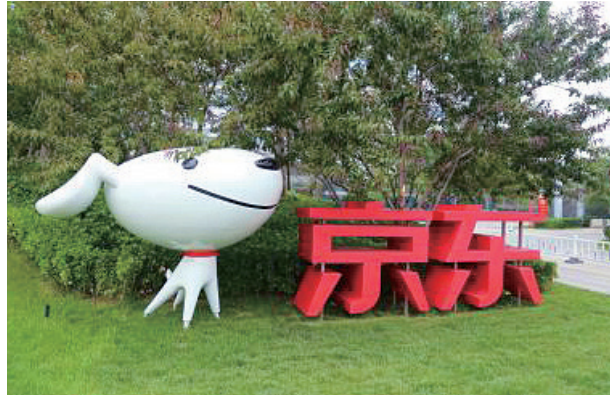
벽을 타고 이동하였고, 단원들은 그 광경을 집중하며 지켜보았다. 과학기술 발전의 위대함을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화면에는 어느덧 단원들의 모습이 나타났고, 단원들의 얼굴을 포착하고는 화면에 단원 개개인의 성별과 나이, 그리고 성격까지 가늠하여 나타냈는데, 나름 정확하고도 센스 있게 나타내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두려워졌다. “어떻게 기계가 저런 것까지 가능한 거지?” 한 단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중국의 안면인식기술이 세계 정상급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발달한 기술은 혹여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에 잠기게 하였다.



징동그룹 동시 통역

나오면서

두 시간 정도의 견학을 끝내고, 우리 단원들은 다음의 일정을 위해 이동하였다. 한 시간 동안은 직접 걸으며 무인 기체들을 보며 안내를 들었고, 다음 한 시간 정도는 위층의 회담 장소에서 다 같이 모여 앉으며, 징동 그룹의 데이터 연구원께서 세심하게 준비해주신 징동 물류 그룹 전반의 소개를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들을 수 있었다.



징동그룹 입구

두 시간 동안 통역의 마치고 나니, 힘든 느낌보다는 묘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통역을 하고 있을 때, 운영진분들과 각 팀장님 또한 단원 인솔에 신경을 쓰셨고, 카메라 촬영을 담당하시는 분들 또한 사진을 함께 촬영하실 수는 없으셨지만, 묵묵히 임무에 충실하시며 한 편에서 고생하셨다. 이러한 그림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나는 단원들의 행동 속에서 끈끈한 단합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단합이 없었다면, 우리 대장정은 베이징까지도 가기 힘들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유라시아 대장정의 베를린 피날레까지 보며 드넓은 두 대륙을 횡단하였다고 가슴 깊이 자부할 수 있는 추억을 남길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징동 물류 그룹에 간 것은 대륙의 물류 네트워크에 발을 내디딘 추억이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 상해에서 연합 마케팅 동아리인 '진포럼(Ghin Forum)'에 가입하고 활동을 하며, 중국의 물류 및 시장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그 기반이 되는 마케팅에 대해서 발표하며 배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징동 닷컴에서 견학할 수 있었던 건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중국에 대해 더욱 깊이 아는 인재로 거듭나려고 노력해야겠다.

08.

마지막 중국 일정, 베이징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김민성
대학생

베이징에서 시작된 유라시아 촬영홍보팀 마니또

“민성! 빨리와!!!”

징동 관람을 마치고 촬영홍보팀원들이 나를 다급히 부른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는 쪽지 하나를 집어 들었다. 쪽지에는 ‘문윤정’ 이름 세 글자가 적혀져 있었다. 이제부터 나의 마니또는 윤정이가 되었다. 모두 본인의 마니또가 누군지 설레어하며 그리고 서로 본인이 마니또라며 연막작전을 펼치며 다음 일정으로 향했다. 한순간도 그냥 흘러 보내버리지 않는 훈훈한 우리 팀이다.

‘식폭행’ 중국?!

나 역시 모두에게 내가 마니또라고 혼란을 주며 식사 장소에 도착하였다. 수분하에서의 만두 지옥부터 중국에서는 음식들이 항상 가득 나온다. 유라시아 단원들은 우스갯소리로 식폭행이 따로 없다며 이야기하였다. 중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강제로 다이어트를

해야 했던 단원들도 있었지만, 나는 중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잠시 지냈던 적이 있어 이미 익숙하고 너무도 그리웠던 맛이였다. 식폭행으로 단련된 단원들은 요리를 하나둘씩 격파시키고 새로 주문하였지만,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주문이 들어가지 않아 우리는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하고 다음 일정인 베이징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으로 향했다.



중국 가정식 식사

베이징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얼마 지나지 않아 베이징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착했다. 베이징 날씨는 너무 습하고 더워서 얼른 들어가고 싶었다. 대사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각자의 휴대폰을 거둔 뒤에 차례로 들어갔다. 대사관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다. 대사관 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국인분들을 보고나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대사관 관계자분들은 우리를 대사관 강당으로 안내 주셨다. 대장정 기간 동안 접할 수 없었던 스타벅스 커피와 한국 다과들이 우리를 맞이하였다. 바쁜 일정 속에서 단비 같은 존재들이었다. 모두 양손 가득 무언가를 가득 가지고 대강당으로 들어갔다. 첫 시간에는 주중 한국대사 환영 인사 말씀과 대사관 관계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 기간 일하신 분도 계셨고, 베이징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도 계셨다. 이어서 한중관계 특강이 진행되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관에서 마련해주신 기념품

중국은 9.59%씩 꾸준히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중국은 안목 면에서 세계 중 가장 취약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러시아, 인도, 대만 등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신중국 설립 후 국경전쟁이 빈번히 발발하였다. 중국에 관해 관심이 많았던지라 굉장히 흥미 있었고, 모두가 똑같이 말하던 내용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로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더욱더 신선하게 느껴졌다. 변화하는 국제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특강이 끝나고 먹었던 커피와 다과들을 주섬주섬 가지고 나오는데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며 한 명 한 명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이후 경산공원에 갔다가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에 돌아와서 선물을 뜯어보니 바로 우산이었다. 대한민국주중대사관이 적혀 있는 우산! 이 우산은 이후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던 단원들에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대장정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주중대사관에 가볼 일도 없었을 테고 대사관 관계자분들의 특강을 들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 우산은 기념품처럼 간직해서 우산의 용도로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다. 베이징 일정을 마지막으로 중국을 떠나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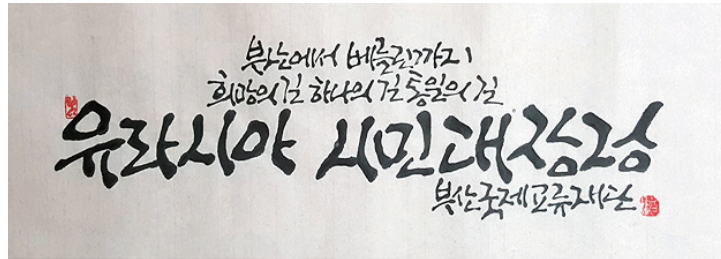
자금성 경산공원에서

0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이 만난 몽골의 슈바이처 이태준의사의 독립운동과 의료 활동



김태욱
(주)자산개발 마케팅이사



지나간 작년 여름에도 부산시 기능봉사단의 일원으로 몽골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출발한 김해공항이나 울란바토르 “칭기스 칸 국제공항 Chinggis Khaan International Airport”에는 여행에서 느끼는 가슴 설렘과 처음으로 밟아본 나라에 대한 궁금증으로 늘 그랬듯이 긴장하였지만, 우리는 단체로 방문하였기에 통관절차 등 모든 것이 안전하고 순조로웠습니다.

그때에도 일 년이 지난 지금에도 거의 같은 코스로 준비된 탐방 일정이라서 조금은 준비된 감정으로 순국선열의 기념공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지역의 순국선열의 유적지보다는 관

심과 관리로 좋은 환경에 안치되어 있다는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수많은 애국 애족으로 타국에서 활동하다 돌아가시고 묻히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야 늘 아련하고 답답한 한을 느끼게 되지만, 특히 이태준 독립투사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한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호 대암 이태준 독립투사는 부산과 가까운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나서 서울의 세브란스의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몽골에서 안창호 선생과 친분을 쌓아 3년 뒤에는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는데, 몽골의 마지막 왕 복드 칸의 주치의이면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동의의국”을 세워 의료 활동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암 이태준 의사가 진료하던 당시에는 몽골인 70%인 성병 환자의 치료에 성공하여 5년 뒤에 몽골 최고훈장 “에르데니인 오치르”를 받았지만, 개신교 선교와 의열단에 가입하여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금조달과 독립운동을 하던 중, 당시 몽골 지배자의 군인에 의해 피살되었습니다.

대암 이태준은 몽골의 폭탄기술자 마자르를 의열단에 소개하여, 김상옥 의사의 종로경찰서 의거에 그 폭탄을 사용하여 큰 공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몽골의 최고훈장을 받았던 대

이태준 독립투사 기념공원 헌화식



암 이태준을 추모하는 몽골과 함께 그의 독립운동 업적을 기리며, 그 행적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2000년 울란바토르에, 2001년 기념공원이 몽골 정부와 연세대 의료원과 총동문회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본인은 작년인 2018년 7월에 부산시의 기능봉사단원으로 몽골에 와서 기념비 참배를 하였고, 2019년 7월에는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단원으로 다시 몽골의 이태준 의사 기념공원의 헌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대연동에 있는 유엔묘지는 한국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하여 유엔군에 참전하여 돌아가신 전 세계 참전국의 용사들을 모셨는데, 지금도 세계의 참전국 국민이 매년 찾아와서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하여 유엔공원에 참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방문을 환영하였고 그들도 한국의 자유를 지키다 돌아가셨다는 위대한 뜻을 기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몽골과 한국을 위하여 싸우다 돌아가신 대암 이태준 의사의 기념공원에 매년 2월의 기념식과 “몽골과 세계 환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모임을 했으면 합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Ulaanbaatar는 “붉은 영웅”이라는 뜻처럼 대암 이태준은 의사가 되어 헌신적인 노력으로 몽골인을 치료하여 영웅이 되었고,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마져 위태로이 활동하시다 돌아가신 의사요 독립투사였습니다. 또한, 몽골은 부산에서 유라시아를 거치는 중요한 국가 중의 하나이기에 독립을 위한 노력을 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유라시아독립기념공원”을 설치하여 양국의 허락과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라시아 기념공원” 지정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유라시아 시민대장정(Eurasia Expedition)”은 열린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기에 부산은 반드시 “철의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열린 2005년 10월의 CCTST(Coordinating Council on Trans-Siberian Transportation) 시베리아 횡단철도 협의회 14차 총회에서 한국의 TKR(한반도 종단철도)와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예전 학창시절 책에서 본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녹슨 기관차의 사진은 분단의 상징이



이태준 독립투사 기념공원

었지만, 지금의 철도 연결은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고 분단의 경계선을 넘어서 평화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입니다. TKR과 TSR이 연결되면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는 함부르크까지 달릴 수 있게 됩니다. 함부르크Hamburg는 멘델스존과 브람스의 탄생지이며 독일 최대의 무역항으로 한국의 부산과 매우 흡사한 사회경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2의 도시는 부산Busan입니다. 독일의 제2의 도시는 함부르크Hamburg입니다. 부산과 함부르크의 해상과 육상의 무역과 물류 이동은 반드시 러시아를 거쳐야 하며, 이는 동북아와 유럽의 경제에 환상적인 성공을 기원할 확실한 기회입니다. TKR과 TSR의 연결은 동북아와 유럽의 경제 협력과 육상물류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긴 철도 연장 8만5천km의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부산데이(Busan-Day)”를 매년 개최하여 부산을 알려왔습니다. 한국의 부산을 알리는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부산에서 독일의 베를린까지 많은 나라와 도시를 방문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를 통하여 평화와 통일 그리고 육상물류와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세계적인 부산시민의 엄청난 대장정이 될 것입니다.

1948년 2월 10일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38선을 넘으며 「3천만 동포에 읊고(泣告-소리 없

이 말하다)함」이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음속에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라는 문장을 쓴 백범 선생의 글을 따라 우리는 하나 된 마음으로 25일의 여정으로 베를린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긴 여정의 가는 길마다 민족애와 충성심에 몸 바친 독립투사의 영혼은 그곳에서도 영웅이었습니다. 이태준 의사는 몽골국민 대부분이 가진 질환을 치료한 영웅적인 의사이면서 한민족의 독립을 위한 투사였습니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이러한 유라시아지역의 독립투사를 발굴하여 그 지역에서 활동한 공적과 함께 한민족을 위한 공로를 기념비에 적어 함께 공존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면 비로소 Governance와 Collaboration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민족이 유라시아지역에서 뿌린 씨앗을 우리 부산의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에서 키우고, 그 열매는 우리의 후손들이 통일 조국에서 열차로 유럽까지 무역하고 여행을 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선조들이 하였던 독립운동으로 되찾은 나라를 부강하게 키우기 위한 발판, 철의 실크로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OECD 국가이며, 세계 11위의 무역 국가입니다. 몽골의 울란바토르는 부산의 주요한 협력 도시이며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는 KOICA(국제협력단)를 통하여 몽골에 관광, 공공행정, 교육, 보건, 지역개발 분야에 KOICA와 개별기업의 다양한 무·유상원조사업으로 발전하는 우리의 수여국입니다.

대담 이태준 의사는 진정한 의사요 한민족의 독립을 위한 의사였습니다. 그분과 함께 양국의 발전에 헌신하는 분들을 함께 모시는 유라시아 독립공원은 양국에서 함께 유지하고 이어가는 기념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몽골과 함께 하나의 길을 만들어 몽골과 한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희망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길을 위한 울란바토르와 부산은 환경을 생각하여 몽골 식수사업을 지속해야 하며, 양국의 교역을 위한 철도이동 협력을 함께 연구하고 양국을 위한 철도 물류수송 사업은 실현되어야 합니다.

부산의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을 통한 부산-함부르크의 길은 반드시 열려야 할 통일의 길이요 하나의 길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10. 아니 내가 이 먼 곳에서 부산을 대표한다고?



김민석
대학생

부산을 떠나 온지도 벌써 1주일

나는 사실 출발 전부터 7월 24일인 오늘이 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다. 유라시아 여정을 떠나기 전 나를 포함한 전 단원들은 각자의 팀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도시별로 진행할 행사 및 여정의 준비를 했는데, 나는 내가 속한 촬영홍보팀의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큰 역할을 하나 담당하게 되었다. 바로 오늘 7월 24일 부산 & 울란바토르 친선의 밤 행사 때 부산을 대표하여 부산을 소개하는 발표이다.

“예...? 몽골이요?”

“몽골 대학생 친구들에게 부산을 소개한다 생각하고 발표를 준비해주세요.”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들이니까 큰 부담 안 느껴도 돼요”

친선의 밤 행사에 대해 주임님께서 첫 운을 띄우셨다. ‘나와 또래인 몽골 대학생들이라고?’ 기분이 뭔가 오묘했다.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수없이 봤던 미국이나 서양 친구들의 대학교 생활은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 또한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아시아권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대학생들은 내가 다니는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이미 친한 친구들이 여럿 있었다. 특히나 이번 학기는 그들과 어울리는 경우가 더욱 잦아졌기에 그들의 대학 생활이 어떠한지는 접하고 느낄 기회가 많았다. 하지만 몽골...? 몽골 출신인 친구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음...’

오묘한 감정은 이윽고 호기심이 되어 ‘과연 저들은 어떤 대학 생활을 보낼까?’, ‘그들의 20대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한국 문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혹시 반감을 가지고 있진 않을까?’ 구체적인 여러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 또래의 대학생들이 가장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 소위 말하는 ‘먹히는 발표 방식’이 몽골의 친구들에게도 즐거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 즐거움을 내가 주고 싶다는 생각이 연이어 들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발표 제가 할게요!” 회의하면서 나의 활발한 모습 때문이었을까 팀 내에서 놀라는 눈치는 아니었다. 발표한다고 하니 사실 내가 책임자 같았다고, 발표 자료 만드는 것을 잘 도와주겠다는 분위기로 접어들었다.

아이고 머리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몽골 친구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었기에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보았다. 가령 처음엔 ‘부산’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두 번째로는 ‘한국의 대학생’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회의를 진행했다. 생각보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외국에서는 낯설거나 생소한 문화가 많았고, 설명이 길어지거나 난해한 부분들에 대해선 다시 한번 손길이 필요했다.

하나의 발표자료, 다섯 개의 스토리텔링

“네? 몽골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높으신 분들도 참석 하신다고요?”

“세상에…”

베이징에서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불과 2일 전인 22일이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다고 하셨다. 하지만 걱정이 들었다. 사실 또래인 대학생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언어유희나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기 위한 농담을



김민석 대원의 부산 소개 발표

섞어 발표를 준비했는데, 어르신들이 보시기엔 자칫 장난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르신들께서 거리낌 없이 내 발표를 함께 잘 즐겨주신다고 하신다고 할지라도, 이대로라면 발표를 하는 내내 계속 신경이 쓰일 것 같았다.

‘처음부터 다시’ 항상 발표를 준비하면 처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처음이 술술 잘 풀리면 중간과 끝부분은 탄력을 받아서 잘 풀어갈 수 있었던 과거의 경험을 발판 삼아 생각을 해보았다.

‘잘했다고 소문날만한 시작은 뭘까’ 몇 날 며칠을 단지 이걸로 고민했지만 보족한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발표를 풀어갈 방식을 5개가량이나 준비를 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마음을 확 사로잡는 방식은 없었다. 24일 당일 아침 세수하다 문득 머릿속에 느낌표가 떠올랐다. 그 순간 나는 아르키메데스였다.

D - Day

세수하다 문득 떠오른 발표를 풀어갈 방식이 마음에 무척 들어서인지 아침부터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발표의 도입 부분에 청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침부터 만나는 단원들에게 호응과 “켜져라 얍”이라는 단어를 신호에 맞게 잘 외쳐달라고 부탁했다. 물음표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단원들이 많았지만 “이게 무엇인지 지금 제가 알려드리

면 재미가 없을 것”이라는 말에 다들 열심히 해주겠다며 나를 응원해주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얼른 24일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오늘은 친선의 밤 행사가 기다려졌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재미있게 즐겨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부산 & 울란바토르 친선의 밤



부산-울란바토르 친선의 밤 몽골 전통공연

책이나 TV 속에서만 보았던 게르에서 두 나라의 두 도시가 교류 행사를 한다니. 가슴이 벅차고 기분이 묘했다. 게르에 들어오자마자 발표 준비부터 시작했다. PPT 슬라이드를 넘길 포인터를 집에서 들고 왔기에 작동이 잘되는지 확인도 해보고, 선물로 줄 상품들도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두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발표내용인 한국에 대해서 특히나 부산에 대해서는 나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이 아는 부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한 마디 한 마디 다시금 상기시켜보았다. 말이 꼬이거나 순서가 바뀔 때 대처할 임기응변까지 생각하고 발표 준비를 끝마쳤다.

친선의 밤 행사는 당초 계획되었던 순서로 진행이 되었고 각국 공연단의 공연으로 분위

기는 점점 더 후끈하게 달아오르게 되었다. 두 나라 사이에 자국의 문화를 교류한다는 것이 신기했고 또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즐길 수 있다는 것에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말이 새삼 실감이 되었다.

코스로 나오는 음식들도 정말 맛있었다. 하지만 하나 놀라웠던 점은 몽골이랑은 고려 시대부터 가까웠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나라였으니, 생소한 음식이 몇 없을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몽골에 와서 먹게 된 그 모든 음식은 하나같이 다 처음 접해 보는 것들이었다.

한국어를 잘하는 몽골 대학생 친구들이 많아서 의사소통하는 데에 큰 불편함이 없었고, 그들의 한국에 관한 관심 또한 높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내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고 떨지 않으려 애를 쓰며 앞으로 나갔다.

발표 도입 부분을 진행하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다들 호응을 잘해주셔서 떨림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이는 발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다만 간단한 몽골어 인사 정도를 미리 준비했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발표를 하는 도중에 문득 들었다. 떨리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전달했고, 즐거워하는 몽골 대학생들부터 유라시아 단원들까지 한 명 한 명 모두 다 내 두 눈에 담은 채 발표를 잘 끝마칠 수 있었다.

내 차례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행사지원팀에서 준비해온 여러 팀 게임들을 진행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게임을 즐기는 모습과 한국에서 준비해온 상품들에 기뻐하는 몽골 대학생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시간이었다.



부산-울란바토르 친선의 밤 네트워킹 시간

11.

울란바토르에서의 짧은 밤



오세열
경찰/경위

울란바토르에서의 밤은 짧았다. 부산-울란바토르 친선의 밤을 마친 후 숙소를 배정받았다. 주위 사람들에게 푸른 초원 위의 “게르”에 대한 이야기만 듣던 나는 즉시 숙소로 향했다. 숙소로 들어가니 “게르” 안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넓었다. 침대가 3개 있고 중간에 있는 난로 옆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오늘의 룸메이트는 엄동현 홍보팀장님과 부산시청에서 오신 김효경 팀장님이었다. 여행이라는 것이 그 자체도 좋지만 낯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며 알아가는 것 또한 다른 즐거움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두 분은 모두 몸이 좋지 않아 먼저 주무신다고 이야기하신다.

태어나서 몽고에서의 첫 번째 밤을 그냥 보낼 수 없었던 나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일까? 밖에서는 홍보팀에서 몽고에서의 밤을 알리기 위하여 열심히 촬영 중이다. 학생들과 어울려 추억의 사진들을 찍은 뒤 게르 주위를 배회하다가 안영철 센터장님과 이창희 전문가님을 만났다. 몽고에서



몽골 게르의 밤

의 밤이 아쉬워서일까? 아니면 술이 모자라서일까? 자연스럽게 주위에 있는 벤치에 모여 보드카와 한국에서 가져간 소주를 마시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발전 방향과 대원들을 위해 전문가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토론하였다.

밖은 추웠다. 시간은 자정을 지나고 있었고 아쉬웠지만 태어나서 처음 가지는 몽고에서의 첫날밤을 그렇게 마무리 지어야 했다.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러시아 울란우데로

새벽 4시! 집합시간에 맞춰 게르에서 짐을 챙겨 집합장소로 갔다. 오늘은 유라시아 여행 중 가장 힘든 하루이다.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러시아 울란우데까지 12시간 이상 버스를 타야 한다. 그리고 저녁에는 울란우데에서 바이칸 호수가 있는 이르쿠츠크까지 가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야 한다. 대원들과 전문가팀 모두 공용 짐을 버스에 나누어 싣고 인원 점검 후 2대의 버스에 각자 나누어 탔다.

유라시아 여행에 완전히 익숙해서일까? 버스 출발 전 인원수를 확인하고 내가 앉은 뒷 좌석에서 앞을 보니 대원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 나와 같이 몽고에서의 첫날밤이 아쉬워

대원들도 저녁 늦게까지 우정의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1시간 정도 흘렀을까? 버스는 도로 옆 휴게소에서 멈췄다. 나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돌아보았다. 강렬한 아침 햇살과 함께 끝이 없는 선명한 푸른 초원 그 초원을 가르는 1차선 도로 여기가 정말 몽고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홍보팀의 김정원 대원을 찾았다. 아니나 다를까 멋진 사진을 한 장이라도 더 담기 위해 셔터를 누르고 있다. 영원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1장의 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

국경 통과

버스는 몽고 러시아 사이 국경을 향해 계속 달렸다. 버스 주위 풍경은 출발할 때와 똑같은 광활한 푸른 초원이었다. 가끔 수십 마리의 말을 모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푸른 초원 위에 주인 없는 말들이 많이 방목되어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방목된 말들 모두 주인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12시 30분쯤 몽고 국경 지역에 도착하니 이동식 점심이 배달되었다. 버스에서 점심을 먹고 잠시 기다리니 몽고 출국 수속은 쉽게 끝낼 수 있었다. 버스는 잠시 이동 후 다시 멈췄다.

이제는 러시아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버스로 올라와서 인원수를 점검하고 여권을 검사하였다. 그 뒤 가이드는 버스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린 후 엑스레이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한다. 대원들은 출국 전 국경 통과 시 짐 검사를 다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자연스럽게 버스 2대의 모든 짐을 내린 뒤 엑스레이 검사를 마치고 같은 자리에 옮겨 실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몽고와 러시아 국경을 통과할 때는 사전에 허가받은 버스가 아니면 통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러시아 국경 카흐타에서 기다리는 동안 몽고 가이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었다.

울란우데에서

14시경 카흐타에서 출발하여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기 위해 울란우데로 향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9,288Km를 꼬박 7일간 달린다. 그중

87개의 도시에서 정차하는데 울란우데역이 그중 한 곳이다. 울란우데를 향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도로 양옆의 초원은 줄어들고 평지들이 많이 보였다. 버스는 약 3시간을 더 달린 뒤 울란우데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 장소인 “KOREAN HOUSE”에 멈췄다.

오래간만에 맛보는 불고기와 김치는 아침부터의 피곤함을 눈 녹듯이 씻어 주었다. 울란우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관광지인 시청 옆 레닌광장에서 아름다운 분수대와 레닌 동상과 추억에 남을 포토 타임을 가진 뒤 우리는 울란우데 역에 도착했다. 20시 30분에 버스에서 내렸다. 새벽 4시에 출발한 우리는 16시간 이상 버스를 탔다. 가이드와 작별인사를 나누면서 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버스 기사와 가이드 4명은 우리가 쉬지 않고 달려온 길을 지금부터 다시 울란바토르로 돌아가야 한단다.

우리는 미지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희망을 품고 가지만 그들은 현실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잠시 머릿속이 멍해졌지만, 마음속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가족 옆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였다.

우리는 22시 울란우데 역에서 출발하여 다음 날 6시 30분에 바이칼 호수가 있는 이르쿠츠크 역에 도착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야 했다. 한국과 시차는 울란우데가 1시간이 이르쿠츠크가 2시간이 늦다. 하지만 천천히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차는 이제 대원들에게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울란우데에서는 22시가 되어도 어둡지 않았다.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대원들은 홍보팀에서는 사진 촬영에 분주하다. 대원들도 울란우데 역사에서 추억에 남길 사진 찍기로 삼삼오오 분주히 시간을 보냈다.



레닌광장에서

12.

바이칼호수를 향해



홍현민
대학생

2019.07.24 밤

이제 다시 러시아로 들어가기 위해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해서 다들 일찍 잘 줄 알았다. 근데 잠은 무슨. 게르가 별이 유명하대서 피곤할 텐데 그거 볼 거라고 잠도 안 자고 추운데 밖에서 덜덜 떨며 별 없나 하며 서성인다. 아쉽게도 그날 별이 없었다. 다들 실망한 눈빛으로 내일의 여정을 위해 잠자리로 하나둘 들어간다.

2019.07.25

새벽 4시다. 피곤해서 제시간에 다 못 나올 거로 생각했지만 다들 제시간에 나왔다. 아무래도 단체 생활인 만큼 더더욱 늦지 않으려고 신경 쓴 것 같다. 인원 체크도 하고 짐도 옮기고 이제 몽골의 광활한 땅과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버스에 탄다. 4~5시간 정도 달렸나 오전 9시쯤이었을 것이다. 화장실을 갈 첫 기회였다. 나는 게르에서 새벽 4시 전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 잠을 자지 않았다. 그 때

문인지 화장실이 가고 싶었음에도 햇살을 마주하며 다시 버스에서 잠이 들었다. 문제의 시발점이었다. 얼마 더 가서 이제 몽골과 러시아의 경계에 도달했다.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지만 일단 갈 수 없어 참았다. 잠시 후 국경 통과를 위해 짐과 인원을 검사하는 동안 옆에 화장실이 있었다. 기회였다. 화장실 문을 열었다. 어머니? 사람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니었다. 냄새가 완전... 이하 생략한다. 다음 절차가 마지막이었다. 여긴 이상하게 수속이 빨랐기 때문에 참은 것도 있다. 진짜 마지막 10분만 참자는 생각으로 정말 조금만 더 견뎠다. ‘여권 검사만 하면!!!’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은 알 거다. 원래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는 걸. 다들 날 배려해줘서 수속 두 번째 순서로 갔다. 첫 번째 친구 여권검사를 시작한다. 뭔가 이상하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일단 그 친구는 보류하고 검사관들이 나를 부른다. 내 여권을 받아 검사한다. 혹시나 내 것도 했는데 역시나 내 것도였다.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화장실을 못 간다. 심각하다. 바로 저 코 앞에 내려가면 화장실인데. 이것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제는 몸이 베베 꼬이기 시작했다. 얼굴도 누렇게 되는 것 같았다. 대원들이 나를 보고 웃는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웃기다. 후각과 시각을 포기하고 아까 옆에 있던 더러운 화장실을 갔어야 했나하는 생각이 든다.

20분 후 문제가 해결되고 드디어 화장실을 간다. 기분 최고대!

사실 수속 당시 내 앞에 친구가 우수리스크에서 하얼빈으로 넘어올 때도 여권검사에서 지체되었던 적이 있다. 나는 그 친구 여권이 무슨 문제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그 전에 다른 서류에 작성했던 날짜랑 여권에 찍힌 날짜가 맞지 않아 살짝 지체되었다고 한다. 내가 수속 당시 이상하게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국경 통과가 빨랐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다. 아마 대사관에서 도움을 안 주셨더라면 나는 아마 아주 힘들어졌을 것 같다. 그렇게 나에게 강렬했던 수속 절차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간다.

울란우테에서 밤 10시에 이르쿠츠크로 향하는 열차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울란우테에서 조금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울란우테 광장에 분수가 크게 있었다. 분수 사이로 강렬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나를 맞이한다. 분수 옆에 아이들이 뛰어논다. 한 아기가 유

모차에서 비눗방울을 분다. 비눗방울 안으로 햇살이 보인다. 비눗방울이 터진다. 터지는 비눗방울에 맞춰 뛰어놀던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다.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온다. 그 순간 너무 행복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좋은 의미로 머릿속이 새하얗졌다.

게르에서부터 울란우데역까지 버스만 못해도 12시간 정도 탔다. 쉽지 않았다.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러 간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베리아 횡단 열차다. 그전까지는 열차는 중국 열차였다. 설렘을 가득 안고 열차를 탄다. 하지만 열차를 탄다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전쟁이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특히 열차와 땅의 높이 차이로 인해 무거운 짐을 높은 위치까지 올려야 하고, 시간에 맞춰 모든 짐을 넣어야 한다. 그 과정을 시작하기 전도 만만치 않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내려오고를 한다. 공용 짐도 있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한다. 운동이 절로 된다.

그렇게 쉽지 않은 와중에도 위에서 열차가 있는 곳을 내려다보니 계단 밑으로 열차가 웅장하게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하다. 철로도 몇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다. 그때 당시에 밤이라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난 그저 이곳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지나가면서 물류 활동을 하는 현장을 온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다. 후에 다른 구간에서 봤을 때 그렇게 긴 열차가 그렇게 많은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게 너무 멋졌다. 나에겐 영화의 한 장면이었던 기억이 있다. 아무튼, 이번 열차는 밤 열차다. 중국 열차보다는 시설이 좋지 않았지만, 아늑하고 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기분 탓인가. 다음날 바이칼호수를 간다는 마음에 들떠 어수선한 열차에서 잠을 청한다.

2019.07.26

새벽 6시다. 30분 뒤에 내려야 하기 때문에 다들 분주하다. 열차는 찬물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씻는다. 안 씻으면 냄새날 것 같아서. 진현이 형이 챙겨온 바가지를 빌린다. 화장실에 간다. 출다. 미치겠다. 찬물에 샤워 너무 오랜만인데. 빠르게 씻고 빠르게 정리하고 빠르게 짐을 챙기고 공용 짐도 챙긴다. 열차에서 내린다. 내릴 때도 여전히 턱이 높아서 쉽지 않다. 내려서 얼굴을 보니 다들 게르에서도 제대로 못 자고 열차에서도 일찍 일어나서 피곤해 보인다. 근데 그게 중요한가. 아침, 점심을 좋은 걸 먹는다니 다들 좋다고 한다.

점심 먹은 곳 옆에 바이칼호수가 있다. 근데 이건 진짜 바이칼호수의 느낌이 아니라 마치 해변의 느낌이었다. 숙소로 와서 짐 풀고 그동안 못했던 빨래를 하고 바이칼호수로 향한다. 이진 진짜다. 와 호수에 파도가 친다. 지평선이 보인다. 끝이 없다. 꿈같다. 내려가서 물에 발을 적셨다. 너무 차갑다. 발이 얼 것 같았다. 발이 다 보인다. 너무 투명하다. 바이칼호수 속 내 발의 모양은 내 발 모양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보인다. 오히려 더 확대돼서 보이는 기분이다. 여기까지 힘들 게 온 것에 대한 보상인 것 같았다. 자연은 위대하다. 앞으로의 여정이 더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바이칼 호수







2

러시아

“유라시아의 중심”에서
외치다

13.

러시아 극동에서 자매 도시를 만나다



김상자
시각디자이너

러시아에 대한 느낌은 딱딱함이다. 차가워서 다가가기는 더 어려울 것 같은 곳이었다. 과거 사회주의적 관습이 있을 것 같은 러시아와 우리는 왠지 먼 사이일 것 같았다. 부산 데이 준비는 두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음식 문화 놀이를 나누는 자리여야 했다. 준비하면서 내내 러시아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관심거리라도 될까? 이 음식이, 이 놀이가 그들에게 같이 느끼고 즐기고 싶은 그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마음 한구석에 두고 행사 준비는 계속되었다.

200명 대상, 2시간 동안, 부산 데이는 올림픽 공원에서 농구 시합과 함께 진행될 행사였다. 기획안 작성부터 선물 수량, 음식 및 인분까지 세세히 준비하였다. 두 달 동안 밤을 새우고 준비물과 진행 방식들을 팀원과 모두 맞추어 보았다. 출발 전부터 행사를 위해 온 힘을 다 쏟았다. 행사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끝나야 하는 데 러시아인들의 반응을 알 길이 없던 나는 파리만 날리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나의 걱정은 기우였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민들은 우리 대장정 팀에서 준비한 부산 데이에 열광적으로 반응해주었고 긴 줄까지 서가며 관심을 보여 주었다. 그 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준비한 행사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즐기는 현지인들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고 뿌듯하기까지 했다.

200명이 아니라 400명은 왔었나 보다. 떡볶이 그리고 식혜, 호떡을 사랑해줬고 너무 한국적일 것 같은 비석치기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한글로 써준 러시아 이름을 소중히 간직해서 갖고 기념으로 나누어주는 태권도 띠는 모두 동이 났다. 우리 K-POP 댄스팀은 남녀노소 불문 일약 인기 스타가 되었다. 러시아인은 아름다운 한복에 매료되었고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 했다.

한국 음식 체험





한국 전통놀이 체험



한국 서예 체험



태권도 체험



유라시아 대장정 공연팀의 K-POP 댄스공연



한복 기념 촬영 이벤트



산-블라디보스토크 농구 친선 교류



블라디보스토크 시청 직원 안나

그렇게 행사가 잘되기까지 우리만의 노력만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먼저 통역해주는 통역관 안나의 도움이 있었다. 그녀의 한국어 실력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상당한 실력을 보유하고 이었다. 행사의 자잘한 문제도 그녀의 도움을 빌렸다. 그녀 역시 자기 일인 듯 발 벗고 나서 주었다. 외국인을 많이 보는 한 사람으로서 그녀의 태도는 내가 생각했던 러시아인이 아닌 보통 한국 친구 같았다.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감사하게도 행사가 마칠 때까지 끝까지 남아주었다.

그리고 행사 진행 스태프 분들이 있었다. 떡볶이 끓일 냄비가 없다 하니 냄비를 갖다 주고, 물 10L가 필요하다니 가져다주었다.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말이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이 행사를 잘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있었다. 그건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러시아인도 똑심이란 게 있나 보다 싶었다.

이렇게 러시아에서 첫 하루를 보내고 나는 러시아의 극동 블라디보스토크가 부산의 자매 도시인 것이 와 닿았고 이 관계가 남북평화 시대에 경제 협력과 함께 더 깊어지길 바랐다.

14.

노문과 학생이 겪은 부산 데이



문윤정
대학생

나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 공부하기를 좋아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외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단지 멋있어 보였다고 할까. 내가 러시아어를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남들이 하지 않는 독특한 언어, 한국 학원에서 접하기 어려운 언어를 대학에서 배워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선택하게 된 것이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러시아어지만 점점 그 나라와의 유대감이 은연중에 싹틔고, 그렇게 러시아 교환학생도 다녀왔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한계가 왔다. 러시아 현지에서만큼 실력이 늘지 않고, 쌓아놓은 실력이 무너지지 않게 노력하기에 벅찼다. 졸업이 다가오면서 나는 이 시기 대학생들이 하는 고민에 빠졌다.

‘내 전공을 살려야 할까. 아니면 빨리 러시아어를 놓고, 취업 준비에 몰입할까. 나는 러시아어를 포기할 수 있을까?’

좋아하는 공부를 놓기는 싫지만,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밀고 나가도 되는지, 내가 이 전공에 재능이 있기는 한 건지 나에게 대한 의구심마저 들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판단이 흐려지는 듯했다.

‘그래, 내 삶에는 환기가 필요해, 러시아를 다시 가보자. 그 후 결정해도 늦지 않아.’

그게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된 이유다.

출정식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부산데이 전 날

출정식을 마치고 블라디보스토크으로 가기 전, 짧게 가는 기차에서 달걀과 사이다를 받았다. 너무 한국적인 열차 간식이라 웬지 모르게 웃음이 났다. 내가 정말 블라디보스토크으로 가기는 하는 걸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러시아어를 전공했음에도 블라디보스토크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미지의 장소였다. 또 부산과 같은 항만도시라 어떤 점이 비슷할지 기대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 출발 전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로 빠르게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오전 일정 후 호텔에 도착해 부산 데이에서 맡은 역할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짧게나마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한복을 입고 같이 사진을 찍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호텔에서 같이 한복을 입기로 한 행사 팀의 현민이와 처음으로 말을 텃다. 아직 어색한 사이여서 존댓말로 한복을 입고 어떻게 홍보를 할지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생각하면 오글거리지만 재밌는 추억 중 하나다. 이때 현민이가 군대에서 받는 초록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이분은 군대를 갔다 온 분이구나, 그럼 나보다 나이가 많겠지?’라고 어림짐작했었다. 후에 행사장에서 일하다가 현민이를 오빠라고 불렀었는데(사실은 나보다 동생이었다!), 이젠 현민이에게 대장정이 끝날 때까지 놀림 받았고, 그 애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아직도 미안함으로 남아있다.



부산 데이 행사장의 수 많은 인파

본격 부산데이 행사 당일

행사 당일, 우리는 행사장으로 향했다. 바닷길을 따라 쪽 걷다 보니 비몽사몽 했던 정신도 깨고, 비로소 블라디보스토크에 온 것이 실감이 났다. 일자로 쪽 뻗은 길을 멍하니 걷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러시아어로 얘기하는 게 들린다. 내가 진짜 다시 러시아에 왔구나, 감회가 새로웠다. 감상에 젖은 채 걷다 행사장에 도착했다. 야외에 파란 천막의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고 앞쪽엔 시원한 분수가 자리매김했다. 부스 뒤편에는 탁 트인 바다가 보였는데, 이 세 가지는 나를 들뜨게 하기 충분했다. 부스 쪽에서는 이미 행사지원팀이 한국에서부터 준비한 소품들을 꺼내고 정리하는 등 준비가 한창이었다. 한복을 입기로 한 우리 세 명(소은 언니, 현민, 나) 역시 캐리어를 끌고 바삐 움직였다.

부스에서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복을 갈아입을 곳이 여의치 않아 무용단원들의 부스를 잠시 빌려 옷을 갈아입기로 했다. 당시 날씨가 제법 더웠는데 한복을 여러 겹 입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여러 한복이 섞여 있어 저고리와 치마를 어울리게 입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제대로 된 아름다운 한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는 무용단원들의 눈썰미로 재빠르게 해결되었다.

“언니, 이 저고리에는 이 치마가 잘 어울릴 거 같아요!”

“웃고름 매고 실 핀으로 고정해야 잘 안 풀릴 거예요, 저희가 빌려드릴게요.”

아직 이름도 제대로 몰랐던 무용단원 친구들은 언니라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와 주었다.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옷을 고르며 말하는데, 참새들이 짹짹거리는 것 마냥 귀여웠다. 마냥 귀엽던 이 친구들이 후에 K-POP 댄스 무대를 선보였을 때,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추는 모습이 색달랐는데,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멋있다고 느껴졌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복 알리기에 나섰다. 원래는 한복을 입혀주는 체험을 진행하려 했으나 부스의 자리도 마땅치 않았기에 그냥 같이 사진 찍는 거로 변경하였다. 판넬을 들고선 사람들을 모으려 했는데 은근히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잘 못 거는 내가 (사실 식당에서 '저기요'도 잘 못한다) 러시아인에게 말을 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런 고민은 사치, 나는 한국을 알리는 것에 도움이 되려고 온 단원임을 상기시켰다. 용기를 내자.

“Сфотографируйте вместе! Это бесплатно”

“함께 사진 찍어요! 무료랍니다”

몇 번 외치니까 같이 한복을 입은 소은 언니와 현민이도 포토, 포토를 외쳤다. 서서히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더니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한 번 사진을 찍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가졌고 어느새 계속 사진을 찍게 되었다. 어린아이나 아주머니들 할 것 없이 밝은 표정으로 자세를 잡았고, 우리 역시 짧은 러시아어로 한 분 한 분께 인사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ивет! … Спасибо!!”

안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따금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하는 대답이 들리곤 했다. 타국에서 듣는 우리말은 익숙하면서도 생경했다. 순수하게 축제를 즐겨주고 한국을 사랑해주는 그분들께 고마운 감정이 들었다.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한창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블라디보스토크로 관광 온 한국인들을 마주쳤다. 한 번은 내 또래의 친구들이었고, 한 번은 어르신들이었다. 나는 특히 어르신들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젊은 친구들이 한복 입으니 다들 곱네. 한국 알리려고 부산에서 온 거야? 기특하다.”

‘기특하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보기 좋다며 응원 해주시는 그 모습에 우리가 타지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대장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힘을 냈다.

한복 입은 현민, 소은 언니, 나



부산데이 마무리, 함께 한 대원들

나에게 힘이 되어준 건 밝은 표정의 사진을 함께 찍은 여러 사람도 있었지만, 단원들 역시 많은 힘이 되어주었다. 아직 어색한 사이였음에도 사람들이 중간중간 오지 않을 때 같이 홍보해주기도 하였고, 음식 부스에서 운영한 여분의 떡볶이를 챙겨주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였음에도 다들 이 행사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 서로 배려해주며 챙겨준 그 모습이 감동적이었고, 아직도 생생하다.

행사가 끝난 후 뒷정리는 십시일반, 일사천리로 마무리되었다. 이미 해가 진 상태에서 짧게나마 블라디보스토크의 거리를 느끼면서 우리는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호텔로 돌아갔다. 호텔로 돌아가 대장정의 공식 해외 첫 일정을 마무리하며, 일기를 썼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돌아쳐보는데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다 아직 남은 여정에 대한 걱정이 솟구쳤다.

‘이제 하루 지났는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겠지? 24박 25일 함께할 대원들에게 민폐 되지 말아야겠다.’

‘역시 시작이 어렵지, 막상 하면 되는구나. 내 짧은 러시아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다.’

몸은 무척이나 고되었지만, 행사를 잘 마무리했다는 뿌듯함이 올라왔다. 여러 가지 생각이 뒤섞이면서 앞으로의 여정이 걱정되고 기대되는 밤이었다. 그리고는 ‘꿀잠’을 잤다.

15.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수리스크로 향하다



김보은
간호사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의 우리 단원들은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참가를 위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동했던 루트를 따라 베를린까지 간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색해보게 된 마라토너 손기정 그리고 상단에 떠오르는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기념사진.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기테이 손’이라는 이름으로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손기정 선수가 ‘2시간 29분 19초 2’의 신기록을 세우며 결승점을 통과했다. 월계관을 쓰고 단상에 올라 금메달을 거머쥐었음에도 고개를 푹 떨군 손기정 선수는 서글퍼 보였다.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은 부산발 실크로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유라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 도시로써 부산을 홍보하기 위함도 있지만, 1936년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출전을 위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베를린으로 향한 루트를 태극기와 우리의 이름을 한쪽 가슴에 달고 다시

한번 이어가며 연해주 독립운동의 역사도 함께 기리는 또 다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블라디보스토크 일정을 성공적으로 끝낸 우리 단원들은 다음 일정을 향해 고려인들 따라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수리스크로 이동했다.

비포장도로를 달려 도착한 고려인 문화센터

19세기 조선 왕조에 세도정치가 이루어지면서 매관매직으로 수령 직에 오른 탐관오리들이 조세 제도의 세 가지인 전정, 균정, 환곡을 악용하면서 일어난 폐단의 역사 속에서, 각종 질병이나 기근, 수해 등의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조선 백성들의 생활은 직격탄을 맞았다. 1864년 한겨울 밤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우수리강 유역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1865년(고종 2)에 60가구, 그다음 해에 100여 가구 등 점차 늘어나 1869년에는 4,500여 명에 달하는 한인이 이주하였다. 이후로도 이주는 계속되었으며 대부분이 농업 이민이었으나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망명 이민도 있었다고 한다.

1937년, 스탈린 명령에 따라 20만 조선인 강제 이주가 결정되었으며, 곧바로 총칼을 앞세워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몰아냈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아침에 죽음의 길을 떠나야 했다. 강제 이주의 이유로는 몇 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고려인 역사관은 강제 이주의 이유를 '스탈린의 강력한 중앙집권 야욕'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한인 민족주의자들이 숙청되기도 했고, 중앙아시아로 이동하는 40여 일간의 시간 동안 굶주림과 공포뿐인 시베리아 횡단 열차 안에서 많이 사람들이 죽어 나갔으며,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이어갔다고 한다. 소련이 해체된 후인 1993년 4월, 러시아 의회가 강제 이주의 과오를 시인하면서 고려인 명예 회복 법안을 채택했고, 한인들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되찾으며 고려인들은 연해주로 재이주를 시작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두세 시간가량 비포장도로를 달려 도착한 우수리스크의 고려인 문화센터. 고려인 문화센터는 러시아어와 함께 한글로 쓰인 '환영합니다'의 문구로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비록 고려인 문화센터는 우리 아픈 역사의 산물이지만 우수리스크에서 마주하는 반가운 한글은 이곳이 오롯이 우리 고려인들의 삶의 터전이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곳 우수리스크의 고려인 문화센터는 2009년에 건립되었으며 고려인의 문화적 유산을 부활시키고, 전통 무용 개발과 한국의 무용 예술을 연구하고 공연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우수리스크시의 추석 행사가 4년 동안 고려인 문화센터에서 진행될 만큼 고려인의 문화행사를 우수리스크시의 전체 행사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우수리스크 고려인 문화센터는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북한의 안무가 최영희를 초대하였으며, 그는 고려인 무용단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아리랑 무용단은 우수리스크의 자랑으로 꼽히며 1세대 무용단의 자녀로 구성된 현재의 2세대 무용단원들은 우리 후손에게 전통을 가르치기 위해 일하고 가능한 한국의 춤을 유지하고 보여 주려 노력 중이며 전통 무용은 민족의 삶을 반영하고 이 무용에 고려인 전문 문화의 색조가 집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고려인 문화센터 내부에는 1800년대 고려인이 처음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연해주와 만주가 독립군의 근거지이자 곧 독립운동 역사임을 상세히 보여 주었고 고려인들이 이주 시에 가져온 물건들이 함께 전시돼 있었다. 우리 대원들은 조용히 가이드님을 따르며 숙연하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고려인의 강제 이주는 민족적 차원의 비극적인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라시아 정책과 관련되어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고려인문화센터 소개글

연해주 독립운동의 역사 “최재형 선생”

고려인 문화센터에 이어 최재형 선생 기념관에 도착하여 우리 대원들은 기념관 앞에서 잠시 대기했다.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첫날의 우중충했던 날씨와 달리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의 우수리스크 햇빛은 여름인 걸 말해주듯 뜨거웠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든 새빨강

고 조그마한 '최재형 선생 기념관'의 입장권. 전시회를 보거나 기념관을 방문할 때 그 순간의 기분과 분위기를 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항상 입장권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다. 어느 입장권과 다르게 최재형 선생 기념관의 새빨간 입장권을 받아드는 순간 찰나의 위압감과 함께 '최재형 선생'의 이름 석 자가 뇌리에 깊게 박혔다. 최재형 선생은 독립운동의 중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오랜 시간 우리가 모르고 있던 훌륭한 분을 오래 기억하고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일까. 동시에 오늘날 내가 한국인으로서는 이 기념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준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서린 독립운동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입장권을 받아든 순간의 강렬한 인상 덕분에 아무렇게나 가방에 들어가 하루를 정리하며 쓰레기통으로 버려졌던 다른 입장권들과는 달리 조금도 구기고 싶지 않은 마음에 소중히 지갑 속으로 입장권을 넣었던 것 같다.

유라시아 대장정 출발하기 전 공부 했던 최재형 선생의 업적을 최재형 선생 기념관을 방문하여 다시 한번 기렸다. 최재형 선생은 일찍이 부모를 따라 러시아로 이주하였으며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어린 나이에 가출을 결심했다고 한다. 지쳐 쓰러진 어린 최재형은 한 러시아 선장의 도움으로 러시아어를 배우고 고등교육까지 받으며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고 후에 군역 도로 건설에 통역가로서 한인들의 입장을 러시아 관리들에게 대변하고 러시아 관리의 돈독한 신뢰로 은급 훈장까지 수여 받으며 부를 축적해 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최재형 선생이 쌓은 막대한 부는 러시아에 학교를 설립하여 한인들을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재정난에 빠져 폐간된 대동공보를 재간하고, 독립운동의 자금과 물품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데 쓰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러시아의 조선인 최고 부자였던 최재형 선생이 1919년부터 일본군에 체포되어 처형되는 1920년까지 살았던 마지막 거처인 기념관은 대부호가 살았다고 하기에는 조금은 왜소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최재형 선생의 기념관은 그가 어떤 사람



최재형 선생 기념관

이었는지 하나하나 열거해서 보여 주고 있었다. 러시아 정착기와 동의회 조직, 대동공보, 최재형 선생의 상징인 페치카(난로)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사용된 권총 한 자루. 오늘날까지 길이길이 기억되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도 최재형 선생이라고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 병탄의 길을 연 장본인으로 안중근 의사는 그가 만주로 오는 이유는 침략을 위한 시찰이라고 생각하였고, 한국 침략의 원흉이자 동양 평화를 파괴하는 이토 히로부미의 만주 방문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암살 계획을 했다고 한다.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탄 특별열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하고 안중근의 의사는 권총 세 발을 발사해 이토 히로부미를 명중시켰다. 안중근 의사는 최재형 선생의 지원으로 재간된 대동공보를 통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는 이토 히로부미 저격 전 대동공보 사무실에 머무르며 최재형 선생의 후원을 받아 사격 연습을 했다고 한다.

최재형 선생 하면 뒤따르는 두 가지가 있다. ‘최 페치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러시아어로 “페치카”는 난로라는 뜻이라고 한다. 너무 적절한 표현이었다. 단어의 의미만 듣고도 최재형 선생이 한인들에게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어떠한 존재로 추앙받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춥고 배고프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여 내일을 밝혀주는 빛 이자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지 않았을까. 이제서야 찾아온 미안한 마음과 함께 지금이라도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 조금은 안도했지만, 여전히 기억되지 못하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분이 많이 계신다는 걸 알기에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하지만 내가 느낀 이 감정은 우리가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아직 기억되지 못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찾아 다음 세대에게 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최재형 선생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고려인들의 슬픈강, 수이푼 강가의 이상설 유희비

“연해주 조국독립운동에 헌신 중 순국하다. 그 유언에 따라 화장하고 그 재를 이 곳 수이푼 강물에 뿌리다.”

- 이상설 유희비 中-

다시 버스를 타고 꽤 달렸던 것 같다. 창 밖으로 이어지는 시골 풍경 끝에 도착한 수이푼 강. 세차게 흐르고 있는 수이푼 강가에서 조금 걸어가니 사람의 발길이 드물어 보이는 외딴 이곳에 이상설 유허비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유허비는 선현의 자취가 있는 곳을 길이 후세에 알리거나 이를 계기로 그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이상설 선생은 1917년 망명지인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병사했는데 ‘죽기 전에 조국 광복을 이루지 못했으니, 몸과 유품은 불태우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유언에 따라 시신은 화장했고 유해는 수이푼 강가에 뿌려졌다.



이상설 유허비 앞에서

숙연한 마음으로 묵념을 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내 삶의 어떠한 것이 그들이 했던 독립운동만큼의 간절함이 있는지 쉽사리 떠오르지 않아 한동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상설 선생을 기린 후 우리 대원 모두는 어느새 장난치며 웃기도 하고 다음 일정은 무엇인지, 얼마나 이동해야 하는지 등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덕분에 적막하게 느껴졌던 이상설 유허비에 활기를 불어 넣어준 것 같았다. 비록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한스러운 마음으로 잠들었지만 이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위해 독립운동이 더 간절했고, 이곳을 방문한 포부 있는 사람들의 의미 있는 하루를 지켜보며 이상설 선생은 진즉에 한스러운 마음을 거센 수이푼 강물에 함께 흘러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흥가분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곳을 지키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의 대원들이 이상설 유허비에 붙여넣은 뜨거운 온기가 채 식기도 전에 우리의 발길을 이어 다음 일행이 도착했다. 소나무 몇 그루만이 유허비 곁을 지키고 있어 쓸쓸하게 느껴졌던 처음과는 다르게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발길 있어 유허비의 온기는 쉽게 식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유허비 앞에 놓여진 국화꽃은 쉽게 시들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나도 조금 흥가분해진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탈 수 있었다.

16.

내가 이 곳에 있는 이유,
민족의 얼과 희생

박소은
대학생

블라디보스토크, 이제는 정들어버린 이 거리도 뒤로한 채 다음 일정한 우수리스크를 향해 가는 버스에 몸을 싣고 잠깐 잠이 들었다. 잠시 한 시간 반 정도 눈을 붙이고 일어나니 우리는 우수리스크에 도착했고 블라디보스토크와는 같지만 조금 다른 모습에 한껏 기대할 수 있는 풍경을 마주했다. 도시와 같은 느낌이었던 블라디보스토크와는 다르게 우수리스크는 한적한 시골 마을과 같은 인상을 깊게 받게 되었고 그 한적함에 한결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 한적함 가운데 웬지 모를 엄숙함이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인 ‘고려인 문화센터’라고 했다. 내게 ‘고려인’이 무어나고 묻는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고려인’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센터를 방문하기 전의 나에게 묻게 된다면 ‘고려 사람? 삼국시대 사람이 거기서 살았던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에는 고려인에 대해서 확실하고 중요하게 배우지 않았고 나 또한 그때는 역사란 그저 공부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려인 문화센터

고려인 문화센터는 2004년 러시아 한인이 주 140주년을 기념에 2009년에 새로 건립되었다고 했다. 입구에 서서 문화센터를 바라보고 서 있자니 절로 애국심이 생기는 느낌이었다. 건물은 생각보다 크고 깔끔했고 누가 보아도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내부 또한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으며 고려인의 삶과 역사, 현재를 보여 주며 온갖 어려움을 겪었어도 잘 정착한 우리 민족, 고려인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설명, 벽과 벽마다 수많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곳에서 설명 듣게 된 고려인은 19세기부터 연해주에 거주하기 시작한 한민족을 말하며, 1863년 함경도 농민 13가구의 이주와 더불어 고려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1905년, 우리나라가 강제로 맺게 된 을사늑약을 전후로 많은 독립을 원하는 애국지사들

이 독립이라는 마음 하나로 뭉쳐 항일독립운동을 위해 다른 나라의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여 항일운동을 진행하였을 때, 연해주로 곳곳으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도 이에 속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꿈과 희망을 품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한 고려인들은 '개척리'라는 마을을 성공적으로 일구었지만, 콜레라 창궐로 인해 당시 소련 정부가 '개척리'의 고려인들을 도시 외곽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한인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한인의 얼을 생각하며 그 외곽지역에서 신개척리를 만들고 새로운 한인촌이라고 명명하여 '신한촌'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신한촌'은 1910년 들어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다고 한다.

문화센터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신다고 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난한 유년기를 거쳤지만 연해주로 이주하여 군수업으로 부를 쌓아 러시아 육군 소좌의 직책에 올라갈 정도로 러시아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졌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임을 자각하고 연해주 독립운동의 핵심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독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최재형 선생이었다. 그 대단한 업적들은 이후 가게 된 최재형 선생 생가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수 있었기에 다음 일정 또한 기대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고려인에 대해서 설명을 집중해서 듣게 되었다.

고려인 문화센터를 빠져나와 다시 버스에 탑승하여 차창 너머로 비치는 바깥 풍경을 음미하고 있자니 그새 도착한 최재형 생가,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 사회에서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이러한 집에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소박함을 내보여 주는 ‘최재형 선생 생가’는 러시아에서 많이 봤던 그런 평범한 집과 같은 건물에 한국과 러시아의 깃발과 함께 ‘최재형 선생 생가’라고 적혀 있었고 이곳은 1919년부터 1920년 4월 일본군에 의해서 학살되기 전 두 번째 거주했던 집이라고 했다. 안에서 그의 일생에 대한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그는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라고 불렀던 사람이며 1880년 러시아에 귀화하였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심양면으로 독립운동가들에게 지원하고 1905년부터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와 인연을 맺었고 두 사람은 단지동맹 동지들과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하며 각



최재형 선생 기념관

별한 사이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재정난으로 망해가던 대동공보는 최선생의 지원으로 재간되었으며 이 대동공보를 통해 안중근 의사는 고급정보를 입수하는데, 그 정보는 바로 일본의 고위간부인 이토 히로부미가 북만주를 시찰하러 러시아에 온다는 것을 알고 대동공보 사무실에 머무르며 거사를 준비하였는데, 이 거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얼빈역 이토 히로부미 암살사건이었다. 이 거사당일 쓴 일곱 발의 총탄도 최재형 선생이 준 권총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했다. 최재형 선생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사살하고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고 남겨진 아내와 자식들을 돌보며 독립운동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지만 1920년 연해주의 항일운동세력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일본군이 벌인 한인 학살 사건인 '4월 참변'으로 인해 순국하시고 말았다고 했다. 최재형 선생은 노비출신의 자산가였고 동포들에게 따뜻함을 안겨 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었다. 또한 그의 별명인 페치카는 러시아어로 난로라는 뜻을 가졌듯이 자신을 불살라 따뜻함을 널리 퍼뜨리는 사람이었으며, "페치카"라는 별명이 최재형 선생에게 딱 맞는 호칭이라 생각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독립운동가 이상설 지사의 유허비였다.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어 우수리스크에서 병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던, '조국이 해방되지 않으면 이곳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남기신 독립운동가 이상설 지사의 유허비로 이동하여 그의 열과 혼을 가슴으로 느끼며 헌화하고 묵념을 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 과거 속에서 우리 국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고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운동가분들 덕분에 내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의 죽음, 희생은 분명 하늘의 별과 같이 가치 있고 반짝이는 것들이었고 언제나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고 기리는 것이 이 땅을 지켜낸 분들에게 보답하고 감사하는 방법이라고 느꼈으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 항상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17.

하늘 아래 같은 삶은 없다 - 무소의 뽕처럼 갈 길을 가는 이들



권희경
관광통역안내사

“고려인으로서 남과 북 사이의 연결고리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한국인인 듯 아닌 듯, 어딘가에 있는 듯 없는 듯. 이 정도가 당시의 내가 #고려인이라는 키워드로 꺼낼 수 있는 전부였다. 대체 고려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가장 적절할까? 고려인을 검색해보면 ‘고려인 4세’, ‘고려인 강제 이주’가 먼저 보인다. 러시아 연해주의 항만도시, 블라디보스토크!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화물칸에 실려 한 달이런 시간 동안 6천여 킬로미터를 이동해 우수투베라는 역에서 내렸다고 한다. 그곳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있는 중앙아시아 일대 즈음. 내가 그들 중 한 명이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해본다. 추워서 혹은 굶어서, 죽으면 시체들은 어쩔 수 없이 허허벌판 위에 던져졌을 터. 기차는 달리기에. 그 어둠과 추위를 뚫고 살아남은 이들은 추위와 어둠만 남은 땅 위에 방치되어 토굴을 파고 갈대를 엮었다고 한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려인 4세’가 가능했던 걸까? 아하, 그렇다. 당시 소련 정부가 달리니버스

특 이라는 동쪽 어딘가에 그들이 거주할 마을을 형성한 것이다.

픽 쓰러지면 무덤이 되던 척박한 땅을, 고려인들은 기적적으로 비옥한 땅으로 일구어내는 데 성공했는데 대략 3년 정도에 이루어냈다고 전해지니 더욱 놀랍다. 고려인 1세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 대해 카작인들은 도움을 주는 등 우호적이었지만, 소련의 붕괴와 카자흐스탄의 독립 이후, 러시아어를 쓰던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의 자국민 우선시 정책과 사회 분위기에 또다시 생존을 위한 삶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그들 중 대다수가 다시, 연해주로 돌아가 정착했다.

‘고려인 강제이주’가 대체 왜 일어났는지는 몇 가지 추측들이 존재한다. 스탈린의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 독재를 위해서라던가, 러일 전쟁이 일어나 일본군에 고려인이 인력으로 흡수되는 참사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던가. 어떤 가설에 힘이 실리더라도,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개개인의 삶과 운명이, 국가 간 이해관계에 의해 달라지는 건 참 쉬웠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영문도 모른 채 바뀐 운명. 우리는 알고 있다. 힘없는 국가의 시민으로 사는 것의 서러움, 언어를 잃고, 역사를 잊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음을!

고려인협회장 박 발렌틴 초청간담회



고려인문화센터를 방문한 날, <박 발렌틴 고려인협회장 초청 간담회>를 들으며 당시에는 막연하게 ‘고려인’으로서의 활동을 이십 년간 지속해 온 것은 어떠한 원동력이 있어 가능했는지,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굳건해서 혹은 고려인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가지니 책임감에 지속하게 된 것인지? 같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이런 주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외길을 가는 이 견고한 고집은 어디에서 힘을 얻어 이토록 꾸준히 지속하는 걸까?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공부해보면서는 당시 내가 가졌던 궁금증은 너무나 일차원적이고 단순했구나, 내가 배경 지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너무나 순진하게 생각했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다.

그동안 1세, 2세, 3세, 4세가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꾸준히 살아왔는데 대체 그들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지금은 어떤 삶을 보내고 있을까? 고려인들의 삶에 대해 찾아보자, 주경야독하며 한글을 배워보는 사람들, 첼리스트를 꿈꾸던 소녀의 소아암 투병을 돕기 위해 치료비를 모금하는 광주 고려인마을, 고려인마을의 의료봉사 소식 등이 나온다.

아, 광주시는 거주와 정착을 위해 고려인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라 한다.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고려인들이 많다고 집계되고, 실제 생활과 거주지로는 첫 번째인 곳. (경기도 안산시에 공사현장이 많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고려인들도 많은지 생각해 본 적 없는 이야기-) 그러나 이들 중 다수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한국과 러시아를 계속 옮겨 다니는 실정이라 한다. 고려인 3세까지는 ‘재외동포’에 해당하지만 4세는 그렇지 않아서, 단기비자를 받고 잠시 들어와 있는 외국인과 같다는 것이다. 스물부터는 90일 간격으로 한국과 러시아를 오고 가는 번거로움, 안정적인 수가 없는 일상.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살며 한국어를 접하지도 못했던 이들이, 한국 땅을 밟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놀라웠다. 그리고 고려인 4세라고 불리는 이들이 자신을 한국에서의 외국인이 ‘아니’라고 여기고 지금껏 목소리를 내어 왔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우즈베키스탄 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그들을 만나기도 했다는 소식도 접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고려인에 대해 얼마나 친숙하며,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 질문을 빼놓을 수 없겠다. 뭐,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지만 말이다. 최근엔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앞으

로는 고려인 4세를 재외동포로 인정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게 고려인에 대해 찾아보지 않고 딱히 생각해 보지 않을 때는 이 소식을 들었더라도 그게 뭔지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민족적 투쟁에는 다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다 - 그게 얼마나 잘 전달이 되는지 아닌지는 둘째 치고- 그리고 누군가가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왔기 때문에 그 많은 작은 과정들이 점에서 선으로 이어져, 이 '재외동포로 인정한다.'는 한 문장이 쓰였을 것이다.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식, 문장 하나 정도는 잘 와 닿지 않지만 이렇게 좀만 알아보아도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갈지 느낄 수가 있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날의 기억을 일깨우는 경험을 맞이하게 되었다. 참 재밌게도, 정작 내가 간 적 없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관련 일을 맡게 되었는데, 각 나라와 학교들을 놓고 어디로 교환을 하고 싶은지 얘기를 나누던 중, 학생이 잠시 말을 멈추고 머뭇거리었다. 무엇을 망설이는 걸까? 본인의 윗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인이라는 말을 꺼내었다. 나는 '오!'라고 (나름 반갑게) 반응했지만 어쩐지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이는 것이었다. 왜 목소리가 떨리는 걸까? 라고 잠시 생각하기도 했으나 그 학생은 그 말 하나를 마치 유리컵 꺼내듯 조심스레 꺼내었으므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십 년 동안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활동을 지속하는 삶을 살아온 이유가 다른 데에 있지 않겠구나. 그리고 나니 조금 민망한 것도 같다. 나는 너무 멀리서 찾아보려고 생각했다.

고려인문화센터와 같은 곳을 방문한 건 내 인생에서 정말 드문 경험일 테고 특별한 날이었지만 만약 내가 가서도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얻는 건, 어찌면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관심을 가지고, 경험을 쌓고 느껴보기. 모든 것의 시작은 늘 나의 상상보다 작고, 작다. 사소한 궁금증은 또 의외로 큰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이날의 기억과 경험 또한 나에게 사소하지 않은 기억의 조각으로 남을 것 같다.

18.

이르쿠츠크 한국영화상영회 오프더레코드



이유림
대학생

정신없는 한국영화상영회 공연 준비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한국영화인 “리틀 포레스트” 상영회가 열렸었다. 그날 우리 공연단은 영화 상영 전에 공연이 예정되어있었다. 대장정을 진행하면서 몇 번의 공연이 있었지만 한복을 입고 공연하는 건 처음이라, 전날부터 공연 때 입을 한복을 다리고, 준비해간 곡 중 어떤 곡을 할지 상의하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무대화장과 머리를 세팅하고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기에 아주 긴장에 긴장 상태였다. 또 마침 상영회 후에 바로 열차에 탑승해야 했던 일정이어서 악기와 다려놓았던 한복 그리고 짐까지 챙겨 들고 하루를 시작했다. 게다가 숙소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꽤 걸렸는데 세팅한 머리 때문에 이동시간이 좀 힘들었다.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잔 건 안 비밀. 딱딱한 시간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리허설을 진행했더니 공연 전에 이미 기가 다 빨려버렸다. 조명하나 마이크 음향 하나하나 다 맞추면서 리허설이 늦어졌는데 그때 무대에서 봤던 객석은 꽤 넓었다. 한국도 아닌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된 한국영화상영회인데 사람들이 와봤자 얼마나 오겠나 하는 의구심이 한가득.

공연장문을 여는 그 순간

무대 뒤에서 바로 등장할 수 있는 홀이 아니라 대기실이 지하에 있어서 무대로 가려면 관객들 뒷문으로 들어가 객석을 지나쳐 무대로 입장해야 했던 홀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리허설 때 봤던 넓고 텅 빈 공연장이 아니라 사람들로 가득 찬 공연장으로 변해있었다. 리허설 때 괜히 그런 의구심을 품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무대 올라가기 전 객석 옆 복도에서 주이르쿠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님의 환영사를 들으며 대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단원들도 그리고 객석에도 한복을 입은 우리가 신기해서 다들 우리를 꽤 구경하고 있었다. 너무 바로 앞에서 꽤 오래 서 있게 돼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고 민망해서 괜히 바닥만 본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단원들이 찍어주었던 사진을 보면 바닥 보고 있는 사진이거나 민망해하고 있는 내 모습들뿐.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예쁘게 웃어 보였을 텐데. 사실은 한복 입고 지하대기실부터 무대에 오르기까지 내가 내 한복 치마자락을 밟고 넘어지지만 않았으면 하는 초조함을 최대한 여유로운 척 연기하느라고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는지.

무대에서

대장정이 진행되고 몇 번의 공연이 있었지만 무대, 조명, 음향이 준비되어있는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공연했던 터라 이번 공연이 제대로 된 무대를 선보이는 것 같았다. 오랜만에 무대에 서서 나를 뚫어버릴 것만 같은 조명과 뚫어지게 쳐다보는 관객들 앞에 섰더니 녹아내릴 것만 같았다. 사실 악기 구성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었으면 더 재밌는 무대를 보여 줄 수 있었는데, 아무대로 대금과 장구 두 악기만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무대가 한정적이라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그런데도 관객들은 호기로운 눈으로 끝까지 집중 해주었다. 장구도 그렇고 대금도 그렇고 습기에 굉장히 예민한 악기인데 그날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어서 가죽이 습기를 제대로 먹어서 내가 원하는 소리가 나지 않아서 그 점이 조금 맘에 걸렸지만 그래도 관객들이 집중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감사했다. 뒤이어 무용단공연도 이어졌고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는 무대에 대장정 단원들이 다 같이 올라와서 객석에 소개하며 우리 대장정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는 단장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대장정과정에서 이동하는 곳마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가자!”를 외치면서 그곳의



이르쿠츠크 공연

기를 받아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한국영화상영회에서 그 기를 듬뿍 받았다! 우리 공연단의 공연 외에 이르쿠츠크 시민들과 교류시간도 있었다고 하는데 공연을 하는 공연단의 경우 그런 교류 행사나 다른 일정들은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울 따름이다.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영화상영회가 끝나고 우리는 예카테린부르크행 열차를 타야 했기에 영화를 관람하지는 못했다. 공연이 끝났다는 느낌보다 이제 열차를 타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이 가빴던 것 같다. 나는 무대화장과 머리할 때 화장도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았고 머리도 젤보다는 스프레이를 더 많이 썼는데, 무용단은 젤을 사용해서 머리 고정하고 속눈썹도 붙이고 무대화장도 굉장히 진했다. 화장은 나중에 지워도 되지만 젤은 제대로 잘 씻지 않으면 머리카리 서로 엉겨 붙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공연이 끝나고 무용단은 화장실에서 기차를 타러 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급하게 머리를 감았다. 몇 분 전에 막 공연을 끝낸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말도 안 되고 재밌는 상황이지 않은가. 상영회 일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즈음에 단원들의 낯설었다, 멋있었다, 너무 예뻐다 등의 격려 말을 들으며 그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부산홍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한편에는 우리의 대장정을 알리는 안내판도 있었다. 여기 온 관객들은 한국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이곳에 모였을 터 어떻게 여기 러시아에서 한국영화 상영회를 이토록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곳은날 이렇게 모인 것인지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진짜 끝

위에서도 말했듯이 공연을 하는 공연단은 공연을 해야 하므로 다른 단원들과 같은 행사, 일정을 소화해도 그들보다 사람들과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다. 항상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르쿠츠크에서의 한국영화상영회의 내 기억은 이 정도가 끝이다. 굶은날 공연하고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으며 기차를 타러 간 것. 그날의 그 일정의 마지막 기억은 열차를 타러 기차역으로 가서 엄청난 비를 맞으며 짐을 옮기고, 비에 젖은 상태로 굶주린 배로 다급하게 서서 캐리어를 식탁 삼아 늦은 점심 아니 저녁을 먹었던 것. 다들 예상치 못한 거센 비에 옷이며 신발이며 다 젖고 무거운 짐에 굉장히 지쳐있었는데 이르쿠츠크에서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뿌듯함과 다음 목적지인 예카테린부르크에서의 일정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겨 냈던 것 같다. 이르쿠츠크의 짧은 일정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앞으로의 대장정이 기대되었다.



이르쿠츠크 공연

19.

유라시아시민대장정 RZD 에르제데의 풍경화



엄동현
前 교직원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RZD를 에르제데라고 읽는다. 몇 번을 듣고도 잊어버려 차창 밖 자작나무를 보면서 외운 단어다. 바이칼호수의 도시인 이르쿠츠크를 떠난 기차가 또 정차한 아친스크역 플랫폼에서 휴식하다가 곧바로 식당 칸으로 이동한다. 움직이는 열차의 식당 종업원이 먼저 피망 샐러드와 누런 빵을 먼저 먹도록 준비해 뒀다. 다음으로 향아리에 담긴 뜨겁게 끓인 보르쉬를 한 숟가락 뜨니 닭고기와 감자가 씹힌다. 우리나라 국 같은 러시아 전통 수프다. 몸에 열기가 확 달아오른다. 마카롱과 돼지고기를 포크로 찍어 먹는다. 러시아는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비싸다. 횡단 열차가 시골 마을을 지나갈 때도 소만 보일 뿐 돼지를 키우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 식당 칸에서 러시아 전통차도 마신다. 주석 찻잔에 RZD가 찍혀있는 걸 보아 고급열차임을 증명하고 있다. 아마도 추운 지방이라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홍차를 마시는 것 같다. 덜컹덜컹 에르제데는 바쁠 것 없이 달린다.

이르쿠츠크에서 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틀째 타고 간다. 2019 부산 유라시아시민대장정 당원이 지루할까 싶어 “1937년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고려인”, “UR_RAUM을 위한 경험담”을 읽은 대원에게 이야기해준다. 57시간을 타는 구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루함을 던다. 사실 대장정 단원으로 뽑힌 것은 천운의 기회였다.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뽑다가 올해 시니어 시민도 선발하여 정말 운 좋게 대장정의 일원이 되었으니 웬만한 어려움은 참을 수 있는 저력을 발휘한다. 4회째를 맞이하는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7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하였다. 50여 명의 단원이 러시아, 중국, 몽골, 폴란드, 독일을 거치는 1만 2218km의 대장정을 통해 부산의 이미지를 알리는 민간외교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예니세이강이 흐르는 크라스노야르스크역에서 40분 정차는 꿀 같은 휴식이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여행을 즐기기 위해 방향감각, 시간, 날짜를 다 잊는다. 어쩌면 잊어야 내가 살아 남는다는 평범한 진리도 깨닫는다. 생명의 술 보드카는 역 매점에서 팔지 않아 아쉽다. 금빛 캔 맥주 5개를 780루브르에 산다. 카페에 돌아왔더니 바가지를 썼다며 대원들이 놀린다. 가격표를 볼 수 없어 판매원이 달라는 대로 줬을 뿐이다. 4명이 함께 사용하는 좁은 공간에서 흥차도 마시고 맥주도 마신다. 흔들리는 기차가 굉음을 내면서 쇠끼리 부딪치는 소리에 깜짝 놀란다. 아마도 동차가 균형을 맞추는 시스템 같다.

에르제데는 세상을 짝사랑 한 기분이다.

대장정을 하다 보면 성향이 같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도 있다. 같은 사람은 별문제가 없는데 다를 경우 다름의 미학에 공감하면 좋다. 마린스크역을 지나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든다. 50여 명의 대원 중 한 명으로 뽑힌 것만으로도 어디냐며 가슴을 다독인다. 대장정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한정된 열차의 화장실 사용도 서로가 불편하지만 감내할 수밖에 없다. 동차 11호의 차장은 역 도착 30분 전후로 화장실 문을 잠근다. 철로 자갈 위에 거시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차장은 승객에 대한 통제권도 행사한다. 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인 에르제데를 타면서 세상을 짝사랑 한 기분이다. 사실은 집 떠나면 개고생이란 말을 잊은 것을 아니지만 어떻게 혼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탄다는 말인가. 나 혼자서 탄다면 러시아말

도 못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1천만 원 이상 더 들 것 같다.

옆방 구페에서 모닝커피를 즐기란다. 아침밥 대신 맥주 한잔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대원은 다방면으로 전문가다. 맥주를 마시면서 맛있는 이야기로 물꼬를 튼다. 식사의 거부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 맛 자랑이다. 부산 맛집으로 돼지국밥과 밀면 이야기로 한정한다. 전국의 맛집까지 손금 보듯 이야기한다. 대원은 맛집에 대한 내공도 숨김이 없다. 이름도 알 수 없는 러시아 맥주에 취기를 느낀다.

7월 29일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마린스크라는 도시를 벗어나 서쪽으로 계속 달린 끝에 옴스크다. 역 이름을 외우기가 쉽다. 에르제테 RZD가 일찍 도착하여 정차시간이 늘어났다. 구페 룸메이트와 역 구내 화장실을 찾는다. 20루브르로 화장실을 해결할 수 있다. 고민을 해결한 해우의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양치질과 머리 감기만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이 기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큰 역은 화장실도 깔끔하게 승객을 맞는다. 걱정을 남겨두고 짧은 시간에 기념품 가게에서 OMCK 적힌 컵 받침대를 사서 룸메이트와 나누는 행복감도 맛본다. 다행히도 어제 산 연어 알이 유일한 반찬이다. 아침밥은 러시아 부침개를 쿠페까지 룸서비스다. 염장한 연어알도 누구는 맛있고 누구는 맛없다. 팬케이크를 먹으면서 풍경을 감상하니 60~80km 속도로 나의 짝사랑인 에르제테 RZD는 잘도 달린다. 나의 인생 여정도 방향 감각을 잃고 3일 동안 시베리아 별판을 잘도 달린다.

달리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소나기가 쏟아져 동차와 동차 사이의 연결부에 빗물이 그대로 떨어진다. 식사도 휴식도 다 접어두고 모처럼 보는 시베리아의 소나기에 넋이 빠진다. 금강산도 식후경 사람들은 쿠페에서 나와 모두 복도 창가에 달라붙는다. 떨어지는 비를 보면서 명 때리기, 보고 싶은 사람, 외로움 갖가지 표정의 자작나무가 열차를 따라온다. 러시아 투먼역에 비가 내린다. 열차 바퀴 안전 점검원은 비와 숨바꼭질하듯 망치로 바퀴를 두드린다. 바퀴에 화장지 조각이 눈발이 날린 것처럼 묻어있다. 열차의 화장실에서 거시기를 보면 철길에 바로 떨어짐을 증명하고 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모스크바가 기준 시간이다. 지방의 시간은 모스크바의 시간을 짝 사랑할 뿐이다. 비가 와서 외부 온도가 19도로 떨어진다. 해만 나오면 기온은 급히 오른다.

기온 떨어지면 에어컨은 더 잘 가동되어 춥다. 시베리아 별판은 짧은 여름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시차 적응도 열차의 거리만큼 어둠에 잠긴다. 이르쿠츠크에서 57시간 동안 그리기 시작한 에르제테의 풍경화는 검은 시베리아의 소나기를 뚫고 서쪽의 종착역 예카테린부르크로 달리고 또 달린다. 그때 그린 풍경화의 블로그를 다시 열어 열어본다. 언제 다시 나의 짝사랑 에르제테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볼꼬?

에르제테는 역사적 프레임도 바꾼다.

이르쿠츠크역에서 예카테린부르크역까지 3일 동안 타고 와 역전의 마린파크 호텔에서 묵는다. 641호 창문을 여니 밤늦은 역의 불빛이 낮설다. 호텔에서 잠을 자서 승차의 피로를 풀고 가볍게 아침을 맞는다. 호텔 뷔페를 조식으로 먹으면서 창밖 시민들의 출근 모습을 발견한다. 우리는 반팔 차림이지만 예카테린부르크의 시민은 겨울옷 차림이다. 온도 차이가 날씨의 차이로 이어지는 아침이다. 100년 전 강대국의 기억으로 낡은 트램이 다니고 도시에는 하수시설이 없다.

러시아 황제에 오른 예카테리나의 이름을 딴 예카테린부르크. 그녀는 표트르 대제의 왕후였다. 여성의 이미지와 중세의 성(부르크)이 말해준다. 가냘픈 여성이 아니 강인한 여성 군주였다. 아침 출근족은 바쁘게 움직인다. 공산주의가 해체되고 이념보다 그들도 돈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예카테린부르크는 광산 개발을 위한 계획도시다. 러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우랄산맥의 철광석으로 제철생산 도시였다.

피의 성당으로 간다. 1918년 7월 17일 새벽, 러시아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와 아내, 딸 4명, 아들 1명 시종 3명이 지하실에서 총살당한다. 적어도 러시아의 피의 성당을 방문하기 전까지도 러시아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황제로만 알았다. 선입견과 편견이 피의 성당에서 깨어진다. 오히려 러시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임을 대장정을 통해 바로 잡는다. 처형한 당한 곳은 붉은색 등으로 표시해 두었다. 예카테린부르크 출신의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피의 성당을 세웠다. 성당벽화에는 니콜라이 2세 가족이 부활했다.

성당 입구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비운의 황제 가족이 이제는 성자로 추대되어 피의 성당

을 지킨다. 우리가 도착하기 직전 2019년 7월 17일도 많은 순례단이 왔다간 사진 자료는 러시아 국민의 존경 척도다. 나의 지식도 어떤 프레임 속에 갇히면 잘 못된 지식을 송배한다. 유라시아시민대장정을 통해 역사적 프레임을 바꿀 기회를 갖는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다. 니콜라이 2세와 가족들을 예카테린부르크는 다시 복원하고 있다. 러시아 정교회와 시민은 그들의 혼을 달래고 있다. 유라시아시민대정을 통해 내 마음속의 에르제데 풍경화는 다시 그려진다.

러시아 현지 시민들



20.

이르쿠츠크에서 예카테린부르크까지, 54시간의 특별한 열차생활



김정원
대학생

나는 사진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다. 우연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라시아대장정을 접하게 되었고 면접을 운 좋게 통과하여 뽑히게 되었다. 촬영홍보팀에서 내가 맡은 업무는 사진 및 영상촬영이었다. 한 달에 가까운 긴 여정 모두 즐거웠다. 그중 가장 특별한 경험은 이르쿠츠크-예카테린부르크 구간의 열차 생활이다. 열차에서 또래들과 동고동락하며 3일을 보내는 경험은 대장정이 아니고서야 쉽게 가질 수 없는 경험임이 분명하다.

첫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이르쿠츠크 극장에서 촬영을 마치고 나온 오후에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다행히 비가 많이 내리진 않았다. 오래된 카메라를 비웃에 감싸고는, 극장에서 뛰쳐 나와 버스로 직행했다.

오랜만에 비가 내리네...

속으로 생각했었다. 버스 탑승에 익숙해진 덕분인지, 다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이내 버스는 이르쿠츠크역을 향해 달리기 시작

했다. 방금까지 시끄러웠던 버스 안은 금세 조용해졌다. 어제 바이칼에서 힘을 뺀 탓일까.

어느새 역에 도착해 있었다. 방금 극장에서 찍은 영상을 확인하려던 찰나였다. 기차탑승 수속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다들 대합실에 짐을 내려놓고 역내 매점에 들리거나 이야기를 나눴다. 2박 3일의 기차 일정을 앞두고도 다들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 보였다. 일단 타기만 하면, 빠듯했던 일정들에서 한동안은 자유일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나는 환전을 충분히 하지 않아 환전소를 찾아다녔다. 통역 팀의 도움을 받아 안내소에 주변 정보를 물었으나 역에 환전소는 없었다. 대신 기차역에서 다른 대원들과 간식을 나눠 먹으며 시간을 보냈고, 언젠가 이 은혜를 갚겠다고 생각했다. 호차가 엇갈리는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이내 우리는 배정받은 칸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정도면 되게 빠르네!”

전부터 줄곧 대장정에 참여하셨던 전문가님들도 짧은 시간에 각자 방을 찾아 들어가는 것에 감탄하셨다. 열차 부분의 후기를 맡은 사람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열차탑승이다. 우리가 역에 도착하면, 보통 우리가 KTX에 혼자 탑승할 때 느낄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

열차 생활



게 된다. 대개 열차가 역에 정차하는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에 50명이 넘는 대원들과 수많은 캐리어들이 실려져야 했기 때문이다. 대합실에서부터 짐과 사람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들어갈 지 매년 계획을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된다. 꼭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다. 이번 열차탑승에서는形形色색의 캐리어들을 먼저 열차에 올리고는 이어 대원들도 서둘러서 사람들이 적은 문으로 나누어 올라탔다.

흡사 작전 뒤에, 2박 3일의 열차 생활이 시작되었다. 대원 50여 명이 수십 개의 침대칸에 줄줄이 자리를 잡았다. 4인실의 이층침대칸을 보통 3명이 사용했는데, 침대 4개 중 남은 한 칸은 짐칸으로 사용했다. 짐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카메라와 노트북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콘센트를 이리저리 찾아다녔다. 이전에 탑승했던 열차 중에는 객실 내에 콘센트가 없는 오래된 기차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객실마다 콘센트가 있는 열차였다.

나는 곧장 샤워했다. 같은 방의 형이 나에게 접이식 대야를 빌려준 덕분에 비로 한 번 젖고, 짐을 옮기며 땀에 또 한 번 젖은 몸을 씻을 수 있었다. 기차 세면대는 수도꼭지가 아니라 버튼을 누르는 동안에만 물이 나와서 샤워는 꽤나 힘들었다. 하지만 그때의 개운함을 못 잊어서 3일 내내 매일 샤워를 했다. 좁은 화장실에서 샤워라니, 해보기 전까지는 몰랐다.

열차 내 멘토 특강



대원 모두 짐을 풀어헤치고 열차가 안정을 찾아갈 무렵, 우리 대원들을 위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우리 단원들의 무료한 기차 시간에 대학생과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단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전문가님들로부터 배움을 얻어가는 자리였다. 이동시간이 긴 만큼 이번 열차에서만 4차례 정도 이뤄졌다. 매 수업 평소 관심 있었던 이야기들, 가령 미술이나 영화 산업과 같은 이야기를 전문가님들로부터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또 짧은 강의시간이지만,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를 조금이나마 배워갈 수 있었다.

다음날 기차에서의 아침이 밝았다. 우리 방 대원들은 다들 일찍 일어났다. 방을 나서니 창문을 따라 어제의 비 때문에 말리지 못한 빨래들이 줄줄이 걸려있다. 몇몇 사람들은 오랜만에 늦잠을 자는 것 같았다. 우리 방에서는 아침부터 각자 가지고 있는 전투식량과 컵라면을 꺼내어 먹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은 쉽게 적응하기 힘들었던 현지 음식 속에서 마치 빛이 났다. 간단하게 씻고 나서, 나는 여태까지 찍어두었던 사진 파일들을 여유로운 시간에 하드드라이브에 옮겨놓기로 했다. 좁은 침대칸에 전기선을 거미줄처럼 치고 나서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노트북과 하드드라이브를 연결해서 파일이 옮겨지는 동안 다른 방으로 가서 놀기로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중간중간 역에 정차할 때마다 전기는 끊겼고, 그 때문에 하드드라이브가 중단되며 내 사진 파일의 일부가 옮겨지지 못했다.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로 나는 나중에 노트북이 가득 차자, 백업하지 못한 사진들을 삭제해버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된다.

하드드라이브가 전력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을 무렵, 나는 다른 방을 찾아가 또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흘러가는 대로 오만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지만 즐거웠던 기억만 남은 채, 정작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나중에는 사진 어플을 사용해서 영상을 찍기도 했는데, 어플이 보정해준 바보 같은 모습에 다들 한참을 웃었다. 열차가 멈췄다. 다들 갑자기 하던 것을 멈추고 나갈 준비를 서두른다. 누구는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러 나가는가 하면, 다른 누구는 역 근처 매점에 들리려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치 고등학교 쉬는 시간에 매점을 찾는 아이들 같았다.

오후에는 나는 그다지 움직이지 않고 내 방에 머물렀다. 노트북으로 사진을 정리하고 있으니 주변에 놀러 온 대원들이 본인 사진을 보여 달라고 말한다. 그리 좋은 사진 실력은 아

하지만, 다행히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아 좋아하는 대원들이 있었다. 내가 사진작업을 하며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바로 이럴 때였다. 사진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했고, 스스로도 뿌듯했다.

해가 질 무렵, 촬영홍보팀이 한 방에 모였다. 촬영홍보팀 전문가님께서 팀 회식을 제안하셨기 때문이다. 미리 매점에서 사놓은 러시아 맥주를 맞대었고, 안주로는 러시아 과자들을 즐겼다. 따로 대원이 가져온 안주 중에는 중국에서 사놓은 음식들도 더러 있었다. 차창 너머로는 러시아의 평원과 강 위로 노을이 지고 있어서 붉은빛이 방을 가득 채웠다. 한동안 열차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예카테린부르크행 열차, 그 마지막 날이 되었다. 방에서 나서니 방문을 닫아놓고 여전히 잠을 청하는 방이 많았다. 운영진들께서는 방마다 아침 식사를 나눠주며 잠을 깨워주셨다. 우리 방은 당연하다는 듯이 챙겨온 라면을 먹고도 아침 식사를 해치웠다. 오전은 조용하게 지나갔다. 나는 약간의 사진 보정작업을 했다.

잠시 정차하는 역에서 나는 바람을 쐬러 플랫폼에 발을 디뎠다. 바람이 꽤 쌀쌀했다. 다시 열차에 돌아와서는 따뜻한 홍차 한 잔에 기분이 좋아졌다. 러시아 열차에서는 끼니마다 홍차나 커피를 내주는데, 인스턴트 치고는 홍차 맛이 꽤 인상적이었다. 기호에 따라서는 설탕을 가득 넣어 마시기도 한다.

전문가님과 특강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 저녁만 먹으면 목적지 도착이었다. 이리저리 훑어보았던 짐과 충전 케이블들을 대강 정리했다. 열차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내리는 것에 귀찮음까지 느껴졌다. 시간이 좀 지나 도착한 예카테린부르크에는, 막 해가 지고 어둠이 드리우고 있었다. 발을 딛고 나니 귀찮았던 마음은 금세 사라지고, 얼마만의 도시 인지 기뻐다. 머물게 될 호텔도 역에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이어서 좋았다.

덜컹거리는 열차가 아니라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는 호텔의 고요함에 화들짝 놀랐다. 폭신한 침대가 주는 편안함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내일을 기대하는 것도 잠시, 열차 생활의 마지막 날은 그렇게 잠이 들었다.

21.

유라시아 분기점,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본다!



문우영
대학생

이르쿠츠크에서부터 시베리아 횡단열차 장장 56시간을 타고 도착한 이곳은 바로 예카테린부르크이다. 다들 꼬질꼬질해진 상태로 기차에서 하차하여 도착한 예카테린부르크역은 무슨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전 같은 느낌이였다. 그리고 맞은편에서 파란빛을 내며 반짝거리는 호텔이 우리가 머무는 곳이라는 걸 알고는 모두 일제히 환호를 질렀었다. 대장정 중에 머물렀던 호텔들은 물론이고 기차까지 모두 안락하고 생각 외의 럭셔리함에 대만족이었는데 예카테린부르크의 호텔 역시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았다. 다들 오랜만의 호텔에 빨래 생각, 샤워 생각으로 들떴었고 나 역시 서경이와 룸메이트가 되어 신났었다. 호텔방에는 무려 웰컴 초콜릿과 탄산수가 아닌 그냥 물이 있었고 우린 소박하게 그것들에도 감동을 받았었다. 하지만 호텔방에만 있기에는 우리의 밤이 너무 아까웠기에 곧바로 나갈 준비를 했었다.

예카테린부르크도 식후경

호텔로 가는 길 내내 준비했던 케밥 집들이 눈에 아른거렸던 우리(서경, 영주 언니, 지원 언니, 보민 언니, 영진 오빠, 수민이)는 함께 호텔 근처의 케밥을 먹으러 갔다. 메뉴를 봐도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없었고 음식이 주문량보다 하나 덜 나오는 등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러시아어 달인 보민 언니가 있었기에 다행히 잘 해결됐었다. 역시 러시아에서는 “이즈비닛제” 이 말 한마디면 어떻게든 되는 거 같다. 그리고 케밥을 먹으면서 케밥 직원이랑 장난도 쳤었는데 그 직원이랑 보민 언니랑 러시아어로 몇 마디 대화 나누더니 언니한테 결혼하자 해서 당황했었다. 근데 영진 오빠가 본인이랑 결혼하자고 하니 직원이 진심으로 싫어했다. 남자끼리 결혼하면 죽을 거라고 할 정도로 거부하는 걸 보며 러시아도 아직 편견이 많나보다 생각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서는 민성 언니랑 (강)현지랑 서경이랑 같이 중국에서 사 온 인스턴트 휘귀를 먹었다. 기차에서도 종일 먹고 잤는데 피곤할 틈도 없이 내려서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눈 떠 있는 내내 입이 쉬지를 앓았다. 그간의 유라시아 ‘식폭행’ 대장정 생활이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예카테린부르크의 첫날의 공식일정은 호텔 도착 후 휴식 및 취침밖에 없었지만, 단원들은 열심히 먹방 일정을 수행해갔다. 대장정의 밤은 어느 시간보다 귀중하기에 하루도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었다.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 유라시아 분기점에 도착하다.

오랜만에 호텔을 쓴 만큼 56시간 동안의 묵은 때를 편안하게 샤워시설에서 씻어내고 아침이 밝았다. 비록 다른 도시들에 비해 짧은 여정인 예카테린부르크지만 그 어느 행사들에 뒤지지 않을 정도 중요해서 별 수십 개는 그려주고 싶은 대망의 날!!! 바로 아시아와 유럽의 분기점을 가는 날이다.

분기점으로 가니 입은 분들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우랄산맥 광산 여왕과 그의 조수 불의 여왕, 그리고 우랄 장정이라고 했다. 그분들은 어느 러시아의 다른 도시들과 다름없이 환영의 의미로 빵과 소금을 주셨다. 블라디보스토크와 이르쿠츠크를 다녀온 단원들은 이제는



유라시아 분기점 횡단 기념식

모두 익숙하게 스바시바를 외치며 소금에 빵을 찍어먹었다. 그리고 대장장이 같은 분께서 분기점 기념주화를 제작하는 곳으로 갔었다. 금색의 딱딱한 것을 틀 안에 넣고 망치로 팡!!하고 강하게 내려찍으니 분기점의 탑이 그려진 기념주화가 나왔다. 다들 뜻밖의 기념품을 소중히 쥐고 다시 행진을 계속하니 중요한 이정표들이 표시된 기둥이 있었다. 그런데 무려 그곳에 우리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예카테린부르크 방문기념 이정표를 박는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대장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고 민간외교사 절단으로서 뭔가 어깨도 으쓱거리졌다. 단원들 모두 빠짐없이 한명씩 나와 망치질을 한번씩 하였고 내 차례가 되어 망치를 쥐었을 때, 그때의 벽찬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우리 되게 중요한 사람인가 봐...’

아침부터 진행됐던 일정이었지만 다들 더욱 힘차진 발걸음으로 유라시아 분기점이 표시된 탑으로 향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 유라시아 분기점에서 남녀 커플 한 쌍이 나와 춤과 노래 공연을 선보이셨고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흥나는 멜로디에 우리도 덩실덩실 몸을 흔들었었다.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 탑 앞에 서서 한쪽 다리는 아시아에, 반대편 다리는 유럽에 두고 보드카를 원샷 했다. 술도 못 먹는 주제에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조금 배웠다고 용감하게 보드카를 들이켰을 때의 그 쓴 맛은 지금 생각해도 표정이 다시 찌푸려진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고 곧바로 러시아 특유의 피클을 입에 집어넣고 난리 블루스를 찾았다. 계속되는 노래에 우리는 다 함께 둥글게 둥글게 같은 춤도 추고 러시아어로 쓰인 방문 기념증서도 받았었다.

“아~ 아시아는 이제 지겹지 않나?”

“그럼 우리 유럽으로 갈까?”

“그래 가자!”

“와아아아-!”

“와! 유럽이다!”

“유럽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이 갤러리를 가득 채운 것도 지금 부산에서 다시 보니 다들 귀여워 보인다. 이렇게 예카테린부르크의 별 다섯 개짜리 일정도 알차게 수행해낸 단원들은 피의 성당으로 이동했다.

예카테린부르크를 떠나기 전 느끼는 여유

버스를 타고 도착한 피의 성당은 무시무시한 이름만 들어서는 새빨간 색인줄 알았는데 의외로 황금 빛 이었다. 성당은 크고 높았고 외관과 내관의 벽화 모두 아름다웠었다. 하지만 러시아 역사와 천주교에 대해 무지했던 터라 그의 명성에 비해 감동을 크게 받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웠다. 역시 어느 유적지를 방문하든 기본적인 공부는 해뒀어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모스크바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장에서 자유 시간도 가졌었다. 여기 저기 산책하면서 예카테린부르크의 분위기를 느끼려 노력했고 어느 터널 같은 곳에서 하는 버스킹도 잠시 앉아서 감상했었다. 그리고 대장정 내내 함께 먹고 자고 하며 서로의 취향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아버린 단원들은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사진도 찍어주며 또 즐거운 추억을 하나 쌓았다. 비록 1박 2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여정의 예카테린부르크였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직접 발로 밟아 횡단하면서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의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고 단원들과 더욱 돈독해졌던 소중한 장소였다.



유럽 - 아시아 분기점 기념행사

22.

러시아판 실리콘밸리 스콜코보를 방문하다



유라시아
협력센터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스콜코보 테크노파크와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의 협조로 러시아판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최대 과학기술혁신단지인 스콜코보를 방문하였다. 스콜코보는 국가가 주도하여 설립된 중요 기관으로서 러시아 정부는 최근 IT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등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기술 혁신 센터 조성을 위해 스콜코보 지역에 연구 중심의 대학과 40여개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1천여 개의 벤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테크노 벨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MIT가 혁신 공과대학인 스콜테크(Skoltech)를 개교하는 등 급속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스콜코보 단지 내 입주 기업과 대학은 각종 세금 감면과 비자 발급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까지 약 500개 이상 기업이 스콜코보 단지에 입성할 예정이다.



스콜코보 방문 기념사진

대장정 단원들은 모스크바 스콜코보를 견학하며 러시아의 IT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또한, 유라시아 협력센터의 제안으로 부산테크노 파크에서 모스크바 스콜코보를 방문하여 부산 테크노파크-스콜코보 테크노 파크 간 공동협력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었다. 부산테크노파크 최종열 원장은 기사 인터뷰에서 이번 MOU체결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부산지역과 러시아 스콜코보 혁신단지 간 다양한 혁신기술 분야에 대해 기업, 대학, 혁신기관들이 서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글로벌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성공적인 글로벌 연계협력을 위하여 부산-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콜코보 입주 기업 설명



부산테크노파크-스콜코보 테크노 파크 공동협력 업무협약서 체결



벤처사업가 세르게이씨의 토크콘서트

다음으로 스콜코보 입주기업인 “Republic” IT기업의 대표인 세르게이 비쉬 빠노브씨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세르게이씨는 QR코드 기반 신체 건강 체크 팔찌를 개발하여 벤처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25살의 나이에 벤처사업가로서 성장하게 된 과정과 신체 건강 체크 팔찌 개발 과정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스콜코보 방문을 통해 부산과 더 많은 IT산업의 교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



스콜코보 안내 동시통역중인 유라시아 협력센터 손희승 대리

23.

부산-모스크바 영화교류



이지연
대학원생

오늘은 2019년 8월 1일. 부산을 떠나 유라시아 대장정을 시작한 지 16일째이며, 모스크바에서 유학생생활을 끝내고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한 지 한 달째이다. 모스크바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익숙한 풍경과 사람들.

오랜만에 한식으로 저녁을 먹고 아지무트 올림픽 호텔로 향했다. 며칠 동안 기차 생활을 하면서 쌓였던 피로와 내일이 마지막 러시아 일정이라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러시아 철도청 관악대 모스크바 역 환송공연



부산-모스크바 영화 교류의 밤

대망의 부산-모스크바 영화교류회가 모스크바 돔키노(영화의 집)에서 진행하였다. 영화 상영 전에 무대공연이 있었는데, 유라시아원정대 공연단의 창작무용(배수민, 신현지, 박혜림, 조아영)과 한국음악(김검지, 이유림)이 무대를 빛내주었다. 그리고 메인 행사인 영화 상영은 러시아 영화로 소련의 유명한 희곡작가인 알렉산드르 밤필로프의 일대기를 그린 '산자나무의 여름'을 상영하였다. 영화 상영 이전에 밤필로프 작가의 일대기가 적힌 글을 읽어보았다.

중학교 선생님이셨던 밤필로프의 어머니는 그의 자아 형성에 큰 영향을 주셨고 그도 일년간 교사로서 일하였다. 필력이 좋아 그는 문예 작가뿐만 아니라 신문사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A. 짜닌이라는 필명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1961년에 첫 산문집인 「우연의 일치」를 출간했다. 그 후 단막극 「창문이 있는 별판 위의 집」을 비롯하여 장막극인 「우월의 이별」(1965년), 「큰아들」(1967), 「오리사냥」(1967), 「천사와 함께 20분」(1970), 「메프

란빠쉬 때문에 생긴 일」(1971), 「출림스크에서 보낸 지난여름」(1972)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이념과 사회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생전에는 모스크바가 아니라 이르쿠츠크 무대에서만 상연되었다. 밤필로프는 안타깝게도 바이칼 강변에서 그가 탄 보트가 전복돼 젊은 나이에 운명하였다. 영화의 배경 시대가 1970년대라 옛 소련 시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고요하면서 우울한 느낌의 영화는 우리에게 친숙하면서 낯설게 느껴졌다. ‘러시아’라는 나라를 알고 보니 영화가 주는 분위기와 메시지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영화의 배경은 러시아의 도시 ‘이르쿠츠크’이다. 내가 1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하며, 3번 이상 방문한 도시라 내게 친숙한 곳이다. 이르쿠츠크는 동시베리아에 있으며 옛날에 죄인이나 정치범의 유형지이기도 했다.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 영화에서 눈이 쌓인 숲속을 거니는 장면을 보니 유학 시절 눈 내리는 날 학교에 갔던 모습이 눈앞에 생생했다. 영화에서 배우들은 유머러스한 대사를 통해 삶의 진실을 풍자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사를 통해 당시의 밤필로프의 이념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GV를 진행 중인 배우 세르게이 가폴루노브

영화상영을 마치고 바로 GV(Guest Visit)행사를 진행하였다. GV(Guest Visit)에 참석한 배우 세르게이 까플루노브(Sergei KAPLUNOV)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소련의 유명한 극작가 알렉산드르 밤벨로프의 문학 인생 동반자였던 니콜라이 룩츠브(Nikolay BUBTSOV)역을 맡았다. 진양현 팀장님께서 이해하지 못한 영화 속 장면에 대해 질문하셨고 그는 영화에서 보여 주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좋은 연기를 보여 주신 배우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우리 대원들이 이르쿠츠크 도시를 방문하였고 특히 바이칼호수에서 머무르면서 영화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았다고 전하였다. 앞으로 영화의 도시인 부산과 모스크바 간의 영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양 도시 간의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4박 25일간 진행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그동안 멀게 느껴졌던 국제 문제에 좀 더 관심을 두게 되었고 부산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희망의 길, 하나의 길, 통일의 길’이라는 슬로건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통일의 당위성을 체감하고 민간외교관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는 기회였다. 낙오자 없이 무사히 일정을 마친 우리 대원들, 진행을 위해 애쓰신 운영진,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함께 해주신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기간에 배우고 느낀 것들을 인생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다짐한다.

24.

부산 - 모스크바 영화교류



이창희
(주)인타운 대표

유라시아 횡단 열차에 꿈과 설렘을 싣다.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아침이다. 어제는 25일간의 여정을 위해 이것저것 짐을 싸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잠을 청했다. 여행 전날은 보통 잠을 설치는데 폭 잤다. 아마 유라시아원정대 운영진이 모든 것을 꼼꼼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였던가 보다. 출발 당일 아침 나는 이미 유라시아 횡단 열차에 몸을 싣고 있었다.



출정식 때 부산 - 베를린 열차

드디어 모스크바에 입성하다.

오늘은 2019년 8월 1일. 부산을 떠나 유라시아 대장정을 한 지 벌써 16일째다. 어제 모스크바 야로슬라브스키역에 도착하여 오랜만에 한식을 먹었다. 꿀맛 그 자체였다. 웬만하면 다른 나라 음식도 잘 먹는데 그동안 워낙 러시아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저녁 식사를 하고 아지무트 올림픽호텔에 짐을 풀었다. 이번 룸메이트는 원정대 홍보팀이면서 유라시아 원정대 전속 사진사(?)인 김정원 대원과 이틀 밤을 지내게 되었다.

참! 늦었지만 모두 정원에게 박수를 “짜짜짜” 왜냐하면, 하루 일정 마치고 나서 엄청 피곤할 텐데 숙소에서 들어와 밤새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편집하고 정리하고 업로드 한 후에야 잠을 자더라. 둘째 날은 대원들을 위해 밤을 꼬박 세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였다.

스콜코보에 가다.



스콜코보 과학기술 센터

오전에 스킨코보 과학기술 혁신 단지를 견학하고 부산발전연구원과 스킨코보 과학기술 센터와 상호 간의 MOU 체결식에 참석하고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하여 간담회를 했다.

부산 - 모스크바 영화 교류의 밤

오후에는 대망의 부산-모스크바 영화교류회가 모스크바 돔키노(영화의 집)에서 진행하였다. 영화상영 전에 무대공연이 있었는데, 유라시아 원정대 공연단의 창작무용(배수민, 신현지, 박혜림, 조아영)과 한국음악(김검지, 이유립)의 공연에 100여 명의 러시아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메인 행사인 영화상영은 러시아 영화로 알렉산드르 밤벨로프의 일대기를 그린 ‘산자나무의 여름’을 상영하였으며, 작년 유라시아 원정대 3기 때는 모스크바 돔키노 볼쇼이 홀에서 우리 여정의 중간 종착지인 이르쿠츠크에서 상영한 한국 영화 ‘리틀 포레스트’(임순례 감독)를 상영하였고 영화상영에 앞서 대장정 무용단원과 현지 K-POP 댄스팀 ‘봄베리’의 공연 및 전통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한국-부산관련 퀴즈타임, 포토존 등의 행사를 하였다고 한다.

모스크바는 부산과 같이 국제영화제로 매우 유명하며 모스크바에서는 매년 늦은 봄에 모스크바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며 이태리 베니스 영화제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영화제에서는 배우나 감독 등의 영화 관계자가 입장 할 때 레드카펫이 깔리는데 여기는 블루카펫이 깔리는 게 특징이다.

모스크바영화제는 1935년 제1회 모스크바영화제가 개최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영화제가 열리지 못하고 195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되었다가 동구권이 몰락한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모스크바영화제는 41회째 개최되었다. 모스크바영화제는 한국영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으며 제16회(1989년) 모스크바영화제에서 배우 강수연이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고, 제20회(1993년) 모스크바영화제에서 배우 이덕화가 ‘살어리랏다’로 남우주연상을 수상, 제39회 모스크바영화제에서 배우 손현주가 ‘보통 사람’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영화와도 매우 인연이 깊은 영화제이다.

산자나무의 여름

이번에 상영한 영화 ‘산자나무의 여름’은 소련의 유명한 희곡작가인 알렉산드르 밤벨로프(Aleksandr VAMDILOV, 1937-1972)의 이야기를 소련 시절 이르쿠츠크의 목가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그의 일대기를 담은 작품이다.

알렉산드르 밤벨로프는 1937년 8월 19일 바이칼호수의 주변 마을에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브라프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알렉산드르라는 이름은 밤벨로프를 낳기 전에 아버지가 작가들과 대화하는 태몽을 꾸었기 때문에 위대한 작가가 되라는 의미로 푸슈킨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밤벨로프는 1960년 이르쿠츠크 대학 인문학부를 마친 뒤 신문사 기자 생활을 하면서 35세의 나이로 요절하기까지 거의 이르쿠츠크에서 살았다. 그는 A. 싸닌이라는 필명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1961년에 첫 산문집인 「우연의 일치」를 출간했다. 그 후 단막극 「창문이 있는 별판 위의 집」을 비롯하여 장막극인 「유월의 이별」(1965년), 「큰아들」(1967), 「오리사냥」(1967), 「천사와 함께 20분」(1970), 「메프란빠쉬 때문에 생긴 일」(1971), 「출립스크에서 보낸 지난 여름」(1972)을 발표했다. 청년 시절 밤벨로프는 고리끼 문학 대학에서 공부하며 당시의 영향력 있는 작가인 로조프와 아르부조프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의 작품은 이데올로기와 사회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생전에는 모스크바가 아니라 이르쿠츠크 무대에서만 상연되었다. 밤벨로프는 바이칼호에서 친구들과 낚시를 하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고 자신은 친구 대신 물에 빠져 35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는데 천재적인 희곡작가로서 그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그의 단편들은 유머의 옷을 입고 전혀 유머스럽지 않은 삶의 진실을 보여준다. 작품 속에 담긴 진실은 허위와 위트와 충돌한다. 소설 속의 희극성은 바로 등장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이렇듯 인간 내면의 단순성을 포착하는 밤벨로프의 시선은 풍자적이거나 오�히려 잔인하면서도 예리하다.

“산자나무의 여름”에서 보듯이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현대인들의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삶과 영혼의 이중성을 보여 주고 또 다른 삶과 영혼을 고민하게 한다.

영화상영을 마치고 바로 GV(Guest Visit)행사를 진행하였다. GV는 일반 영화상영에서는 하지 않는 행사인데 특별히 주최 측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다.

GV(Guest Visit)에 참석한 배우 세르게이 까플루노브(Sergei KAPLUNOV)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소련의 유명한 극작가 알렉산드르 밤벨로프의 문학인생 동반자였던 니콜라이 뭉츠브(Nikolay BUBTSOV)역을 맡은 러시아의 유명 배우이다. 그는 영화에서 표현하지 못 하였던 숨은 이야기와 러시아 영화의 특징 등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영화상영 후

전문가팀의 진양현 팀장님과 통역팀 이지연 대원과 전문가팀 이창희 대원이 영화 속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 영화의 번역을 우리 원정대 운영을 하였던 손희승 대리가 번역과 자막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영화 번역은 일반 번역이나 통역과 달리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인 것으로 안다.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품 때문에 번역과 자막하시는 분들과 업무 협의와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어려움을 알고 있다. 대단한 손희승 대리에게 박수를 “ 짹짹 ” 앞으로 영화의 도시인 부산과 모스크바간의 영화 교류가 양 도시 간의 국제영화제를 통하여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번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을 다녀오면서 느낀 짧은 소회를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간의 담화문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남과 북은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더 나아가 유라시아 원정대가 다녀온 부산에서 출발하여 평양, 신의주와 나진 등을 거쳐 베를린까지 유라시아 횡단 열차가 다닐 수 있기를 바라며 남·북·유라시아 횡단철도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복원하는 것이라 본다. 다만, 과거에는 철도가 식민지 수탈의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남과 북 그리고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2019년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에 참여하신 모든 대원 여러분들에게 25일간 함께 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파이팅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시베리아열차 횡단 중 간이역에서 러시아 군인들과 한컷

25.

다채로웠던 바르샤바행 열차



강현지
대학생

화려한 환송식을 뒤로하고 떠난 모스크바

마지막 장기 열차에 탑승하러 모스크바에 있는 9개의 기차역 중 우리는 벨라루스로 향했다. 짐 검사를 끝내고 역내로 들어오니 유라시아 원정대를 위한 환송식이 준비되어있었다. 러시아 철도청 관악대가 러시아 전통 민요뿐 아니라 부산을 대표하는 곡인 '부산 찬가'를 연주해 다시 한번 나의 고향인 부산을 떠올리게 해주었다. 흥겨운 음악 소리에 러시아 시민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함께 춤을 추며 즐겼다. 악단의 연주 후에는 주러한국대사님과 단장님의 격려 말씀으로 우리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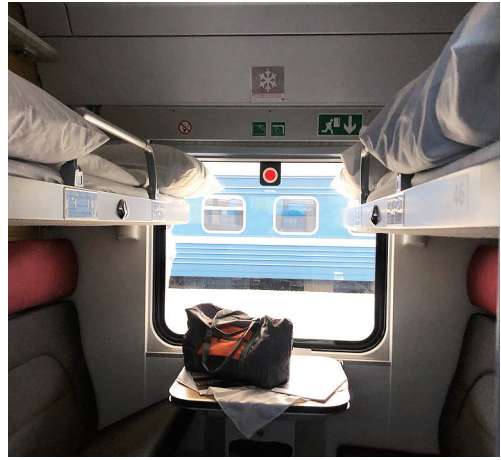
모스크바 환송식

기차 안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

즐거웠던 환송식을 마치고 열차에 탑승했을 때 우리는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다. 4인 1실의 칸마다 온도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었고, 세면대도 각각 비치되어 있어 간단한 양치까지 칸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객차마다 샤워실까지 갖춰져 있었기에 앞서 탄 노후화된 기차들과 확연히 다른 최신식의 기차 시설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모스크바를 떠나니 우리의 여정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었다. 하지만 준비해왔던 보드게임과 틀린 그림 찾기 등 준비해온 놀이로 대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기차에 탑승한 지 3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우리는 바즈마역에 잠시 내릴 수 있었다. 육교를 건너야만 상점을 갈 수 있었는데 다리를 다친 은지 언니를 위해 동갑내기 친구인 진호 오빠가 언니의 다리가 되어주었다. 덕분에 언니는 다치지 않고 기차에 잘 돌아올 수 있었고 대원들의 끈끈함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다리를 다친 단원을 도와주는 모습



3

“부산발 유럽행 대륙열차 시대”
준비의 시작

26.

바베큐와 음악으로 즐거웠던 부산, 바르샤바 시민 교류의 장



강보민
대학생

모스크바역에서 환송식 이후 열차를 타고 바르샤바로 넘어왔다. 바르샤바는 폴란드의 수도로 지금까지 있었던 러시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러시아보다 날씨가 훨씬 따듯하고 온화했다. 역에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아침 식사를 한 이후에 옆에 있는 빌라노프 궁전을 갔다. 이곳에서 폴란드의 역사에 관해서 설명도 듣고 사진도 찍은 이후에 숙소로 이동했다. 호텔에서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점심을 먹으러 갔다. 점심 식사를 한 이후, 와젠키 공원으로 가는 팀과 바르샤바 친선 교류 행사를 준비하러 가는 팀으로 나뉘어서 버스를 탔다. 나는 통역팀, 안전지원팀 몇 명과 무용단과 함께 바르샤바 친선 행사 준비를 먼저 하러 갔다.

한국 폴란드 친선교류 바베큐 행사가 진행될 장소는 바르샤바에 있는 한 초등학교였고, 작고 아늑한 곳이었다. 이곳의 야외 운동장에서 행사가 진행되어서, 우리는 현수막 부착, 의자 세팅 등을 하였고, 부산을 소개하는 배너도 한쪽에 설치했다. 또한, 부산을 소개하

는 팸플릿,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을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길을 따라왔는지 설명하는 팸플릿 등도 준비했다. 이렇게 분주하게 행사 시설을 설치하는 동안 무용단은 무대 리허설을 하며 무대를 준비했다. 그동안 운동장, 행사가 진행될 곳에서는 통돼지 바베큐가 구워지고 있었고, 음향시설 등도 설치되고 있었다. 얼마 있지 않아, 폴란드의 공연팀도 도착했다. 폴란드 K-POP 댄스 동아리 ‘어머나’ 소속 친구들이 와서 리허설을 하며 곧 있을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 시작 시간인 4시 반쯤이 되어가자, 폴란드 시민들과 한인들로 학교 운동장이 북적거리며 유라시아 대장정 단원들도 도착해서 행사 준비를 돕기 시작했다. 곧 시간이 되자, 도용회 단장님의 인사를 시작으로, 행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고, 계속해서 폴란드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제일 먼저 우리 공연단의 이유림 대원과 김검지 선생님의 장구와 대금 음악 공연이 있었다. 그 이후, 몸이 안 좋아 무대를 하지 못한 배수민 대원 이외의 신현지, 박혜림, 조아영 대원들이 트와이스의 ‘Fancy’, ITCY의 ‘달라달라’ 무대를 선보였다. 유라시아 대원들의 무대가 다 끝난 이후, 폴란드 K-POP 동아리 ‘어머나’에서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등의 커버 댄스를 보여줬다. 유럽에서 이렇게 한국 노래와 문화가 인기를 끈다는 것을 뉴스에서 보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폴란드 친구들이 무대를 하고, 관객들이 따라 부르면서 무대를 즐기는 것을 보니 새삼 뿌듯하기도 하고 놀라운 마음이 들었다.



폴란드 K-POP댄스팀 공연

한국과 폴란드, 각 나라의 대표팀 무대가 끝나고, 폴란드에 사는 한인 친구의 자작 랩 무대도 있었다. 랩 무대가 끝난 이후, 게임을 통해 더욱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게임은 유예송 대원과 통역하시는 분이 짝을 이루어서 진행됐다. 이 게임은 주로 폴란드와 부산에 대한 기본 상식에 대한 것들이었기에, 이 게임을 통해 더 친해질 수 있었으며, 서로의 도시와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게임 승리 상품으로는 한국에서부터 준비해 온 트와이스 방탄소년단 등의 K-POP 아이돌 그룹의 굿즈가 준비되어있었다. 폴란드에서는 구하기 힘든 것들이라 그런지, 폴란드 친구들이 게임에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게임을 이겨서 상품을 타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뿌듯했다.

게임까지 다 끝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바베큐 식사 시간이 시작됐다. 이 행사만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다는 이 바베큐는 김치, 된장 등 한국적인 반찬들과 함께 나왔고, 맥주와 음료를 마시며 한국과 폴란드 친구들이 운동장에 모두 섞여 앉아서 식사 시간을 가졌다. 땀을 흘리며 야외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나서 먹는 거라 그런지 바베큐가 정말 맛있었다. 폴란드 친구들이 식사 시간 동안의 노래를 직접 선곡해서 틀었는데, 한국에 사는 우리도 잊고 있었거나 잘 모르는 정말 옛날 아이돌 노래가 나오기도 해서



폴란드 바베큐 시민 교류



폴란드 선미라 대사님과 함께

놀라곤 했다. 같이 바비큐도 먹고, K-POP과 한국이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짧은 시간 동안 폴란드 친구들과 정말로 가까워졌다.

이야기하다가 보니 알게 된 사실인데, 이 행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폴란드 친구들은 폴란드 K-POP 동아리 ‘어머나’에 소속된 사람들과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동아리원들의 친구들이었다. 다들 원래는 공통점도 하나도 없었고, 연령대로 십 대부터 삼십 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오직 K-POP을 좋아한다는 공통분모로 친해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중 기억에 남는 친구 중 한 명은 좋아하는 가수를 조성모로 꼽았고, 조성모가 예전에 추던 춤도 보여줬다. 우리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세대의 가수를 좋아해 주고, 그 무대를 다시 보고 있는 친구가 폴란드에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고, 문화의 힘이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 외의 친구들도 다들 K-POP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 알게 되고 점점 K-POP 이외의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경우가 많았다. 대화를 해보니 대다수 친구는 한국을 좋아하게 되어 한국 방문 경험도 있었고, 이미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는 경우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 가사나 한국 방송을 더 잘 이

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한 친구도 몇몇 있었다. 몇몇은 한국어가 꽤 유창했고, 어떤 친구는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우리에게 직접 한국말을 하는 걸 부끄러워했는데, 행사가 다 끝나갈 때에는 용기 내서 서툴지만 한국어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또, 폴란드에는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레스토랑은 어디가 유명한지, 구경할 곳은 어디가 있는지, 유명한 관광 상품은 뭐가 있는지 등등 추천해주기도 했다.

식사하며 폴란드 친구들과 친해지는 중에 선미라 폴란드 대사님께서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직접 오셨다. 지금까지 만난 대사님과는 달리 여성분이셔서 더욱 반가웠다. 우리에게 오셔서 폴란드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폴란드는 어떤 나라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부산에서부터 먼 길 떠나온 우리에게 응원도 해 주셔서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이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을 때, 원래 7시까지로 약속된 공식적인 행사 시간이 끝이 나고 헤어져야 할 때가 왔다. 이미 폴란드 친구들과 아주 친해져서 아쉬운 마음에 함께 버스를 타고 가서 숙소 근처에서 2차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참석하지 못하고 한정된 인원만 호텔 앞에 있는 바에서 2차를 가졌다. 간단하게 맥주를 마신 뒤 폴란드의 구시가지에 가서 폴란드 친구들이 폴란드에 관해 소개도 해주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폴란드 구경을 시켜줬다고 한다. 나와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고받으며 다음에 그 친구들이 부산을 방문하거나, 내가 폴란드를 다시 방문하면 연락하기로 약속을 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친선 행사 덕분에 한국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짧은 시간 내에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다. 또한, 폴란드에 대해서 재밌게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폴란드 친구들을 통해서 폴란드인 사이에서 유명한 음식점이나 음식을 접할 수 있어서 로컬들이 즐기는 폴란드를 공식 일정 이후에 즐길 수 있었다.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폴란드 친구들도 행사를 즐겁게 참여한 것만큼, 한국 폴란드 친선교류 행사가 이번에만 단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에서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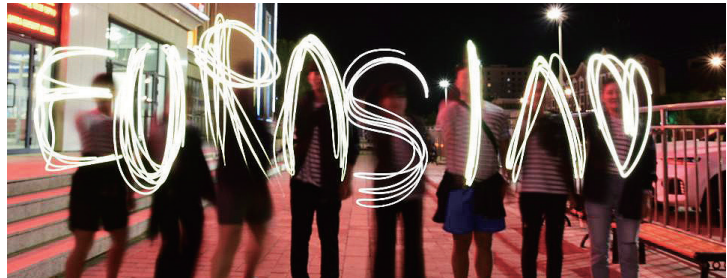
먼 나라 바르샤바에서 친구 사귀기



황수민
대학생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열차는 달리고 달려 우리를 바르샤바까지 무사히 데려다주었다. 짧지만은 않은 56시간 동안 그새 또 열차 생활에 익숙해졌는지, 아니면 샤워실까지 있던 시설이 좋은 마지막 장기 열차여서 그런지 더더욱 내리기가 싫었다.

그렇지만 폴란드에서의 새로운 여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 없이 재빨리 짐을 챙겨 내렸다. 벌써 한국을 떠난 지 18일이 넘었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유라시아 시민대장은 막바지를 달리고 있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하고 주변을 둘러본 후에 호텔 체크인을 하러 갔다.



기차역을 정차하며



바르샤바 구시가지



바르샤바 - 베를린 기차 탑승

나는 통역지원팀

그 후의 일정으로는 문화탐방으로 원래라면 와젠키 공원을 가는 것이었지만 나는 통역지원팀이었기 때문에 몇몇 행사지원팀, 공연 팀과 함께 부산 & 바르샤바 시민 문화교류가 있는 곳으로 미리 가서 준비를 도와야 했다. 아쉽지만 나는 이곳에 놀러 온 것이 아닌 민간의 교사절단임과 동시에 통역지원팀으로 온 것임을 나 자신에게 다시 상기시켰다.

행사가 열리는 학교에서는 준비가 한창이었다. 나도 얼른 가서 이 행사가 무엇인지 알리는 거대한 현수막을 거는 것을 도와주고 부산을 홍보하는 팸플릿을 배치했다. 그리고 잠시 언니들과 주변을 돌아다니고 바비큐 파티를 위해 구워지고 있는 돼지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행사 참여자들이 한 명, 두 명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이번 행사 때는 나만의 목표가 있었는데 바로 '명함 나눠주기였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을 떠나기 전 우리는 각자 제작된 명함을 뭉텅이로 받았는데 거의 모든 일정에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나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소개와 함께 명함을 나눠드렸다. 하지만 그래도 명함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마침 이번 바르샤바 시민교류 행사가 명함을 나눠주기에 적절해 보였다. 과연 이번 행사가 끝나기 전까지 명함을 얼마나 나눠드렸을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챙겨갈 분이 몇 분이나 될지는 미지수였지만 그래도 나눠드리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한국무용, 음악팀의 공연과 바르샤바 시민들의 공연을 선보이는 시간이 있었다.

제일 먼저 행사장에 도착한 사람은 ‘어머나’ 팀의 일원으로 오늘 행사에서 K-POP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우리 영어 통역지원팀은 모든 준비를 끝내고 지루해지려던 찰나에 등장한 ‘어머나’팀을 보고 바로 달려가서 우리를 소개했다. 우리의 소개와 함께 주머니에 챙겨왔던 두툼한 명함들이 생각났고 명함을 나눠주며 “Hi, how are you what’s your name?”부터 시작한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 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슨 공연을 할 것인지, 많고 많은 춤 중 K-POP을 추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 많은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고 나니 벌써 주위에 많은 사람이 도착해 있었다.

어머나 팀은 공연 준비를 위해 보내주고 우리는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하기 전 대화할 상대를 물색했다. 명칭이 ‘통역지원팀’이기 때문에 통역은 당연히 우리 몫이었지만 돌아다니며 어색함을 풀고 이번 행사를 소개하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저 멀리 탁구대에 앉아있던 남자 두 명이 보였고 우리는 이때다 싶어 그 둘에게 다가갔다. 혹시나 우리를 불편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소개한 후 같이 얘기를 해도 괜찮은지 물어보고 대화에 참여했다. 이들은 오늘 공연할 사람의 친구로 초대를 받아서 왔다고 했다. 이 두 명이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오늘 행사에 온 마지막 남자 손님들이었다.



폴란드 K-POP 댄스팀 “어머나”와의 교류

시차 8시간 차이나는 곳에서 친구 사귀기

열심히 돌아다니며 얘기를 하다 보니 행사가 시작될 시간이 되었고 우리는 자리에 앉은 후 멋있는 춤, 노래 등 공연을 보며 그 시간을 각자 나름대로 즐겼다. 이어지는 퀴즈 시간에는 O/X 퀴즈를 통해 상품을 얻어갔는데 우리의 단체복인 험찬 받은 팬콧 티셔츠, 유라시아 바람막이, K-POP 관련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퀴즈가 끝난 후 행사가 무르익어갈 때쯤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비큐 시간이 찾아왔다. 공연을 보는 내내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정수리가 뜨거웠는데 다행히 바비큐 시간이 되니 그늘이 많이 보였다. 국적 불문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다들 행복한 얼굴을 숨길 수 없어 하는 것 같았다. 바비큐, 수박, 김치, 음료수 등 푸짐하게 준비된 음식을 차례대로 받아서 자리에 앉은 후 우리는 그날 처음 만난 바르샤바 시민, 바르샤바까지 함께 달려온 유라시아 대장정 단원들과 함께 즐겁게 얘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었다. 원래도 맛있는 음식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니 배로 맛있었다.

나는 최대한 많은 사람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며 얘기를 나눴다. 폴란드에서 꼭 사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추천도 받고 정말 달고 맛있는 사탕 같아서 계속 들어간다는 폴란드에서만 파는 보드카도 추천받았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영어통역팀이었기 때문에 언어적인 측면에서 대화하기 더 수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물론 영어가 대화의 주된 언어이긴 했지만 놀랍게도 한국말을 정말 능숙하게 하는 바르샤바 친구들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었는데 이 점 덕분에 부산과 바르샤바 시민들 간의 문화교류가 더 잘 이뤄질 수 있던 것 같다. 행사가 막바지에 다다를 때쯤 선미라 주 폴란드 대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인사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대사님과 얘기를 나눌 수 있던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언제 또 나를 대사님께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겠는가?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을 하면서 평생 한 번 경험해볼까 말까한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해본 것 같다. 나는 네 명밖에 뽑지 않는 학교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최종 합격 문자가 오기 전까지 마음을 편히 먹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 합격했고 물론 매우 기뻐다. 그런데도 막상 출국할 날이 되니 집을 한 달 동안 떠나 열차를 무려

최대 56시간이나 타며 정말 말 그대로 대장정인 이 일정들을 내가 무사히 해낼 수 있겠냐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오기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바르샤바 시민교류도 물론이거니와 여태 지나온 일정들은 다 미래의 내게 피와 살이 될 아주 유익한 경험이었다.

아쉽지만 오늘 만남은 여기까지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시민교류 행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다 함께 모여 단체 사진을 찍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서로 번호를 교환하며 헤어졌다. 짧은 시간 안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 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다들 흥도 많고 한국에 관심도 많은 친구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유럽이라고 하면 나는 보통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먼저 떠올렸다. 폴란드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물론 알았지만 큰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장정 일정 중 폴란드가 있었고 이곳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나니 폴란드라는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Do widzenia Polska (잘 가, 폴란드!)



폴란드 시민교류 행사

28.

유라시아 길의 길잡이, LG전자 무와바 법인



신보람
대학생

처음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유라시아 대장정 열차를 타면서 나는 이 대장정의 목적을 다시 한번 곱씹었다. 기차를 타고서 부산에서 출발해 독일까지 가는 동안 어떤 역할을 다해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도움이 될까 고민했었다. 이번으로 4회째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에는 이루어야 할 여러 과제가 있었다. 그중 내가 꼽은 중심 과제는 부산을 홍보하고 유라시아 지역 도시들과의 협력, 대화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생각했을 때, 이미 한국을 알고 있고, 한국 기업으로써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기업에 방문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정이었다.

폴란드 바르샤바는 처음 가본 나라이자 도시였다. 폴란드까지 가는 횡단 열차가 너무 쾌적하고 샤워시설까지 갖춰진 시설이 좋은 열차여서 새로운 도시로 가는 데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무와바 LG 기업은 폴란드에서의 마지막 일정이었다. 4차산업을 실현하

고 있는 기업을 방문하기 전 그 기업이 상주해 있는 도시를 둘러보고 역사를 들여다보고, 문화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폴란드에서 첫날은 폴란드 바르샤바 주민들과 친선의 시간을 가졌다. 친선의 시간 동안 나는 행사장 주변에 살고 있는데 행사 소리를 듣고 행사장을 구경하러 나온 주민과 얘기를 나누었다. 아이와 함께 행사장을 방문한 여성이었는데, 자신은 K-POP이 어떤 음악인지 전혀 모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고, 어린 딸은 한국 노래를 매우 사랑하고 특히 춤을 따라 추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는데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 중에 한국 기업의 것이 있다고 했고,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세대에 잘 모를 수 있지만, 한류에 관한 관심과 사랑이 현재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볼 수 있어서 기뻐했다. 두 번째 날에는 바르샤바 도시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폴란드의 랜드마크와 대학, 역사적 장소들을 둘러보았다. 특히 건물 벽 곳곳에 설치되어있는 해시계를 보고 자연 친화적인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도시에서 느낀 정겨움이나 따뜻함. 그리고 고즈넉함 덕분에 이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기업 직원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지내고 있겠다는 안심을 할 수 있었다. 폴란드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LG의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무와바의 LG 기업 방문이었다.



바르샤바 게토 영웅비 앞에서

LG전자는 2018년 유럽 올레드 TV 시장에서 58.3%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1분기에는 점유율 62.1%로 시장 지배력이 더욱 커졌다. LG전자는 최대 시장인 유럽 수요를 예상하고 폴란드 무와바에 세계 최대 올레드 TV 생산거점을 구축했었다. 한국 구미를 비롯해 러시아 루자, 멕시코 레이노사 등 글로벌 생산거점 9곳에서 올레드 TV를 생산한다. LG전자가 OLED TV를 중심으로 유럽 시장에서 지배력을 끌어올리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20년 전 계획했던 유럽 생산거점 설립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LG전자는 1999년 폴란드 무와바에 TV 생산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을 통해 전 유럽지역에 판매하는 TV를 현지 시장 수요에 맞춰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공급망 관리를 구축했다. LG전자는 폴란드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하나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실제 폴란드 무와바는 시 이름을 '무와바-LG타운'으로 변경하고, 시 입구에서 LG전자 공장으로 이어지는 도로 이름도 'LG 거리'로 공식 지정했다. 당시 마렉 폴(MAREK POL) 폴란드 부총리는 "폴란드 정부는 개방 초기에 진출한 LG전자가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며 "또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도 돈독히 하고 있어 폴란드 무와바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최영규 LG전자 폴란드 법인장은 "명칭변경으로 무와바 시민들은 호적까지 변경해야 하지만, 시에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번거로운 작업을 수행할 만큼 무와바 시는 자신들의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LG전자를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그리고 지역 친화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말 그대로 국위 선양을 하는 기업을 방문하니 뿌듯하고 보람찼다.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유럽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TV 본체와 같은 기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서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유럽 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무와바 시가 생산한 LG 올레드 TV가 소비량 1위라는 것이 놀라운 도시였다.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기업에서 다른 의미로 놀란 점이 있다. 무엇보다 TV 본체를 조립하고, 제작하고, 연구하고, 상자 포장하는 것까지 직접 손으로 하는 근로자들을 보는 것이 신기했다. 전자제품 생산 기업의 생산 라인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 처음일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소비량을 이 사람들이 감당해 낸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었다. 해외 기업지사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는 직원분들을 보며 해외에 지사를 두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근무하는 것이

다른 나라 문화를 배우고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여태껏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에 방문해 본 경험은 없었다. 이번이 폴란드에 방문한 것도 처음이었고,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방문한 것도 처음이었다. 무슨 일을 하거나 경험함에 있어 첫 번째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이번 LG전자 무와바 법인을 방문한 것은 나에게 특히 인상적이었다. 해외로 진출하는 시각을 넓혀주었고, 해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피부로 느끼게 했다. 해외에 나가게 되면 애국심이 더욱 깊어지는 법인데 해외에 나와서 한국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 한국의 기업을 보니 깊어진 애국심이 더 진해진 걸 느꼈다. 심지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유럽’이라는 대륙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하니, 해외에서 외국 친구들이 한류를 좋아한다고 하거나, K-POP을 즐겨 듣는다고 했을 때와 다른 기쁜 느낌을 받았다. 한류 문화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외국 친구들에게서는 그들이 좋아해 줘서 더 좋은 느낌이었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좋아해야만 하는 그런 압도적인 느낌이었다. 이런 말랑말랑하고도 기분 좋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기업이 있어 든든하다고 생각했다.



LG무와바 법인 입구 앞에서

29.

유럽에서도 통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전자제품



장지원
대학생

대한민국의 기업 LG의 폴란드 바르샤바 법인을 방문한 목적은 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을 견학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물류, 경제적으로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버스를 조금 긴 시간 타고 LG 전자 폴란드 법인에 도착하였다.



LG 무와바의 대장정 환영 문구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었던 것은 'Be First, Do it Right, Work Smart!'라고 쓰여 있는 LG의 로고였다. 첫 번째로 올바르게 똑똑하게 일하자는 의미였다. LG의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문구였다.

LG전자 무와바 법인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단원들을 환영 해주는 화면을 띄워주고 계셨다. 무척이나 감사했다.

LG 전자 폴란드 법인은 여느 회사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철저하였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간단히 각자의 소지품 검사를 했고, 빨강고 조그마한 스티커를 핸드폰 카메라에 붙이게 하였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는 사진을 아예 찍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웠지만, 보안규칙을 지켜야 하므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보안검사와 스티커 분배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먼저, LG전자 폴란드 법인장과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단장님인 도용희 단장님의 환영 인사 말씀이 있었다. LG전자 폴란드 법인장은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고, 앞으로의 일정도 힘내서 하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장정 단장님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후에 LG전자 직원분께서 기업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었다. LG전자 폴란드 법인은 TV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에 다양한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LG 제품은 값도 합리적이고 제품의 질도 좋아 많은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고 구매한다고 하였다.



LG 무와바 공장

그 후에 산업시설, 생산 라인 견학을 시작하였다. 견학을 좀 더 수월하게 하려고 두 개 조로 나누어 견학했다. 첫 번째 조의 라인 투어 및 쇼룸 견학은 생산을 주관하고 계신 김호중 실장님께서 진행해 주셨고, 두 번째 조는 R&D를 주관하고 계신 홍영호 책임님께서 진행해 주셨다. 먼저 TV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TV 하나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쳤다. 설명해 주시는 분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폴란드 LG법인에서는 한국인들도 일하고 있지만, 생산 라인에서는 주로 폴란드인들이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산라인 견학을 마치고 쇼룸에 가서 완성된 TV를 보았다. TV의 종류도 만드는 방식과 화면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유라시아 대원들이 의미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LG직원들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었다. 마지막으로는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LG직원들이 준비한 컵을 대장정 단원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누어 주었다.

배경지식에 관한 부분은 사실 LG라는 기업은 당연히 알고 있었고, LG의 TV나 노트북은 이용해 보았지만, 자세한 배경지식은 부족했다. 이모부께서 LG화학에서 일하셔서 가기 전에 미리 여쭙어보았는데, 아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놀랐다. LG전자 폴란드 법인을 방문한 뒤 느낀 점은 우리나라 기업인 LG가 유럽 TV 시장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럽고 놀라웠다.

모든 활동을 마치고 밖의 모습은 촬영할 수 있었다.

30.

스마트시티 혁신단지
아들러스 호프 산업시찰

김영진
대학생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차를 몇 시간 동안 타고 독일 베를린에 드디어 도착하였다. 독일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낄까에 또 다른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나라마다 이 나라에선 어떤 것을 보고 싶고, 어떤 감정을 느낄까 미리 약간의 준비? 를 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몽골에 가는 길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선 넓은 초원과 맑은 밤하늘이 있으니, 초원에서 걸으면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싶다거나 그리고 게르에서의 몽골 현지인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싶다 등 이런 준비? 를 한다. 물론 개인적인 시간이 주어졌을 때의 상황이다. 독일 또한 동일하다. 내 머릿속에서 독일이라는 나라 하면 뭐가 가장 생각나고 무엇을 느끼고 싶은가? 독일 베를린에 가는 동안 혼자 질문을 해보았다. 제일 첫째로 생각나는 건 독일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다. 이 사람들이 무엇이 독일이라는 나라를 세계인이 모두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칭할까가 내가 알고 싶은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복지, 기술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나라이다. 물론 짧은 시간 독일에 머무른다고 한 나라의 그런 요소들을 모두 파악하기는 힘들다. 허나 여정 내에 독일 사람들과의 교류, 독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니 확실히 독일이라는 나라가 여러모로 성숙한 것은 맞는 것 같다. 행복해 보이는 표정, 가족,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의 표정, 외국인에 대한 열린 마인드와 관광객들이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문화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풍부했던 것 같다.

또 마침, 다음 날 베를린 내의 스마트 산업 과학 혁신단지를 방문 한다고 하여 굉장히 기대가 컸었다. 왜냐하면 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스킨코보 혁신단지를 방문하고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아서 독일에 기술혁신단지는 어떨까 하는 기대가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스마트시티는 도시화에 따른 비효율을 자연 친화적 기술로 극복하는 ‘융 복합형 지속 가능 도시’이다. 빅 데이터, 인공지능(AI), 자율 주행 등의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스마트한 생활이 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스마트 기술의 구현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시티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 즉 도시 인프라, 지식정보, 인적자원, 관련 기업 등에 투자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해외 연구 결과, 스마트시티에 살면 연간 125시간을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고 이동성, 공공안전, 생산성, 건강관리 분야에서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28개가량인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2030년에는 41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스마트시티로의 전환



스킨코보 직원분들

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으며, 스마트 시장의 규모 또한 2020년 1조 5,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모스크바, 베를린 스마트혁신산업 단지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은 기업이든, 사람이든 모두 효율성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빅 데이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모든 기술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 탄생한 기술들이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물건에 지갑을 여는지는 효율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효율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의 주관적인 경험과 관점으로 비교를 해보면, 모스크바 스콜코보 스마트 산업단지는 거리의 효율성을 많이 강조한 듯 보였다. 실제로 스콜코보 산업단지는 세계에서 가장 땅이 큰 러시아 전역에 있는 약 500여 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이다. 상주해있는 기업들 중 비즈니스가 서로 연관이 있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끼리 기업체에서 바로 매칭이 용이하고 서로 조언도 해줄 수 있어 보였다. 그 부분이 회사 입장에서선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또, 단지 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스마트운동기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 음식 코너 등. 단지 내에 모든 것이 있어 직원들은 걸어가거나 휴대용 키보드로 이동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근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있었다.

그에 반해 베를린의 스마트혁신 단지는 자연에서 오는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개발을 많이 한 것 같았다. 단지 입구 내에 태양광 패널이 엄청나게 많이 배치되어있었다. 마치 태양광



러시아 스콜코보 스마트 산업시티 견학

패널이 스마트 단지라는 모토의 심볼을 나타내는 것처럼 인테리어의 역할도 하면서 이색적이었다. 또, 계단을 올라가면서 단지 옥상에 온통 다 잔디를 깔아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조금은 이색적이어서 옥상에 잔디를 무슨 이유로 깔아 놓았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았다. 답변은 놀라웠다. 독일도 그 당시에는 꽤 더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건물의 구조물이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고, 건물 기온이 올라가면, 건물의 부패도가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면 에어컨을 켜는 세기가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다. 그렇다. 혁신이라는 것이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아이디어가 되었다.



베를린 스마트산업단지 건축

31.

혁신의 그 곳 스마트시티혁신단지 베를린부흐



강서경
대학생

시간이 흐른 후 변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 우리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나의 발걸음보다 기술은 훨씬 더 빨리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기계가, 기술이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요소는 무시할 수 없다. 나에게 혁신이란 달나라처럼 머나먼 단어였다. 인터넷에 “암을 예방하는 신약 개발 중”, “유전자 복제 성공”, “줄기세포 기술로 치료 가능”, “간단히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 등의 혁신적인 내용의 기사 헤드라인이 보이면 ‘대단하네!’ 라고 간단하게 넘겨버리기 일쑤였다.

우리는 이곳 베를린 스마트시티 혁신 단지에서 혁신의 바람, 혁신의 당사자들을 만나보았다. 오전에 독일의 실리콘밸리인 스마트 시티 혁신단지 아들러스 호프에서 견학하고 특강을 들었다. 그곳은 독일의 혁신 중심지로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연구원들과 그들의 가



아들리스 호프에서

죽들이 머물고 있었고, 그 안에 대학이 있어 실질적인 연구와 배움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단순해 보이는 건물의 외벽에 파이프를 설치해 실내 온도를 내리고, 곳곳에 식물을 두어 그늘을 만들어 에어컨 작동을 최소화해 에너지 자원을 아꼈다. 태양열판을 곳곳에 배치하며, 화장실 물 또한 자력 공급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을 들으며 나와 단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항상 “창의 융합적 인재 육성”이 교육의 목표라고 강조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창의적인 게 무엇인지 공감이 되지 않았다. 주어진 상황에 비판적 사고와 개선하고 싶은 마음보단 수긍하고 나 자신이 적응하며 살던 성향 때문인지 세상을 물음표로 바라보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과학자’들은 나에게 존경의 대상이었다. 아들리스 호프는 이런 과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였다. 아들리스 호프를 견학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며 낮의 베를린을 만끽했다.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의 마지막 도시가 베를린이었기 때문에 바르샤바에서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설렘과 한편으로 이 대장정이 끝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그 아쉬움에 빠져 있기엔 베를린은 너무 화려했고, 풍성했고, 다양한 분야의 놀라움을 선사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건물은 예술적이었으며, 음식은 맛있었다! (대장정 내내 모든 도시가 다 맛있었지만~) 같은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묘한 연대감도 들었다. 그런 베를린의 선진적인 과학, 기술적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스마트시티 혁신단지이다. 유라시아 대장정의 목적 중에는 유라시아 국가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문화 경제 교류로 사회 분야 별 교류 효과를 전파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취지로 우리는 이곳에 방문하였다.

식사 후 차를 타고 베를린 북쪽의 한적한 시골 마을 속 스마트시티 혁신단지-베를린 부회에 도착했다. 이곳은 의료, 임상 연구 단지였다. 우리를 맞이하는 넓은 강연장에서 이곳에 관한 소개를 들었다.



김승준 연구원님의 설명

“From target to clinic- the translational drug discovery value chain”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듣고 drug design, compound management, assay development, process-automation, screening, medicinal chemistry 등에 관한 간단한 강연을 들었다. 나는 가볍게 강연을 듣고 있지만, 이곳에서 개발하는 신약에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는 아주 막중한 책임감과 중요성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강연이 끝나고 이곳에서 연구하고 계신 자랑스러운 한국인 연구원분들이 우리에게 강의해 주셨다. 의학 부문에 관해 연구하고 계신 김승준 연구원님이 오셔서 연구하고 계신 치매 분야에 관해 설명해 주시고, 또 분자 동역학 모의실험 특히 단백질의 움직임에 관해 연구하시는 것에 관해 설명해 주셨다. 들으면서 연구원님들이 얼마나 잠을 줄여가며, 개인 시간을 줄여가며 연구하셨을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고, 이분들의 성공적인 신약개발이 어찌면 세상을 뒤집을 위대한 개발 혹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아픈 생명의 생명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니 가슴이 설렘다. 특별히 연구하고 계신 알츠하이머는 개인적으로 너무 잔인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기억을 잃어가며 나 자신마저 잃어버리는 질병이기에 스스로 또 주변을 힘들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 병이라 피할 수 있으면 가장 피하고 싶은 병이라 생각한다. 김승준 연구원

님의 연구가 성공적으로 끝나쳐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고, 나중엔 치매가 감기처럼 쉽게 나올 수 있는 질병으로 여겨지길 꿈꾸며 그 길을 가능케 해주실 연구원님의 행보를 열심히 응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스마트시티 혁신단지를 둘러보며, 그 시설과 분위기에 있어 너무나 대단한 곳이라고 느껴졌는데, 이런 곳에서 연구하고 계신 한국인을 보니 괜스레 뿌듯하고 더 멋있고 존경스러웠다.

연구원님들이 본인의 연구 분야를 넘어 독일에서의 생활, 복지, 오시게 된 이유, 공부 등을 자세히 알려주셨다. 아무래도 이곳에서 연구하실 정도면 언어도 유창하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열정도 있으시다. 하지만 타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멋지게 지내고 있으신 걸 보니 새로운 롤 모델이 생겼다. 우리 단원들이 다 다른 분야, 전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지내고 있는데 시간이 흐른 후 각자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만나면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나도 한국을 떠나 독일같이 새로운 곳에서 교육학 및 새로운 학문에 대해 더 공부해 보고 싶다는 꿈이 살짝 맘속에 떠올랐다. 시간을 내어 우리 단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연구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는 장소를 옮겨 베를린부호의 스마트시티 혁신단지를 견학하였다. 화학, 방사선, 생물 등 여러 가지 실험실이 있었고, 그 시설과 장비들이 굉장히 좋다는 것은 과학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도 보였다. 연구실을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방학 기간이라 그런지 학생들은 없고 비어 있었다.

베를린에서 보았던 몇몇 박물관과 이곳에서도 느꼈지만 내가 학생이었다면 배울 맛이 날 것 같다. 직접 실험을 통해, 재미있게 기술을 익히고 생명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그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더 깊게 생각하는 사고를 촉진해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곳을 견학하면서 경직되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 우와~ 감탄사를 내뱉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견학했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음악가들이 영감을 얻듯이 과학적, 기술적 사고의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공간이 우리나라도 늘어나길 바란다. 우리가 유라시아 대장정을 통해 만나는 도시들과 교류하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운 후 잘 다듬어 부산의 특색 접목한다면 부산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방문이었다.

32.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한국



유예송
대학생



분단의 기억 전시

포츠담 광장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바로 한국문화원이었다. 한국문화원을 방문하기 전 어떤 곳인지 궁금하여 인터넷에 검색해보았는데 한국문화원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전시장, 공연장, 도서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국문화원은 국악 공연, 미술 전시회, 한국 문학의 밤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한독 문화예술 교류의 교량 역할을 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한국문화원 앞에 도착하니 커다란 태극기와 곰 모양 동상 두 마리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 태극기가 걸

려있는 건물을 보니 펜스레 설레는 기분이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국다운 단아한 나무 색상의 안내 데스크와 나무 계단이 눈에 띄었다. 안내 데스크에는 도서관, 영화관, 갤러리 코리아, 강의실의 방향을 안내하는 안내 문구가 있었고 계단의 옆과 뒤쪽으로는 한국의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한국의 전통 도자기, 장신구, 악기 및 한국화 등의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한국이 아닌 독일에서 만나니 더욱 반가웠다.

안내자분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나무 계단을 올라가 보니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VR 체험기와 TV였다. 직접 VR 체험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 주위로는 사진, 그림 등 다양한 현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2층에서는 기획전과 공모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획전은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작품의 전시가 진행되고 공모전은 장르와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을 소재로 하는 예술인들에게 현대 미술의 중심지인 베를린에서의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해 주셨다. 조금씩 들려오는 익숙한 음악을 따라 고개를 돌려보니 우리나라의 음악인 K-POP 음악 방송이 틀어져 있었다. 여러 가지 작품들과 소품들을 감상하던 중 안내자분께서 현재 한국문화원이 있는 자리가 예전에 베를린 장벽이 지나가던 장소였다고 설명해 주셨다. 통유리로 된 창밖을 바라보니 실제로 베를린 장벽이 지나던 자리에 하얀색 선이 그려져 있었다. 베를린 장벽이 있던 그 시절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현재에 선명하게 그려진 하얀 선을 보니 과거 등과 서로 분단되었던 독일의 모습에서 지금처럼 하나가 된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통일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커졌다.

길 다란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니 책꽂이에 한국어로 된 소설, 수필, 시집, 동화책, 그림책 등이 많이 꽂혀있었다. 또한 국악부터 최신가요까지 아우르는 음악 CD와 우리나라 영화 DVD 등의 영상 매체 자료들도 비치되어 있었다. 안내자분께서 도서관에서는 회원 등록을 한 사람들에게 자료들을 대여해준다고 하셨다.

안내자분의 안내를 따라 어떤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다. 단원들 모두가 자리에 앉고 나니 한국문화원장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한국문화원에 관해 소개를 해주셨다. 말씀을 마치고 나서 독일 주 한국문화원과 우리 한국,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영

상을 감상하였다. 길고 많은 내용을 담은 영상은 아니지만 강렬하고 인상 깊게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영상이었다. 원장님께서서는 한국문화원에 대해 덧붙여 설명해주셨는데 한국에 많은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가야금, 서예, 무용, 사물놀이, 케이 팝 등의 많은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다. 최근에는 케이 팝의 인기가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한국문화원에도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많다고 하셨다. 또한 한국문화원에서는 많은 공연도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한국의 전통음악인 국악은 물론 클래식, 현대음악, 재즈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기획공연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재즈 코리아> 행사는 한국과 독일 재즈 뮤지션들이 교류하며 음악적 교감을 나누는 계기이자 한국의 재즈 음악을 유럽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한국문화원을 나와서 우리는 통일정으로 향했다. 베를린 거리 한가운데에서 한국어로 ‘통일정’이라고 적혀진 정자를 보니 신기하였다. 통일정은 2015년 독일 통일 25주년과 한국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창덕궁 낙선재에 있는 상량전을 통일 독일의 수도인 베를

린에 재현해낸 건축물이었다. 통일정 옆에 베를린 장벽의 잔해가 남겨져 있었는데 통일정은 과거 동서 베를린을 나누던 베를린 장벽이 서 있던 곳에 세워짐으로써 아직도 분단되어있는 우리나라의 평화통일과 변영을 염원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였다. 베를린 한복판에서 통일정을 바라보고 있으니 가슴이 괜히 뭉클하였다. 통일은 불가능할 것처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되어있던 독일이 이제는 통일되어 하나의 국가로 아름다운 모습을 꾸려나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언젠간 통일이 되어 분단의 사실을 기억하며 더 아름다운 한 나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졌다.



분단 선 위를 통과하는 자리에 위치한 한국문화원



포츠담광장에 위치한 통일정

33.

베를린 필하모니 도시에서의 문화예술교류



문수원
세종문화예술연구소 소장

오랜만의 베를린

십여 년 만에 방문한 베를린은 무척 변해있었다. 통일 후에도 동독과 서독지역이 서로 한눈에도 구별될 정도로 건물과 도시 분위기, 도시를 감도는 에너지가 확연히 달랐던 예전에 비해, 지금의 베를린은 트램의 유무로 겨우 동·서독을 구분할 정도로 두 지역이 같은 느낌을 띄고 있었다. 예전 내가 방문했을 당시의 구 서독지역은 다른 서유럽과 비슷한 세련되고 초록빛의 공기와 분위기를 자아냈었고, 구 동독지역은 다른 공산 국가들과 비슷하게 도시가 전체적으로 회색 느낌의 차가운 분위기를 뿜어냈었다. 공산 국가들이 이전에 건물을 회색으로 주로 짓고 일률적으로 관리한대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정대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만난 젊은 가이드는 나와 비슷한 느낌을 얘기했었다. 본인은 어린 시절 폴란드로 왔을 때 너무 싫었다며, 식탁 위의 회색 부분을 가리키며 전부 이색의 느낌이었다고 했다. 많은 자본과 시간이 이제 두 공간의 차이를 불식시키고 있었다. 아직 분단된 국토를 가진 우리에게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우리 공연단은 총 24박 25일 일정 중 6곳에서 공연을 하였다. 그중 가장 신경 쓰이는 곳이 바로 베를린 부산데이 공연이었다. 총 4차에 걸친 원정대 중 이번이 처음으로 러시아가 아닌 유럽본토로 넘어와서 폴란드를 지나 베를린에서 아홉하는 일정이었다. 독일이 어떤 나라인가. 바흐, 베토벤, 바그너, 브람스의 나라가 아닌가. 게다가 세계적인 명성의 베를린필 하모니가 있는 곳이 베를린이라는 도시이다. 공연단 공연 일정을 짤 때부터 가장 부담되고 또한 가장 기대도 되는 곳이 베를린이었다. 일반 대중의 음악적 수준이 높고 음악당의 퀄리티가 다를 것이란 건 예상한 바였다. 그만큼 우리의 공연에 대한 매서운 눈들이 지켜볼 것이고 부산데이 행사로 인해 주요 인사들이 초청될 예정이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 공연의 하이라이트로서 준비한 레퍼토리 중 최고의 레퍼토리 구성과 기량이 필요로 한 곳이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오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가 준비되어있고, 독일 음악가들의 공연도 준비되어있었다. 그들과 함께 공연해야 하는 상황이니 대부분 학생으로 구성된 공연단을 이끌고 공연을 준비한 나는 여러모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베를린으로 점점 다가가는 동안 공연단장으로서 엄청난 압박을 계속해서 느꼈다.

Heimathafen Neukölln : 이곳이 공연장 건물이라고?

부산데이 행사와 콘서트가 열리는 “Heimathafen Neukölln”라는 곳은 문화재로 지정된 작지만, 유서 깊은 곳이라고 했다. 기대를 하고 갔는데,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선 카페가



공연장 입구

먼저 나오고 그 안쪽이 공연장이었다. 예상과 달리 일반 건물 같은 느낌의 “Heimathafen Neukölln”의 외관에 적지 않게 놀랐다. 안으로 들어가자 문화재라는 의미에 맞게 오래된 공연장과 대기실이 보였다. 베를린의 공연장이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멋진 공연장일 것이라고 출발 전 예상과 달리 조출한 모습에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예상 밖의 리허설 타임

리허설을 위해 음향체크와 무대세팅을 하는 동안 처음에는 꽤 신경전이 있었다. 예정됐던 우리의 리허설 시간이 뒤로 한참 늦춰지고 점점 공연시간을 다가오고 있었다. 막상 리허설 하러 갔더니 음향과 조명 테크니션이 자리에 없었다. 조금 있으면 공연인데 도대체 어찌라는 건지. 뒤늦게 나타난 테크니션은 미안하다고 독일 주요 인사가 오는 바람에 인사하러 자리를 비웠다고 사과를 했다. 어쨌건 빨리 리허설을 해야 하니 얼른 진행하기를 독촉했다. 그런데 유선 마이크를 미리 얘기해놨는데 이게 내 손에 쥔 무선 마이크가 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조악한 소리를 내는 마이크를 악기 마이크로 쓰라니 정말 어이없는 상황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굉장히 불쾌해하며 항의하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무대 뒤로 간 후 새로 유선 마이크를 찾아 세팅하고 음향체크를 하는데 아, 이 사람 진짜다라고 느꼈다. 원정대 기간 내내 그리 우리를 괴롭히던 것이 음향 세팅 문제였는데 드디어 제대로 된 음향 테크니션을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내가 원하는 소리를 잘 캐치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시 소리 수정을 하며 음향을 최대한 악기소리를 살릴 수 있게 맞춰주었다. 또한 조명 테크니션도 이제까지 중 최고로 우리 공연에 어울리는 조명으로 세팅시켜주었다. 물론 다른 도시도 잘 세팅을 따라 주는 곳은 있었다. 문제는 실제 공연에 들어가게 되면 리허설 때 해놓은 세팅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였다.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전체 콘서트의 막을 여는 역할을 맡은 우리의 첫 공연이 시작 시간이 다가왔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

홍보가 잘 되었는지 독일인들이 계속해서 공연장으로 들어왔다. 관객석이 다 차고 서서 듣는 인원들이 많을 정도로 공연은 만석이었다. 이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온 우리의 공연을



대장정 공연팀의 한국무용 공연

보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니 새삼 뿌듯함이 느껴지고 많은 사전준비를 해준 주최 측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공연 전부터 야외 리셉션장도 북적였고 주요 인사들이 속속 도착하여 분위기가 한껏 뜨겁게 달궈진 상태로 첫 공연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공연 시작

실제 공연은 리허설 때 세팅한 대로가 그대로 재현되었다. 우리 대원들이 채도가 낮은 색 옷을 입고 무대 스태프 역할을 연습한 대로 잘 수행하여 주었다. 대금과 장구 연주가 시작되었다. 마이크를 통해 연주소리가 음향을 세팅한 대로 울려 나왔고 뒷 화면은 공연을 살려주는 그림이 딱 알맞게 세팅되어 비치며 극장은 우리의 악기소리로 크게 울려 퍼졌다. 다만 아쉬운 것은 모니터 스피커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음향을 잘 받쳐주면 어찌 불평하겠는가 싶을 정도였다.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전문적인 음향과 조명 테크니션이 있다는 것은 좋은 공연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작은 공연장에도 이 정도의 실력자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베를린의 힘으로 느껴졌다. 연주자들은 준비한 레퍼토리를 잘 연주해주었고 마지막 곡 연주가 끝나자 관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다음은 한국 창작 춤 차례였다. 조명은 우리가 준비한 한국 창작 춤의 무용복과 부채 색을 최대한 살려주는 색을 그대로 뵘어내게 해주었고 그로 인해 무용수들은 훨씬 아름다운



대금과 장구 공연

무대를 펼칠 수 있었다. 음향도 마찬가지로 공연을 살리는 무대음악이 흐르고 그것을 테크니션은 잘 잡아냈다. 컨트롤박스 옆에서 내가 음향 에코 등을 주문하면 잘 그대로 따라 주었다. 무용수들은 1명의 부재로 전날 급하게 수정한 역할과 안무를 잘 소화해주어 보는 동안 벽찬 감동이 되었다. 드디어 무용공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들의 열렬한 반응에 긴장되어 막혀있던 숨을 그제야 내쉴 수 있었다. 두 테크니션은 엄지를 들어주었고 나는 그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하며 컨트롤박스를 내려왔다.

나는 조선인이 아니에요

해외공연을 준비할 때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조선 사람이 아니고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다. 지금의 사람들은 대부분 3분 30초 안에 끝나는 대중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나는 우리 공연단은 조선의 예술을 보여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공연

의 현재와 미래의 예술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항상 한국음악과 한국무용을 전통이 아닌 창작으로 준비해서 나간다. 다행히 그 컨셉이 항상 잘 먹혀들어 갔다. 그들은 우리 음악과 춤을 아름답다며 좋아해 주었다.

바흐와 베토벤의 나라 독일, 현재는 베를린필하모니의 도시인 베를린에서 우리의 음악과 춤이 울려 퍼지고 그것을 환호하며 박수 치는 그들을 보며 목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 공연이 끝난 후 독일관광객들을 인터뷰를 하신 기자분이 전해주시기를 ‘자기는 한국에 대해서 거의 잘 몰랐다. 그런데 오늘 이 공연을 보고 다음 여행지에 꼭 한국을 넣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제대로 민간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Thanks to

이렇게 큰 행사를 오랫동안 준비하여 성공적인 부산데이 행사와 공연을 할 수 있게 오랜 기간 물심양면으로 힘써 준 부산시와 베를린시, 한국문화원, 그리고 특히 원정대 기간 내내 수고하신 부산국제교류재단 직원분들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브란덴부르크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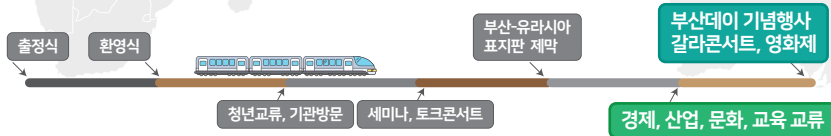
4

부록

■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루트



■ 유라시아 물류루트 탐사 및 거점도시별 교류행사



■ 숫자로 보는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2016



2017



2018



2019

2016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루트 :

부산항 출발(해상대 한나라호) - 블라디보스톡(TSR) - 하바롭스크 -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리스크 - 예카테린부르크 - 모스크바 - 상트페테르부르크 - 부산(항공)

희망의 길! 하나의 길! 통일의 길!의 첫 시작, 유라시아 부산 원정대는 2016년 7월 16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해상·육상 복합물류루트 탐사 및 거점도시별 교류행사를 추진하고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을 홍보, 거점도시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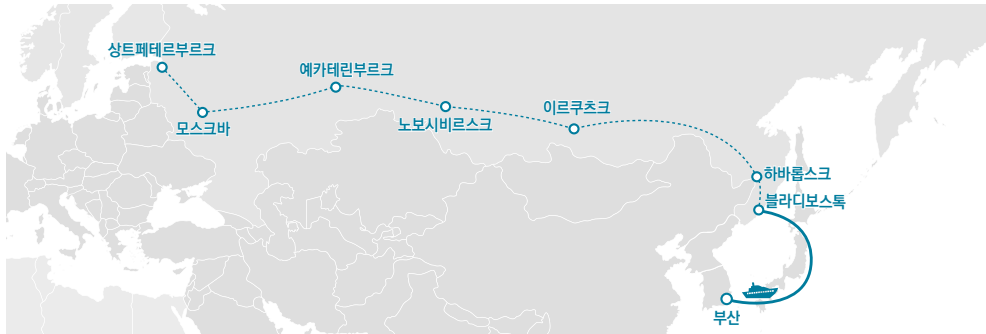
2016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는 지자체 주도 공공외교 행사로서 러시아 주요 7개 도시에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관문도시 부산을 성공적으로 홍보하였다. 청년공연교류, 친선교류의 밤, 경제교류회, 한국음식축제, 부산영화제, 차세대 리더 교류, 유라시아 경계비 부산 표지판 제막식, 부산 데이 행사 개최 등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러시아 거점도시와의 네트워크 및 문화·경제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부산의 자매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3년 만에 한국문화축제 중 가장 큰 규모로 행사를 개최하며 성공적으로 대장정을 마무리 하였다.





2017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루트 :

부산항 출발(해양대 한나라호) - 블라디보스토크(TSR) - 연길 - 백두산 - 장춘 - 베이징(TMGR) - 울란바토르 - 이르쿠츠크(TSR) - 예카테린부르크 - 모스크바(SAPSAN) - 상트페테르부르크 -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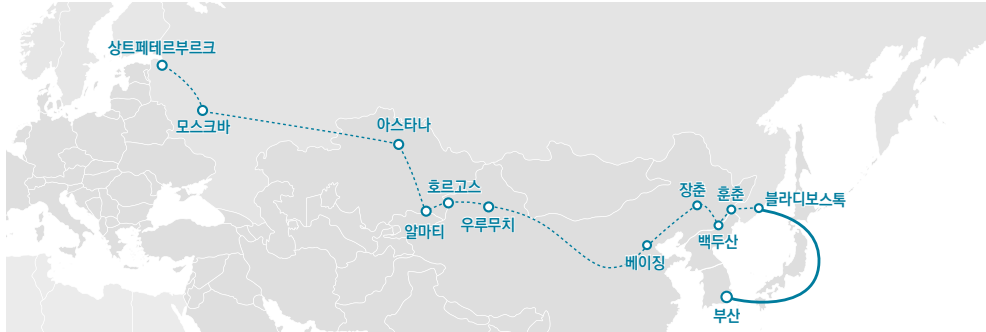
유라시아 부산 원정대는 2017년 7월 11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지자체 최초 2회 연속 추진된 공공외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중국·몽골까지 확대 추진했다.

청년 도전정신과 시민들의 물류 마인드 함양을 통해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해양물류도시 부산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할 수 있었다. 부산-블라디보스토크 자매결연 25주년 부산 데이 기념행사, 부산-블라디보스토크 음악의 밤, 부산-연길 친선의 밤, 한국 기업 견학, 부산-울란바토르 친선의 밤, 부산-이르쿠츠크 대학생 친선교류, 유리가 가린 우주센터 견학, 유라시아 분기점 기념식, 부산-모스크바 차세대 리더 교류 등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연속성 있는 문화·경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201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루트 :

부산(항공) - 블라디보스토크 - 훈춘 - 백두산 - 장춘 - 베이징 - 우루무치 - 호르고스 - 알마티 - 아스타나 - 모스크바 - 상트페테르부르크 - 부산(항공)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에서는 2018년 7월 11일 부산을 출발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유라시아 물류 관문도시 부산을 홍보하고, 부산 주도 “북방협력 비전” 구현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가와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정책의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까지 확대 추진하며 신규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리틀 부산 데이, 방천전망대 탐방, 한국기업 견학, 길림대학 캠퍼스 투어, 부산-길림성 청년 친선교류, 주중국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스타트업 콘서트, 특별 경제 구역청(SEZ) 시찰, 알마티 부산 데이, 부산 - 알마티 청년 친선교류, 한국영화제, 모스필름 스튜디오 견학, 부산-모스크바 차세대 영화교류, 부산-상트페테르부르크 갈라 콘서트 등 거점도시별 네트워킹 확대 및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오감 짜릿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박유경
유라시아협력센터
팀장대우

아세안 국가와 영어권 국가와의 업무를 주로 했었기에 남방 국가와 너무 다른 문화를 가진 북방지역 사업을 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사업을 실무자로서 추진했던 경험은 한 단어로 '오감 짜릿' 이다. 신체의 모든 감각으로 느끼는 유라시아 대장정 사업은 젊은 날 평생에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일이고, 많은 추억과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1. 촉각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촉각은 늘 예민했고 깨어있어야 했다. 초기 기획 단계에는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준비해 보려고 했었기에 늘 북한의 정세에 대한 뉴스, 그리고 방문하는 모든 지역에서 외교와 안보문제에 촉각 곤두세워야 했다. 그리고 담당했던 폴란드와 독일 구간의 사업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관의 협력과, 현지의 상황에 늘 초점을 맞추고 실무자로서 빠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했다. 특히 비록 폴란드에 있는 국제철도기구(OSJD)와의 협력

사업이 아쉽게 무산되기는 했으나, 준비 시기에는 협업을 해 보려고 OSJD와 한국과의 관계에 늘 집중했었다. 또한, 사전답사와 50명이 넘는 단원들을 인솔하며 갔던 25일의 긴 여정 동안 혹시라도 누구 하나 문제가 생길까, 건강과 컨디션은 괜찮은지, 현지의 행사 준비사항은 잘 되고 있는지 세세한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했기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업무에 만전을 기했다.

2. 청각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을 추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었고, 다양한 입장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말들이 향후에 남아있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사업을 4년 동안 해 오면서 직원들이 겪은 에피소드와 미리 대비해야 하는 사항, 이 사업을 바라보는 부산시와 외부 기관들의 시선, 그리고 예전 참가자들에게서 듣는 유라시아 대장정에 대한 기억 등 매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구성해 보려고 노력했고, 이제껏 하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개선되었다는 인식을 외부에 주고자 해운대 모래축제에서 상징적인 모래 작품도 만들어 전시하거나, 지역축제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 지하철에 광고를 실어 홍보를 하기도 했다. 본 행사 기간에는 여러 대원으로부터 현재 본인들이 느끼는 감정과 요구사항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했고, 현지 도시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늘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3. 시각

유라시아는 시각적으로도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동남쪽 부산에서 중국과 몽골을 지나 러시아와 폴란드, 독일까지 지나가면서 대원들과 나는 아시아와 유럽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기도 했고, 각 도시의 특색 있고 이국적인 예술과 건축문화, 그리고 자연을 볼 수 있었다. 열차에서 보는 넓은 자연과 기후의 변화는 앞으로 방문할 도시와의 사업 준비로 바빴던 나에게도 가끔 여유와 낭만을 주었다.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함축적으로 시간 여행을 하듯 유라시아지역의 과거의 아픈 역사부터 현재의 개발과정, 무인화된 물류시스템과 4차 산업의 혁명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유라시아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기회였다.

4. 후각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을 진행하면서 남은 짜릿한 기억 중에는 후각적인 면도 단연 기억에 남는다. 각 도시와 우리가 이용했던 교통수단들은 각기 다른 공기의 냄새를 가지고 있었다. 바다가 인접한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부산처럼 바다 향을 맡을 수 있었고,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가는 국경지대 비포장도로와 입국 대기선에서는 흙냄새와 트럭과 버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섞인 특유의 냄새가 있었다. 그리고 몽골에서는 게르와 넓은 초원이 주는 고유의 자연의 향기가 있었다. 장기간 이용했던 유라시아 횡단 열차에서는 뻑뻑한 사람들로 인한 사람의 정취와 열차 화장실 특유의 암모니아 향이 기억에 남는다. 바르샤바는 폴란드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대도시와는 조금 다른 여유와 청정함이 있었고, 8월의 베를린은 현지인만큼이나 많은 외국인 관광객 때문이었는지, 다민족, 다양한 예술과 문화가 섞인 거리의 인파 속에서 글로벌 문화가 만들어내는 특유의 향과 멋이 있었다.

5. 미각

의식주 중에 타 문화를 경험하며 얻는 가장 큰 즐거움은 단연 식문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 중 하나가 음식이었는데, 잘 먹는 것은 대원들의 건강과 컨디션에 직결되는 것이라, 가능한 잘 먹을 수 있으면서 현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



독일요리 학센

을 선정하려고 노력했었다. 이번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동안 5개국을 방문하며, 우리는 정말 많은 현지 음식들을 맛보았는데 중국에서는 베이징오리와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만두 요리를, 몽골에서는 양, 말고기 같은 육고기 요리를, 러시아에서는 보르쉬(Borsch)라는 비트를 넣은 붉은 수프를, 폴란드에서는 치즈와 통돼지 바비큐를, 독일에서는 단연 소시지와 학센을 먹으면서 각 지역의 음식문화를 겪으며 현지인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특히 보르쉬는 유라시아대장정의 필수 요소라고 해야 할 만큼 우리 단원들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탑승 구간 내내 먹었다. 그렇기에 보르쉬를 볼 때마다 단원들은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다. 유라시아 대장정은 평생 먹어보지 못했던 달고 짜고 시고 쓰고 상큼하면서도 자꾸 끌리는 이색적인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때로는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은 상황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뭔가 해낸 것 같은 뿌듯함도 느꼈고, 조금 피곤해 질만 하면 옆에 와서 무한 긍정에너지를 주는 대원들 덕에 웃을 수도 있었다. 젊은 청춘의 때에 실무자로서 유라시아를 개인 여행이 아닌 업무로서 경험해 본 것은 업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유라시아와 세계를 보는 시각의 변화, 유라시아인과 우리 대원들과의 네트워크, 잊지 못할 추억, 그리고 피땀 흘리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우리 팀 직원들과 끈끈한 전우애라는 자산을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고생해 준 방문 도시와 국내외의 모든 관계자분과 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유라시아 협력센터 3인방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 고난과 환희의 경계



손희승
유라시아협력센터
대리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광활한 중국, 몽골,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여 유럽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온 세계 만방에 보여주고 먼 여정을 떠나는 동안 우리 부산에게 기를 북돋워 주며 미래 동반자가 되어줄 해외도시 친구를 사귀기 위해 진행된 유라시아 대장정이 벌써 올해로 4회차를 맞았다.

2016~2017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201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등 매해 행사명이 바뀌는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대원들, 새로운 루트,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결실들을 맺어가며 쌓아 올린 포트폴리오는 이제 대내외에 자랑스레 내놓을 수 있는 부산만의 시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이 되었다.

재단 내 러시아 담당자라는 이유만으로 유라시아 대장정을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매년 참여했던 유일한 실무자로서 과거를 회상해본다면 사실 이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유라시아 대장정은 외교부에서 2015년 한-러 수교 25주년을 기념으로 추진한 '유라시아 친선특급'을 벤치마킹 하여 2016년도에 처음 추진되었다.

하필 첫 해 행사는 순수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열차 코스만 있었기에 당시 재단 입사한지 만 1년도 안된 나에게 날벼락과도 같았다.

불도저 같은 강력한 추진력과 부하직원 멘탈을 탈곡기 마냥 탈탈 터는 잔소리 능력을 보유하신 당시 유능한 모 팀장님의 하드 트레이닝 속에 매일 야근하며 현지 정부, 재외 한국공관, 여행사, 행사대행업체와 연락하며 하나씩 차근차근히 준비해나갔다.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결국은 해피엔딩이었지만 당시를 회상해보면 정말 첫 해에는 그야말로 악 소리 나는 ‘유라시아 원정대’ 사업이었다.



이르쿠츠크영화제에서

사실 고백하자면 첫 행사가 끝난 후 만약 또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무조건 사표를 내고 도망가야지’ 라는 마음을 품었다.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 않은가. 신기하게도 다음해가 될 때면 에너지가 다시 충분히 회복이 되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시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유라시아 대장정 사업을 하며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우리가 방문하는 러시아 도시 정부와 주민들의 환대였다. 20대 시절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며 느꼈던 러시아인 그 특유의 차가움을 아는 나로선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매해 우리가 방문하겠다 하면 귀찮아 하는 내색 없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고 하나라도 더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명 깊었다. 일례로 2017년에 진행된 부산-블라디보스토크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와 2018년의 부산-상트페테르부르크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는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성공리에 개최될 수가 있었다. 이외에도 우리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좌석 편의를 제공해주는 러시아 철도청 관계자들과 우리가 모스크바 기차역에 도착하면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여분 남짓의 공연을 위해 어김없이 시간을 내어 나와주는 러시아 철도청 관악단도 우리에게겐 참으로 고마운 존재이다.

4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쌓은 운영 노하우, 행사 콘텐츠, 부산 브랜드 홍보, 유라시아 도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참가자 인력 풀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이다. 가까운 미래던 먼 미래던 한반도 철길이 열리는 그 날을 위해 이 자산을 더욱 더 내실 있게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모두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한다.

내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분들과 새로운 루트를 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게 될까 잠시나마 설렘이었지만 설렘 보다는 두통이 본능적으로 앞서오는 게 참 웃프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기나긴 준비과정



박혜련
유라시아 협력센터
주임



사전답사때 수분하시 관계자 분과

2019년 1월 1일, 유라시아 협력센터로 발령 후 상반기를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을 준비하며 보냈다. 재단에서 근무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몽골 지역을 맡아 담당자가 된 일이 큰 부담으로 느껴졌었지만, 한 편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했었다. 다른 팀에서 근무할 때에는 유라시아 협력센터에 대해 진짜 대단하다는 인상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이 사업이 내 앞으로 닥칠지 예상하지 못했다. 너무 막막했었지만, 예전에 진행되었던 과정과 업무보고들을 찾아보고 업무를 숙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불안감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중국지역(베이징, 하얼빈, 수분하)의 경우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고 행사를 기획하고 담당자와 연락하는

과정에 있어 두려움보다는 일을 한 단계씩 진행하는 즐거움이 더 컸다. 중국 상하이에서 8년 동안 공부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중국 공관의 업무를 알 수 있게 되고, 담당자와 연락하며 행사를 조율하는 일은 매우 새로운 경험이었다. 또한 베이징, 하얼빈, 수분하 등 다양한 중국지역의 시 담당자분들과 업무를 진행하며 각 지역의 업무 특성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가깝고 친근한 느낌의 베이징, 차분하지만 다정한 느낌의 하얼빈, 푸근한 시골 느낌의 수분하 등 중국분들 특유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였다. 모든 지역의 기관에서 협력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중국구간의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2016년부터 부산과 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도 적극적으로 대장정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시고 관심을 표해주셨다. 대장정 단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를 지원해주시고, 울란바토르역 환영식, 부산-울란바토르 친선의 밤 행사 때에도 몽골 전통 환영식과 공연 팀을 지원해주셨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참여해주신 울란바토르 시청 관계자분들 덕에 대장정 단원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몽골의 문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거 같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이란 행사는 7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24박 25일로 진행되었는데, 직원들은 오히려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이 더 나았다고 할 정도로 준비 기간이 매우 힘들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도 많이 생기고, 4~5월에 진행된 1차, 2차 사전답사도 다녀오면서 체력이 많이 지치게 되었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유경 대리님과 희승 대리님과 함께 준비하며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더불어 긴 여정을 함께하면서 운영진으로서 많은 고민과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대장정 단원분들의 파이팅 넘치는 기운 덕분에 나 또한 힘을 얻으며 무사히 대장정을 마칠 수 있었다.

준비하면서도 함께 참가하는 대장정 단원들한테도 일생에 단 한 번일지도 모르는 이 대장정 프로그램에서 뜻깊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후기를 쓰게 되어 감개무량한 마음이다. 너무나 좋은 단원들과 함께 무사히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벅차고 기쁜 마음으로 이만 글을 마친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가즈아!



유경대리님과 함께

부록. 유라시아 언론보도 자료

1. 국내 보도자료

No.	보도일자	언론사명	보도제목	보도형태
1	2019-4-18	신아일보	부산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참가자 공모	인터넷
2	2019-4-18	뉴스1	부산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참가자 공모	인터넷
3	2019-4-18	YTN	부산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참가자 공모	인터넷
4	2019-4-18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참가자 모집	인터넷
5	2019-4-18	연합뉴스	유라시아에 부산을 알린다... 시민대장정 참가자 모집	인터넷
6	2019-4-18	노컷뉴스	"유라시아에 부산의 비전 알리자"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참가자 모집	인터넷
7	2019-4-18	뉴스1	유라시아에 부산 비전 알린다... 5월3일까지 시민대장정 참가자 모집	인터넷
8	2019-4-18	불교공뉴스	유라시아에 부산의 비전을 알린다	인터넷
9	2019-4-18	국제뉴스	부산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참가자 모집... 부산~베를린 4번째 여정	인터넷
10	2019-4-18	아시아뉴스통신	부산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7.17.~8.10.) 참가자 모집	인터넷
11	2019-4-18	데일리한국	"유라시아에 부산 비전을 알린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참가자 모집	인터넷
12	2019-4-18	한국일보	유라시아에 부산의 비전을... 부산에서 베를린까지	인터넷
13	2019-7-16	서울경제	부산시, 17일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인터넷
14	2019-7-16	뉴스1	부산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24박 25일 1만2218km	인터넷
15	2019-7-16	아시아뉴스통신	부산시,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열어	인터넷
16	2019-7-16	뉴스1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알린다... '시민대장정' 17일 출정	인터넷

No.	보도일자	언론사명	보도제목	보도형태
17	2019-7-16	아주경제	부산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민간외교사절단 유라시아 횡단	인터넷
18	2019-7-16	데일리한국	"부산서 베를린까지"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17일 출정식	인터넷
19	2019-7-16	CNB뉴스	부산시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 동북아 시작점 부산 알려	인터넷
20	2019-7-16	불교공뉴스	부산시,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개최	인터넷
21	2019-7-16	파이낸셜뉴스	1만2218km 유라시아 대륙 횡단하며 부산을 외치다	인터넷
22	2019-7-16	환경일보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개최	인터넷
23	2019-7-16	업코리아	부산시,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개최	인터넷
24	2019-7-16	헤럴드경제	부산시,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개최	인터넷
25	2019-7-16	프레시안	"부산서 베를린까지" 민간외교사절단 유라시아 횡단 나서	인터넷
26	2019-7-16	노컷뉴스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유라시아에서 부산을 외친다"	인터넷
27	2019-7-16	뉴스프리존	24박 25일간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개최	인터넷
28	2019-7-16	머니S	부산시 민간외교사절단 유라시아 횡단	인터넷
29	2019-7-16	이뉴스투데이	부산시,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개최	인터넷
30	2019-7-16	울산제일일보	부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인터넷
31	2019-7-17	한국경제	"가자! 유라시아로"	인터넷
32	2019-7-17	뉴시스	"유라시아 횡단열차 시·종점은 부산역"	인터넷
33	2019-7-17	뉴시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인터넷
34	2019-7-17	뉴시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인터넷
35	2019-7-17	뉴시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부산역서 출발	인터넷
36	2019-7-17	뉴스1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인터넷

No.	보도일자	언론사명	보도제목	보도형태
37	2019-7-17	뉴스1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인터넷
38	2019-7-17	뉴스1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발!	인터넷
39	2019-7-17	뉴스1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발합니다	인터넷
40	2019-7-17	뉴스1	오거돈-박인영 '유라시아 횡단 기념승차권 들고'	인터넷
41	2019-7-17	뉴스1	유라시아 횡단기념승차권 들고	인터넷
42	2019-7-17	부산MBC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인터넷
43	2019-7-17	국민일보	부산시 민간외교사절단 1만2218km 유라시아 대장정 출발	인터넷
44	2019-7-17	BBS NEWS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열려	인터넷
45	2019-7-17	동아일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발 퍼포먼스	인터넷
46	2019-7-17	부산일보	[포토뉴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인터넷
47	2019-7-16	국제뉴스	부산시 민간외교사절단, 부산↔베를린 1만2218km 유라시아 횡단… 베를린 등 5개국 10개 도시 방문	인터넷
48	2019-7-16	BBS NEWS	부산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내일부터	인터넷
49	2019-7-16	파이낸셜뉴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올해는 베를린까지 간다	인터넷
50	2019-7-16	국제신문	올해는 베를린까지 연장… 1만2218km 유라시아 대장정	인터넷
51	2019-7-16	연합뉴스	부산에서 베를린까지 유라시아 1만2천218km 대장정	
52	2019-7-17	네이버뉴스	부산서 베를린까지 1만2218km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열차 출발	
53	2019-7-16	국제뉴스	부산시 민간외교사절단, 부산↔베를린 1만2218km 유라시아 횡단… 베를린 등 5개국 10개 도시 방문	인터넷
54	2019-7-17	CJ헬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부산 알린다 '유라시아시민대장정'	인터넷
55	2019-7-24	외교관 홈페이지	정재남 대사,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몽골 환영식 행사 참석	인터넷

No.	보도일자	언론사명	보도제목	보도형태
56	2019-7-26	불교공뉴스	부산-울란바토르, 친선의 밤 밝히다	인터넷
57	2019-7-26	국제뉴스	부산시 민간외교사절단, 24일 '부산-울란바토르 친선의 밤' 개최	인터넷
58	2019-7-26	시민일보	부산-울란바토르, 친선의 밤 밝히다	인터넷
59	2019-7-28	뉴스타운	부산시, 행정교류 중단 "일본과 관계 개선까지"	인터넷
60	2019-7-28	신아일보	부산-울란바토르, 친선의 밤 개최	인터넷
61	2019-7-28	아시아뉴스통신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러시아, 중국 지나 부산-울란바토르 친선의 밤 열어	인터넷
62	2019-7-28	경남매일신문	부산국제교류재단, '울란바토르 친선의 밤' 개최	인터넷
63	2019-7-29	외교관 홈페이지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참가자,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방문	인터넷
64	2019-7-31	파이낸셜뉴스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인터넷
65	2019-7-31	파이낸셜뉴스	유럽-아시아 경계비에 '이정표'	인터넷
66	2019-7-31	신아일보	부산 유라시아 원정대, 유럽 향한다	인터넷
67	2019-7-31	서울경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유럽-아시아 경계비에 이정표 세우다	인터넷
68	2019-8-2	시민일보	부산시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인터넷
69	2019-8-2	아시아뉴스통신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유럽-아시아 경계비에 이정표 설치	인터넷
70	2019-8-7	서울경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마무리... 부산-베를린 평화음악회 개최	인터넷
71	2019-8-7	파이낸셜뉴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마무리... 9일 베를린서 친선 평화 음악회	인터넷
72	2019-8-7	뉴스랩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남북 평화 기원	인터넷
73	2019-8-7	투어타임즈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아 남북 평화를 기원한다	인터넷

No.	보도일자	언론사명	보도제목	보도형태
74	2019-8-7	뉴시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부산-베를린 친선 평화 음악회' 공연으로 폐막	인터넷
75	2019-8-7	업코리아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아 남북 평화를 기원한다	인터넷
76	2019-8-7	국제뉴스	부산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마무리… 7일 '부산-베를린 친선 평화 음악회' 열어	인터넷
77	2019-8-7	국제신문	“일본, 들리는가”… 손기정 루트 종착지 독일서 평화의 교향악	인터넷
78	2019-8-7	국제신문	베를린, 하얼빈, 서울로… 부산시향 기본종계 바쁜 8월	인터넷
79	2019-8-7	시민일보	부산-베를린 친선 평화음악회 개최	인터넷
80	2019-8-7	파이낸셜뉴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마무리… 독일 베를린서 친선음악회	인터넷
81	2019-8-7	환경일보	'부산-베를린 친선 평화음악회' 개최	인터넷
82	2019-8-7	부산MBC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오늘 마무리	인터넷
83	2019-8-7	연합뉴스	부산-베를린 음악회 끝으로 유라시아 대장정 마무리	인터넷
84	2019-8-12	BBS NEWS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막내려	인터넷
85	2019-8-14	일간리더스경제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불안함' 때문” - 부산국제교류재단 안영철 사무차장	인터넷
86	2019-8-29	BBS NEWS	도용회 시의원, '유라시아 부산시민대장정' 민간외교 활동에 큰 보람	인터넷
87	2019-8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베를린 행사 참가	정기 간행물

2. 국외 보도자료 >> 인터넷 기사 17건, 정보안내 2건, 공공기관 5건

No.	보도일자	매체명	보도제목	보도형태
1	2019. 4. 30	PrimaMedia	Студенты из Пусана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Евразийской экспедиции-2019 (부산 대학생들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에 참가) https://primamedia.ru/news/809075/	인터넷
2	2019. 7. 10	DV-ROSS	Владивостокцев приглашают 18 июля на День Пусана (7월 18일 개최되는 부산 데이 행사에 블라디보스토크 시민을 초대합니다) http://trud-ost.ru/?p=662656	인터넷
3	2019. 7. 10	블라디보스토크 시청 홈페이지	Владивостокцев приглашают 18 июля на День Пусана (7월 18일 부산 데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ttp://vladivostok.ru/event/news/19387	인터넷
4	2019. 7. 11	PRIMGAZETA	K-POP, стритбол и каллиграфи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тпразднуют День Пусана (블라디보스토크 부산 데이 축제 개최 : 케이팝, 길거리 농구, 캘리그래피) https://primgazeta.ru/news/K-POP-stritbol-i-kalligrafiya-vo-vladivostoke-otprazdnuyut-den-pusana-11-07-2019-02-22-47	인터넷
5	2019. 7. 17	TO-ROS	Южнокорейскому городу-побратиму Владивостока посвятят отдельный День Пусана (블라디보스토크 자매도시 부산을 알리는 부산 데이 개최) http://to-ros.info/?p=78903	인터넷
6	2019. 7. 18	VL.RU	Фестиваль "День Пусан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18 июля 2019 (부산 데이 페스티벌 2019년 7월 19일 블라디보스토크 개최) https://www.vl.ru/afisha/vladivostok/event/117385	인터넷
7	2019. 7. 18	VESTIREGION	Сегодн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ройдёт День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города-побратима Пусана (대한민국의 자매도시 부산의 날 행사가 오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 http://vestiregion.ru/2019/07/18/segodnya-vo-vladivostoke-projdyot-den-yuzhnokorejskogo-goroda-pobratima-pusana/	인터넷
8	2019. 7. 18	EVENTS-VL	Фестиваль "День Пусана" (부산데이 페스티벌) https://events-vl.ru/afisha/city_event/18.07.2019/16522/festival-den-pusana-.html	인터넷

No.	보도일자	매체명	보도제목	보도형태
9	2019. 7. 19	ZRPRESS	День Пусана на баскетбольной площадке (스포츠 해변공원 내 부산데이 개최) https://zrpress.ru/sport/vladivostok_19.07.2019_94973_den-pusana-na-basketbolnoj-ploschadke.html	인터넷
10	2019. 7. 19	Sportsweek	День Пусана на баскетбольной площадке (스포츠 해변공원 내 부산데이 개최) https://sportsweek.org/ru/basketball/brief/209023041/	인터넷
11	2019. 7. 19	ATTTA.RU	День Пусана на баскетбольной площадке (스포츠 해변공원 내 부산데이 개최) https://attna.ru/newsread-292406-den-pusana-na-basketbolnoj-ploschadke.html	인터넷
12	2019. 7. 20	DV-ROSS	Турнир по уличному баскетболу с участием корейских команд провел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한국 농구팀과의 길거리 농구 대회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려) http://trud-ost.ru/?p=664001	인터넷
13	2019. 7. 20	VLAD NEWS	Гости фестиваля «День Пусана»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культуро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부산데이 행사 참가자들 한국 문화와 어울리다) https://vladnews.ru/2019-07-20/155665/gosti-festivalya	인터넷
14	2019. 7. 20	PRIMGAZETA	Приморские баскетболисты проиграли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ке» (연해주 청소년 농구팀 한국팀과 경기 열려) https://primgazeta.ru/news/primorskie-basketbolisty-proigrali-korejskoj-molodezhke-19-07-2019-06-45-27	인터넷
15	2019. 7. 22	연해주정부 웹사이트	ПРИМОРЦЫ СЫГРАЛИ В БАСКЕТБОЛ С КОМАНДОЙ ИЗ КОРЕИ. (연해주 청소년 농구팀 한국 청소년 팀과 경기 열려) https://primorsky.ru/news/163251/	인터넷
16	2019. 7. 22	SPUTNIK	«День Пусана» познакомил с культуро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부산데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다) https://news.sputnik.ru/sport/8fd1849a31030abf7760cbe151baf6bfddfd830a	인터넷
17	2019. 7. 24	baikal-daily	Иркутск посетит «Евразийская экспедиция» из Кореи (한국에서 온 유라시아 대장정 사절단 이르쿠츠크 방문예정) https://www.baikal-daily.ru/news/16/369560/	인터넷

No.	보도일자	매체명	보도제목	보도형태
18	2019. 7. 26	베이징인민 우호협회	市对外友协组织釜山市民代表团赴京东集团总部参观交流 (부산 유라시아시민대장정, 징둥그룹 참관하며 교류하다) http://www.bjyx.org.cn/portal/yxportal/articl.php?portal_id=12&column_id=67&content_id=1962&search=1&search_key=%B8%AA%C9%BD&pages=1	인터넷
19	2019. 7. 29	몽골 한인동정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단원들 이태준선생 기념공원에 헌화 http://www.mongolkorea.com/bbs/board.php?bo_table=b_01_01&wr_id=682	인터넷
20	2019. 7. 29	몽골 한인동정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부산-울란바타르 친선의 밤 행사 열어 http://www.mongolkorea.com/bbs/board.php?bo_table=b_01_01&wr_id=682	인터넷
21	2019. 7. 31	러시아영화인 협회	В Доме кино пройдет День кино «Пусан-Москва» (돔키노 부산-모스크바 영화교류 행사 개최 예정) https://unikino.ru/	인터넷
22	2019. 8. 1	SKOLKOVO	Визи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ехнопарка Пусана (부산 테크노파크 대표단 방문) http://sk.ru/news/b/photos/archive/2019/08/01/vizit-predstaviteley-tehnoparka-pusana.aspx	인터넷
23	2019. 8. 2	PrimaMedia	В Пусане работает организация, отвечающая за укреп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городами России (러시아 도시들과 협력강화를 책임지는 기관이 부산에서 활동 중) https://primamedia.ru/news/838884/	인터넷
24	2019. 8. 8.	Berlin Global	Korean Concert Marks Friendship Between Berlin and Busan http://www.berlinglobal.org/index.php?korean-concert-marks-friendship-between-berlin-and-busan	인터넷

3. SNS·블로그 참고 주소

No.	보도일자	SNS·블로그 제목	보도제목	보도형태
1	2019. 4. 17.	바다TV	대장정 모집광고 홍보	홈페이지
2	2019. 8. 19.	바다TV	대장정 기록영상 홍보	홈페이지
3	2016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http://www.youtube.com/watch?v=NLF7v6wSshQ	유튜브
4	2017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http://www.youtube.com/watch?v=XIxFlynpaLM	유튜브
5	201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특집 청년, 유라시아 로드를 가다 http://www.youtube.com/watch?v=BTC9WF1n1CM	유튜브
6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http://badatv.busan.go.kr/05_special/PhotoView.jsp?tn=sea&idx=1430&field=&keyword=&b_id=3&m_id=4&s_id=2&t_id=&bid=a03&npage=0&nowBlock=0	바다TV
7	2019. 5. 14.	육각형아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면접 https://blog.naver.com/uhmdh56/221537597663	네이버 블로그
8	2019. 5. 30.	황숨민	최종선발/1차 OT 후기 https://blog.naver.com/moonchild1221/221550760087	네이버 블로그
9	2019. 7. 16.	부로콜리 노성철	유라시아대장정 출정식 소개 https://blog.naver.com/haenol7895/221587014080	네이버 블로그
10	2019. 7. 22.	میمجر	하얼빈 도시계획관, 안중근기념관 방문 후기 https://blog.naver.com/z4245z/221591799848	네이버 블로그
11	2019. 8. 8.	독일정원	베를린 친선 평화 음악회와 시민대장정의 마무리 https://blog.naver.com/derdeutschegarten1/221610321662	네이버 블로그
12	2019. 8. 21.	میمجر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후기 https://blog.naver.com/z4245z/221623125382	네이버 블로그
13	2019. 8. 23.	육각형아	유라시아시민대장정 해단식 https://blog.naver.com/uhmdh56/221626174296	네이버 블로그
14	2019. 8. 23.	میمجر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해단식 https://blog.naver.com/z4245z/221625424113	네이버 블로그

No.	보도일자	SNS·블로그 제목	보도제목	보도형태
15	2019. 8. 28.	모파랑	신북방정책과 평화로 소개 https://mofakr.blog.me/221631423609	네이버 블로그
16	2019. 3. 2.	블라디아바웃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블라디보스토크 활동소개 https://www.youtube.com/watch?v=GjIkuWCnkZM	youtube
17	2019. 7. 24.	B공식채널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소개 https://www.youtube.com/watch?v=09WqZWcg0_g	youtube
18	2019. 8. 19.	B공식채널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완주 https://www.youtube.com/watch?v=gr75a2ogjr4	youtube
19	2019. 4. 18.	부산광역시 공식 페이스북	유라시아원정대 모집 홍보 https://www.facebook.com/137969912931392/posts/2338220219573006?sfns=mo	페이스북 페이지
20	2019. 7. 24.	몽골한국신문 페이스북 페이지	유라시아원정대 이태준선생기념공원 헌화 https://www.facebook.com/1835153306707610/posts/2315274782028791?sfns=mo	페이스북 페이지
21	2019. 7. 24.	몽골한국신문 페이스북 페이지	부산-울란바타르 친선의 밤 행사 개최 https://www.facebook.com/1835153306707610/posts/2315277712028498?sfns=mo	페이스북 페이지
22	2019. 8. 7.	주독일 베를린 한국문화원	부산-베를린 친선평화 음악회 홍보 https://www.facebook.com/events/897680633901631/	페이스북 이벤트 홍보
23	2019. 8. 1	부산MVBC	생방송 자갈치아지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현장은?” https://www.youtube.com/watch?v=-FB0ejgLwXs&feature=youtu.be	라디오
24	2019. 7. 8	gratis-in-berlin.de	부산-베를린 평화 콘서트 (한국의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https://www.gratis-in-berlin.de/kalender/item/2044019-busan-berlin-friedenskonzert-philharmonic-orchestra-aus-suedkorea	온라인 모집홍보
25	2019. 8. 7.	Eventbrite	부산-베를린 평화 콘서트 (한국의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https://www.eventbrite.de/e/busan-berlin-friedenskonzert-tickets-65301878677#	온라인 모집홍보
26	2019. 8. 7.	allevents.in	노이쾰른의 고향에서 열린 우정과 평화 콘서트 https://allevents.in/berlin/busan-berlin-friedenskonzert/1000065301878677	온라인 모집홍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부산에서 베를린까지

발행및편집인 안영철
편 집 박혜련 박유경 손희승
편 집 제 작 빅그린
발 행 일 2019년 12월 13일
발 행 처 부산국제교류재단 유라시아 협력센터

펴 낸 이 한글문화사
등 록 제325-2005-00005호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13층
대 표 전 화 051) 711-6878
팩 스 051) 711-6826
홈 페이지 www.eurasiacenter.kr
이 메 일 busan.eurasia@gmail.com

I S B N 979-11-86267-61-5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